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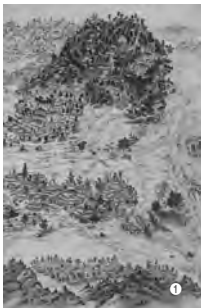
# 『무성서원원지』 (1884) 下

박정민·전희진·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 하  
(1884)



① 철광도

② 최치원 초상화

사진출처 | 정읍시립박물관



# 『무성서원원지』 (1884) 下

박정민·전희진·권이선 옮김



## 일러두기

- 원문은 정읍시립박물관 소장 『무성서원원지』를 대상으로 한다.
- 인명, 지명, 관직명, 건물명 등의 고유명사 및 중간점 사용이 필요한 일반명사가 나열 되는 경우 중간점(·) 사용. 유니코드 318D를 사용한다.  
예) 第一義先生名號·事實·文章·道德
- 번역문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문을 정서할 때 행수(行數)에 맞추어 입력한다.
  - 고유명사는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다. 다만 한 번 나온 글자는 뒤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나온 단어는 ( )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한글로만 작성한다.
  - 원문의 고유명사·인명·지명 등은 ( )로 표기한다.
  - 의역한 부분은 [ ]로 표기한다.
- 예)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院誌]의 전후 사정은 옛 서문에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감히 다시 덧붙이겠는가.
  - 세주(細註)는 【 】로 표기한다.
- 예) 현우 3칸【성종조 계묘년(1583)에 이건】
  - 연도는 간지 등을 먼저 쓰고, 연도를 ( )로 병기한다.
  - 각주는 연도를 먼저 쓰고 간지, 왕력을 ( )로 병기한다.
- 예) 본문 : 1554년(갑인) 12월 30일에 돌아가시니 연세가 64세였다.  
각주 : 김성근(1835-1919)은 안동(安東) 김씨이다. 1861년(철종 12)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 각주를 단 본문 내용과 하단의 각주 표제어는 일치하도록 한다.
  - 각주에서 인물 설명시 성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호(號)나 자(字)의 사용에 한해서 다시 설명해준다.
- 예) 소요부(邵堯夫)는 송대(宋代)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 원문에 차자(借字)로 표기된 물명(物名) 등은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고 별도의 주석은 않는다. 단,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석을 달거나 단어를 풀 때 (○○ ;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예) 최치원 선생 영정이 이모(移摹 ; 본떠서 그림) 되어 봉안(奉安 ; 신주나 화상을 모심)된 뒤에는 ~

-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른다.
-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아래의 부호를 사용한다.

※ 부호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편명, 작품명 논문 제목을 묶는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 외국어를 묶는다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글 안에서 대화를 표시할 때, 남의 말이나 서책 또는 시문 등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한다.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부분을 묶는다.

【 】: 원주(原註)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음과 끝에 사용한다.

■ : 원문이 누락된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 : 판독 불가인 경우에 사용한다.

● 역주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역주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바탕으로 한다.
- 난해한 용어, 인물에 대한 해설 등에 역주 실시하고, 인물 등은 현감 이상을 역주로 실시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 연도 등에 부족한 점이나 다른 학설이 있을 경우 상세 내용을 표기한다.

예) 각주 123 : 원문에는 “癸卯以主簿出補 泰仁創建五學宮”이라고 주부에 보임된 후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문맥만 보면 중앙 관직에 있던 신잠이 갑자기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면, 1543년(중종 38)에 신료들은 다시 신잠의 문예가 뛰어나니 명 사신을 맞이할 때 크게 쓰일 것이라면서 그를 추천하였고, 중종은 이를 허락하여 종6품의 사옹원 주부에 제수하였다.(『중종실록』 권 101, 38년 11월 26일 병인 ; 29일 기사) 며칠 후 중종은 “신잠은 주부가 됨은 무익하니 고쳐 守宰(수령)에 임명하여 치적을 살펴보려 한다.”하고, 태인 현감에 보임하였다.(『옥계선생문집(玉溪先生文集)』 권3, 행장) 즉, 1543년에 신잠은 사옹원 주부에서 새롭게 태인 현감으로 임명되었고, 태인에 와서 5개의 학당을 건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점은 원문 입력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목차

『무성서원원지』 하 (1884)

|                               |    |     |
|-------------------------------|----|-----|
| 일러두기                          |    | 4   |
| ■ 『무성서원원지』 하 해제               |    | 9   |
| 1. 체재 및 내용                    |    | 11  |
| 2. 특징                         |    | 15  |
|                               | 국역 | 원문  |
| ■ 『무성서원원지』 하 역주               | 21 |     |
| • 문창후 최 선생 격황소서(文昌侯崔先生檄黃巢書)   | 22 | 124 |
| • 영천 신 선생 비문(靈川申先生碑文)         | 27 | 126 |
| • 오현행적(五賢行蹟)                  | 31 | 127 |
| 불우헌(不憂軒) 정 선생(丁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 31 | 127 |
| 눌암(訥庵) 송 선생(宋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 32 | 128 |
|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 34 | 128 |
|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 35 | 129 |
|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 36 | 129 |
| • 피향정 현판운(披香亭懸板韻)             | 38 | 130 |
|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현판시         | 38 | 130 |
|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현판시           | 39 | 130 |
|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현판시           | 39 | 130 |
| 기암(畸菴) 정홍명(鄭弘溟) 현판시           | 39 | 130 |
| 임선(林愼) 현판시                    | 40 | 130 |
|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현판시           | 40 | 131 |
| 이민서(李敏敘) 현판시                  | 41 | 131 |
| 유태명(柳泰明) 현판시                  | 41 | 131 |
| 유복명(柳復明) 현판시                  | 42 | 131 |
| 유유(柳逾) 현판시                    | 43 | 131 |
| 이성조(李聖肇) 현판시                  | 43 | 131 |
| • 원우 중수 상량문(院宇重修上樑文)          | 45 | 131 |
| • 강당 중창기(講堂重創記)               | 49 | 133 |



|                       |     |     |
|-----------------------|-----|-----|
| • 현우 중수기(賢宇重修記)       | 51  | 134 |
| • 계원필경 중간기(桂苑筆耕重刊記)   | 53  | 134 |
| • 중수기(重修記)            | 55  | 135 |
| 김병흠(金丙欽) 기문           | 55  | 136 |
| 송지호(宋持灝) 기문           | 56  | 137 |
| 송중수(宋鍾壽) 기문           | 57  | 138 |
| 송정순(宋程淳) 기문           | 59  | 138 |
| •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 60  | 139 |
| • 원지 개간기(院誌開刊記)       | 62  | 139 |
| 기양연(奇亮衍) 기문           | 62  | 140 |
| 김영조(金永朝) 기문           | 64  | 141 |
| • 영천 신 선생 증유(靈川申先生從遊) | 66  | 141 |
| • 선진봉심안(先進奉審案)        | 68  | 142 |
| • 갑을기사(甲乙記事)          | 74  | 144 |
| • 원규(院規)              | 87  | 152 |
| • 백록동 오규(白鹿洞五規)       | 90  | 154 |
| • 강습례 집사(講習禮執事)       | 92  | 155 |
| • 홀기(笏記)              | 93  | 155 |
| • 향음주례 창홀(鄉飲酒禮唱笏)     | 96  | 156 |
| • 강습례 절목(講習禮節目)       | 112 | 161 |
| • 설강도(設講圖)            | 113 | 162 |
| •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 114 | 163 |
| • 삼강발문록(三綱發文錄)        | 115 | 164 |
| • 진설도(陳設圖)            | 117 | 164 |
| • 제물목록(祭物目錄)          | 118 | 166 |
| • 제기목록(祭器目錄)          | 119 | 166 |
| • 답안(答案)              | 120 | 166 |
| • 원생록(院生錄)            | 120 | 167 |
| • 원지 유사록(院誌有司錄)       | 121 | 167 |
| ■ 『무성서원원지』 하 원문       | 123 |     |
| ■ 『무성서원원지』 하 원문 이미지   |     | 169 |





# 『무성서원원지』 하 해제

## 1. 체제 및 내용

원지의 하권도 상권과 같이 목차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지만, 큰 틀로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보유·피향정현판문·무성서원 현판문·연혁·학규·강습례·제향·명단이다. 보유는 상권에 기재된 최치원과 제향인물의 관련 내용을 추가한 형태이다. 최치원의 대표작인 격황소서, 신잠의 신도비문, 그리고 무성서원에 배향된 5현(정극인·송세립·정언충·김약묵·김관)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5현은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여기에 추가된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표 1> 원지 하의 편목과 주요내용

| 편목     | 내용                                                                                              | 비고 |
|--------|-------------------------------------------------------------------------------------------------|----|
| 보유     | 문창후최선생격황소서(文昌侯崔先生檄黃巢書),<br>영천신선생비문(靈川申先生碑文), 오현행적(五賢行蹟 ;<br>불우현정선생, 눌암송선생, 묵재정선생, 성재김선생, 명천김선생) | 3  |
| 피향정현판문 | 피향정현판문(김종직, 임억령, 김상헌, 정홍명, 임선, 김수항,<br>이민서, 유태명, 유복명, 유유, 이성조)                                  | 1  |

|             |                                                                                                                                                       |   |
|-------------|-------------------------------------------------------------------------------------------------------------------------------------------------------|---|
| 무성서원<br>현판문 | 원우 중수 상량문(院宇重修上樑文), 강당중창기(講堂重創記),<br>현우중수기(賢宇重修記), 계원필경 중간기(桂苑筆耕重刊記),<br>중수기(重修記; 김병흠, 송지호, 송종수, 송정순),<br>복호보노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원지개간기(院誌開刊記; 기양연,<br>김영조) | 7 |
| 연혁          | 영천신선생종유(靈川申先生從遊), 선진봉심안(先進奉審案),<br>갑을기사(甲乙記事)                                                                                                         | 3 |
| 학규          | 원규(院規), 백록동오규(白鹿洞五規)                                                                                                                                  | 2 |
| 강습례         |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향음주례창홀(鄉飲酒禮唱筭),<br>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 4 |
| 제향          | 설강도(設講圖),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진설도(陳設圖),<br>제물목록(祭物目錄), 제기목록(祭器目錄), 답안(荅案)                                                                                   | 6 |
| 명단          | 삼강발문(三綱發文), 원생록(院生錄), 원지유사록(院誌有司錄)                                                                                                                    | 3 |

피향정현판문은 김종직이 쓴 시를 필두로 임억령 등 10명의 시가 쓰여 있고 현재도 대부분 피향정에 걸렸다. 사실 피향정은 무성서원 부근이 아닌 지금의 태인면 소재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지에 실린 이유는 최치원이 태산 태수를 역임했고, 태인현의 읍치가 이곳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김종직과 임억령, 김수항 등과 같이 최치원과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적도 있지만, 최치원과 관련 없이 작자와 태인의 관련성 등을 쓴 시들도 있다.

무성서원의 현판문은 7가지로 하권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한다. 특히, 중수기는 김병흠·송지호·송종수·송정순, 원지개간기도 기양연과 김영조가 작성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1832년의 현우중수기와 원우중수상량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당에 걸려있다.

여러 현판 가운데 강당중창기가 현재 남은 현판 가운데 가장 빠르다. 물론 그 전부터

1 사실 피향정이 있는 태인 읍치는 최치원이 노닐었던 공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무성서원 (제공: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현판은 있었겠지만, 1825년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능숙 현감을 중심으로 중수를 시작하여 1828년에 강당을 중창하였다. 따라서 강당중창기가 현재 남은 현판 가운데 가장 제작 시기가 빠르고, 대부분의 현판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계원필경중수기는 현판에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라고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1834년에 계원필경을 전라감영에서 중간한 뒤 무성서원에서 소장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무성서원의 연혁과 인적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크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전에 무성서원을 봉심한 명단인 「선진봉심안」, 신잡과 어울린 인물들의 명단을 기재한 「영친신선생중유」, 1735년<sup>2</sup>부터 1884년 3월까지 무성서원의 주요 사건과 임원 명단 등을 기재한 「갑을기사」이다.

2 박종배는 1675년부터 갑을기사가 시작된다고 보았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을묘년은 1675년이 아니라 1735년이다. 을묘년 당시 태인현감 송징계는 1690년생으로, 1734년 9월 28일에 제수 받았다. 1690년생인 송징계가 1675년에 현감을 지냈을리 없으므로 이때의 을묘년은 1735년이라고 보인다.

선진봉심안은 1486년(성종 22)에 봉심한 진사 정진부터 1857년에 과거에 새로 급제(新恩)한 최광한까지 기재되었다. 여기에는 진사나 새로 급제한 인물, 군수나 현감 등이 방문한 해가 간지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갑을기사를 통해 해당 인물들의 인적교류, 무성서원의 연혁, 임원 명단, 건립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sup>3</sup> 향후 갑을기사와 다른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무성서원의 연혁을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sup>4</sup>

한편, 신잠과 교유한 인물에는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 화재 이언적과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명단이 있고, 일제 이항과 같은 태인 지역의 학자도 포함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언적, 기준, 윤구, 김약회가 신잠과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급제한 동기였다는 것이다. 특히, 김약회가 무성서원이 있는 고현내에 거주하는 세족(世族)이었고, 여기에 동기생이었던 신잠이 현감으로 오자 위의 인물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다. 역시 이때 급제 동기인 송순이 이때의 모임을 시로 지은 것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사마시 합격자들의 모임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학규는 서원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잘 보여주는데, 하권은 「원규」와 「백록동오규」의 두 개가 있다. 원규의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이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김원행의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를 토대로 17개 항목으로 요약한 점을 보면 18세기 말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기에 주자(朱子)가 강학을 하면서 만든 규약인 「백록동오규」 등을 보면 무성서원은 주로 수신(修身)에 초점을 두고, 교육목표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통한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추구하였다.<sup>5</sup> 따라서 무성서원은 과거시험을 통한 입신(立身)보다 성리설, 역사서 등의 탐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습례는 무성서원의 강학과 서원철폐 이후에 가지고 있던 위상을 잘 보여준다. 1873년에 시작된 뒤로 1880년까지 매년 중일(重日)의 명절인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최하였다. 한 동안 강습례가 없다가 1891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개최하였다. 강습례는 고례습

3 여기에 대한 연구는 손윤희를 참조할 수 있다. 「武城書院의 建立과 變遷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 앞서 언급한 1847, 1854, 1875, 1879년의 중수 내용이 갑을기사에 빠진 사례도 있다.

5 진성수,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유학연구』 49, 2019, 98~102쪽.

례(古禮習禮)라는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가지며 다른 서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sup>6</sup>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원지의 강습례집사, 홀기, 강습례절목, 강습례도, 갑을기사 등으로 관련 행사의 순서 및 조향, 임원의 구성 이를 나타낸 그림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서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제향도 간과할 수 없다. 향음주례와 관련된 순서를 기록한 「향음주례창홀」, 이를 그림으로 쉽게 풀어낸 「향음주례도」, 제향할 때 제물의 위치를 어디에 둘지를 그린 「진설도」, 제물(祭物)과 제기(祭器)의 목록을 기재한 「제물목록」과 「제기목록」, 서원에서 소유한 전답의 면적을 기록한 문서인 「답안(沓案)」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무성서원의 제향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규모를 복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에 관한 명단이다. 크게 「삼강발문」, 「원생록」, 「원지유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신·효자·열녀 행적을 담은 삼강발문록은 약 25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배향인물의 후손들이거나 무성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이다.<sup>7</sup> 원생록에는 신석홍 등 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무성서원 원생의 정원은 30명이었다. 이때 무슨 이유로 인원이 감소했는지 사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지를 만든 사람들의 명단인 원지유사록에는 도유사로 삼례 찰방 최성재, 이외 발문·청서(講序)·교정·금전 출납 등의 업무를 맡은 31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2. 특징

지금까지 원지의 전반적 구성 체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상권과 하권의 특징을 네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무성서원과 최치원의 관련성을 역설한 것이다. 서문과 발문부터 무성서원과 최치원의 관련성을 다루었고, 이 지역은 동방 유학의 종장(宗匠)인 최치원이 있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원

6 박종배, 앞의 논문, 2011.

7 1930년과 1936년에 제작된 원지에는 그 인원이 훨씬 증가한다.

지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계원필경』의 서문, 유상곡수를 실현했다는 유상대비문과 중수비문을 원지에 실은 것이다. 특히, 유상대는 최치원과 이 지역을 연결시키는 핵심이었다. 즉, 1683년(숙종 9)에 유상대비문을 작성한 조지겸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小興)의 난정(蘭亭)이 왕희지를 만나 유명해졌듯이 고현내의 유상대도 최치원을 만나 알려졌다고 하였다.<sup>8</sup>

최치원을 배향한 곳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무성서원의 유림들은 사액서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냈다.<sup>9</sup> 더욱이 무성서원이 사액을 받는 1696년 11월 23일의 제문에서도 최치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유교가 비롯되었고, 유풍과 여운이 남아 마을 사람들이 추모하였다고 제문을 올리며 상징성을 부여하였다.<sup>10</sup> 이러한 사실은 최치원이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을 넘어 고현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성서원과 최치원 관련성은 1783년(정조 7)에 최치원의 영정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원래 영정은 경상도 하동 쌍계사에 있었는데, 최치원의 영정이 절에 있는 것은 유학자들의 수치라며 영호남 유생들이 하동향교에 통문을 보내 후손인 최항대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항대의 집에서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자 낙안과 홍양의 유림들은 무성서원에서 모시도록 태인향교에 통문을 보냈다. 결국 태인의 유림들은 최치원의 영정을 무성서원에 모시기로 결정하였다.<sup>11</sup> 이러한 상징성은 최치원 관련 사업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태인 현감 심능숙은 홍석주의 집에 있던 『계원필경』 1권을 전라감영에서 중간하였다.

둘째, 무성서원이 철폐된 후 복호와 보노까지 폐지되었는데 이를 복구하는 과정인 「복호보노환복기」에 대한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다른 사액서원에서 정원 20명, 노비 7명이 배정된 것과 달리 최치원을 배향한 서원이라는 명분으로 복호 3결과 보노 30명, 원생 30

8 「유상대비문」, 『무성서원원지』 상, 1884.

9 「청액소」, 「청액사적」, 『무성서원원지』 상, 1884.

10 「제문」, 『무성서원원지』 상, 1884.

11 「문창후최선생영정봉안사적」, 『무성서원원지』 상, 1884

명을 받았다. 하지만 대원군의 서원 철폐 여파로 무성서원은 복호와 보노가 삭감되었다. 실망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1872년에 유림들은 호포와 부역 등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여 현감으로부터 11호의 포와 부역을 감하였다.

그런데 1878년에 장성의 필암서원은 복호와 보노를 전처럼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성서원의 유림들은 필암서원에 통문을 보내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읍 현감에게 동년 12월부터 필암서원의 사례로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았다. 다시 유림들은 태인현→전라감영→의정부로 문서를 올렸고, 결국 영의정 이최응으로부터 복호와 보노를 복구하라는 승낙을 받아냈다. 이후 관찰사도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아전들의 농간으로 잘 처리되지 못하였다.

유림들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지난한 과정을 시작하였다. 마침내 1880년 6월 7일에 의정부에서 다시 복호와 보노의 회복을 명령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쉽게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시 관련 문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끝에 동년 12월에 감영으로부터 복호 회복의 허가를 받았고, 태인현감이 회복해 주었다. 복호와 보노의 회복을 위해 유림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내용은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재까지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림들의 노력과 함께 당시 영의정 이최응의 결정도 복호와 보노의 회복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882년 3월에 유림들은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공최응불망비(李公最應不忘碑)’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복호와 보노를 회복한 사건은 원지를 집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거의 모든 문서를 여기에 실어 분량 역시 상당하다. 결국 복호보노환복기는 단순한 복호와 보노의 회복이 아닌 무성서원의 유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쟁취하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성서원의 연혁을 상세하게 정리한 「갑을기사」이다. 여기에는 1735년(영조 11)의 현우(賢宇) 중수부터 1884년에 신문(神門)의 담장을 수리한 내용까지 관련 사건과 원장



및 임원진 등이 기재되어 있다.<sup>12</sup> 이를 통해 무성서원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중수한 일, 당시 현감을 비롯한 임원 명단, 봉심한 사람들, 강습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한편, 갑을기사의 구성 체계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38년(무술)까지 사건을 먼저 제시한 후 세주(細註)로 연도를 표기하였다가 1842년(임인)부터 1855년(을묘)까지 연도를 먼저 제시한 후 사건과 인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1857년부터 1860년까지 다시 세주로 연도를 표기하다가 1861년부터 연도 기재로 바뀌었다.<sup>13</sup> 또한, 1859년부터 과거에 새로 급제한 인물이 무성서원에 봉심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갑을기사의 사료적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례는 1737년 2월에 강수재(講修齋)의 중수 기사이다. 지금까지 강수재가 정확히 언제 건립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887년에 김영상이 지은 강수재중수기에 의하면, 1696년에 사액을 받은 이후에 본래 고사(庫舍)로 쓰던 건물을 강수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sup>14</sup> 그렇다면 1696년 이전에는 강수재가 없었다고 보인다.<sup>15</sup> 강수재를 중수했을 때 태인현감은 허후였다. 그는 1686년생으로 1735년에 도임하여 1740년 2월에 체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1737년 2월에 강수재를 중수했다는 기록은 사실로 보인다.<sup>16</sup>

이외 1825년에 강당이 화마를 입었지만 1828년에 다시 중건한 내용과 1872년부터 강습례를 시작한 내용 등도 다른 기록들과 동일하다.<sup>17</sup> 따라서 갑을기사는 전반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무성서원의 주요 연혁, 건축 과정, 여기에 기재된 인물들의 인적네트워크, 당시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태인 일대에서 활약한 인물들까지 복원 가능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넷째, 강회가 무성서원에서 독창적 형태로 발현된 강습례이다. 강습례는 1873년부터

---

12 1936년 판본은 1929년까지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3 예외적으로 1842년부터 “눌암선생(訥庵先生) 11세손 송양채(宋亮采)” 등과 같이 배향 인물의 후손을 명기하고 있다.

14 「강수재중수기」, 『무성서원원지』 하, 1936

15 이후 강당과 혼용되다가 현재 강수재는 1879년에 다시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수재의 창건 시기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16 「선생안」, 『태인현읍지』(奎17410).

17 하지만 1784년에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는 과정 등이 갑을기사에 누락되어 있어 아쉬운 점은 있다.

1880년까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거행되었다. 1884년본은 갑을기사(해당 내용), 강습례집사, 홀기, 강습례절목, 강습례도 순서로 기재되어 있는데, 1936년 판본에는 갑을기사(해당 내용), 강습례절목, 강습례집사, 홀기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상 1936년의 판본이 더 짜임새 있어 보이지만 강습례도가 빠져 있다.

강습례집사는 도집례를 비롯한 강습례에 참여하는 임원들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만 홀기의 내용을 통해 그 역할 등을 추정할 수 있다.<sup>18</sup> 필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홀기라고 생각한다. 즉, 강습례의 의식절차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강습례의 형식과 진행방식, 등장인물까지 복원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이후 강습례절목을 통해 행사의 수칙 5개를 기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습례도를 통해 학임과 강장 등 강습례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위치를 한 장으로 그렸다.

강습례는 무성서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871년부터 태인 현감 김인근이 원장을 맡았고, 1872년부터 호포와 부역의 면제를 요청하다. 또한, 동년 8월에 현감 조중식과 안학울 등이 남학당계를 중창하였고,<sup>19</sup> 이를 본 안재호가 수 백 권의 책을 기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1871년과 1872년은 무성서원 부흥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맥락에서 1873년부터 무성서원의 유림들은 강습례를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강습례는 무성서원이 닦친 위기를 타개할 자구책 중 하나로 발 빠르게 대처한 사례이다. 따라서 편찬자들은 강습례와 관련된 내용을 원지에 기재하여 그 위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884년에 제작된 무성서원의 원지는 당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읍시민을 넘어 전라북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지의 번역을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8 박종배, 앞의 논문, 2011, 129~130쪽

19 「갑을기사」, 『무성서원원지』 하, 1884.





## 문창후 최 선생 격황소서(文昌侯崔先生檄黃巢書)<sup>20</sup>

881년(광명 2년) 7월 8일에 제도도통검교태위(諸道都統檢校太尉) 모(某)는 황소(黃巢)<sup>21</sup>에게 고한다.

대개 바른 것을 지키면서 떳떳함을 닦는 것을 도(道)라고 하고, 위태로울 때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권(權)이라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에 순응하여 공을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슬러 패망한다. 비록 백 년의 인생살이 동안 생사(生死)를 기약하기 어렵지만 모든 일은 마음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王師)가 정벌하러 가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데, 군정(軍政)에서는 은혜를 앞세우고 처벌은 뒤로 미루고 있다. 장차 상경(上京; 장안)을 수복하려는 이때 우선 큰 신의(信義)를 펼치려고 하니 타이르는 말을 공경히 받들어 간악한 꾀를 거두도록 하라.

또 너는 본시 변방의 백성(遐氓)인데 갑자기 사나운 도적이 되어 우연한 기세를 타고 올라 감히 강상(綱常)을 어지럽혔다. 마침내 화심(禍心)을 품고서 신기(神器)를 농락하는가 하면 도성(城關)을 침범하고 궁궐(宮闈)을 더럽혔다. 이미 죄는 하늘까지 닿았으니 반드시 패망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질 것이다.

아! 요순[唐虞]<sup>22</sup> 이래로 묘호[苗虬]<sup>23</sup>가 복종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불량[無良]한 무뢰배와 불의(不義)하고 불충(不忠)한 무리가 계속 나왔다.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작태가

20 한국고전번역원에 원문과 해校本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윤문하였다.(<https://db.itkc.or.kr>)

21 황소(黃巢, 미상-884) : 당(唐) 나라 말기에 농민군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881년에 도성(都城)인 장안을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까지 올랐다. 883년에 당은 돌궐계 유목 부족인 사타(沙陀)의 도움으로 그를 몰아내고, 이듬해 황소는 자결하였다. 고병(高駢)이 도통사(都統使)가 되어 황소를 토벌하는데 최치원이 종사관(從事官)으로 대신하여 격문(檄文)을 지어서 보냈다.

22 당우(唐虞) :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말하는 것으로 요순(堯舜)을 뜻한다.

23 묘호(苗虬) : 묘(苗)는 순(舜) 임금에게, 호(虬)는 하(夏) 나라에 복종하지 않아서 토벌을 당한 나라이다.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 멀리로는 유요(劉曜)<sup>24</sup>와 왕돈(王敦)<sup>25</sup>이 진(晉)나라 왕실을 엿보았고, 가까이로는 안록산(安祿山)<sup>26</sup>과 주차(朱泚)<sup>27</sup>가 개처럼 황실에 짖어 대었다.

그들은 모두 손에 강병(强兵)을 쥐기도 했고, 몸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오르렁거리면 우레와 번개가 달리듯 하였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개와 연기가 자욱하게 끼듯 하였다. 하지만 잠깐 동안 간악한 짓을 도모하다가 끝내 추악한 무리는 남김없이 멸망당하였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데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냥 놔두겠으며 하늘의 그물이 높이 걸렸으니 반드시 흉악한 족속을 제거할 것이다.

하물며 너는 평민(閭閻) 중에 천한 출신으로 농민들 사이에서 일어나(隴畝之間) 분탕질하는 것을 능사로 알고,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다. (너에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만 있을 뿐, 용서받을 만한 선행(善行)은 조금도 없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여 시체를 보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은밀하게 죽일 의논을 이미 마쳤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잠시 목숨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혼이 사라지고 넋을 뺏기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무릇 사람의 일이란 스스로 깨닫는 것만 못하다. 내가 망언(妄言)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마땅히 살피 들도록 하라.

그동안 우리나라는 덕이 깊어 더러움도 포용하고, 허물도 눈감아 주는 은혜가 중하여

---

24 유요(劉曜, 미상-329) : 5호 16국 시대 흉노(匈奴)의 후예로 서진(西晉)을 멸망시켰다. 318년에 전조(前趙)의 왕위에 올랐다. 319년에 석륵(石勒)도 스스로 조왕(趙王)이라며 독립하였다. 흉노족이 세운 한(漢)나라는 유요의 전조(前趙)와 석륵의 후조(後趙)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328년에 석륵과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이듬해 살해당하였다.

25 왕돈(王敦, 266-324) : 동진(東晉)의 정치가로 서진(西晉)이 망하고 동진이 들어설 때 병권을 장악하였다. 322년에 사마예(司馬睿)가 왕씨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자 반란을 일으켜 여러 신하를 죽이고 스스로 승상(丞相)에 올랐다. 하지만 324년에 그가 중병에 걸리자 왕도(王導) 등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였다. 결국 그의 시신은 목이 잘려 저자 거리에 걸리게 되었다.

26 안록산(安祿山, 703?-757) : 돌궐계 인물로 당나라 말에 활약하였다. 그는 각종 전공을 세워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 세 지역의 절도사를 겸하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하지만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楊國忠)과 반목하여 755년(천보 14)에 어양(漁陽)에서 20만 대군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낙양과 장안을 함락하였다. 스스로 황제를 칭했지만 아들인 안경서(安慶緒) 등에게 살해당하였다. 안록산의 친구였던 사사명(史思明)이 당나라에 투항하였지만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두 반란을 그 주동자의 이름을 따서 '안사(安史)의 난'이라고 부른다.

27 주차(朱泚, 742-784) : 당나라 말에 활약한 인물로 783년에 부하들의 옹립을 받아 황제가 되었지만 곧 진압되며 달아나는 중에 부하에게 살해당하였다.

너에게 칙사의 부신(符信)을 주고 절도사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너는 오히려 가슴속에 짐조[鳩]<sup>28</sup>의 독을 품고 올빼미 소리를 거두지 않은 채 움직이며 사람을 물어뜯고 오직 주인에게 찾아 대었다. 그리고 끝내 임금의 교화를 저버리고 병사들로 궁궐을 휘감아 공후(公侯)는 급하게 달아나 숨기에 바쁘고, 임금의 행차[警蹕]는 먼 지방으로 순행하며 유람 하기에 이르렀다.

(너는) 일찍이 덕의(德義)에 귀순할 수 없어, 단지 완악하고 흉측한 짓만 하였다. 이에 곧 성상께서 너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너는 국가에 은혜를 저버린 죄가 있다. 반드시 네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더구나 주나라 솥(周鼎 ; 천하를 차지하는 왕조의 정통성)은 물어 볼 것도 아닌데, 한(漢)나라 궁궐이 어찌 구차하게 안일을 꾀하는 곳이 될 수 있겠는가? 끝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너는 듣지 못했는가? 도덕경(道德經)』에 이르기를 “폭풍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라고 하였다.<sup>29</sup> 하늘과 땅의 현상도 오래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이겠는가. 또 듣지 못했는가?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하늘이 선하지 못한 자를 가짜로 도와주는 것은 복을 주려 함이 아니라 흉악함을 쌓도록 하여 벌을 내리려 해서이다.[天之假助不善 非祚之也 厚其凶惡 而降之罰]”라고 하였다.<sup>30</sup> 지금 너는 간사함을 품고 포악함을 숨겨 죄악과 온갖 재앙[殃禍]을 계속 쌓아가면서 위험한 것을 편안히 여긴 채 미혹된 것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제비가 바람에 날리는 장막 위에다 등지를 틀고서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끓는 솥 속에서 장난치다가 곧 삶아져 죽는 것과 같다.

나는 웅대한 전략(戰略)을 구사하며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고 있다. 용맹한 장수는 구름처럼 날아들고 용감한 군사가 비처럼 모여든다. 높이 솟은 깃발과 큰 기들은 초(楚)

28 짐조(鳩鳥) :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맹독을 가진 새이다. 짐조의 깃털에서 모은 독은 짐독이라고 하며 예전부터 자주 암살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29 『도덕경(道德經)』 23장의 내용이다.

30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 11년의 내용이다.

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전함(戰艦)과 누선(樓船)은 오(吳)나라 강의 풍랑을 막을 것이다. (나는) 손쉽게 적을 격파했던 도 태위(陶太尉)<sup>31</sup>의 군략(軍略)이고, 양 사공(楊司空)<sup>32</sup>처럼 신이라고 칭해질 만하다. (너를 제압하는 것은) 널리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만 리를 두루 다녀 이미 퍼져가는 맹렬한 불길 속에 기러기 털을 태우는 것과 같고, 태산을 높이 들어 새알을 누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금신(金神; 가을의 신)이 계절을 제어하고 수백(水伯; 물의 신)이 군대를 환영하는 이때에, 가을바람[商風]은 숙살(肅殺; 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게 함)의 위엄을 북돋우고, 새벽 이슬은 혼미하고 번잡한 기운을 씻어 준다. 파도는 이미 잠잠해지고 도로는 통하였으니, 석두성(石頭城)<sup>33</sup>에서 닳줄을 풀면 손권(孫權)이 후미(後尾)를 담당할 것이요, 현수산(峴首山)<sup>34</sup>에서 돛을 내리면 두예(杜預)가 선봉(前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를 수복(收復)하는 것은 열흘이나 한 달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미워하는 것은 상제(上帝)의 깊은 인자함이요, 법을 굽혀서라도 은혜를 펼치는 것은 대조(大朝; 왕세자가 섭정할 때의 임금)를 가리킴의 훌륭한 법이다. 적을 성토(聲討)할 때에는 사적인 분노를 품지 않을 것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바른말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

나는 짧은 편지[折簡]의 글월을 보내 거꾸로 매달린 듯한 너의 급한 사정을 풀어주려고 하니 너는 융통성 없이 굴지 말고 빨리 기미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위해 잘 도모하면 과오를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한다면 공신의 봉함을 받게 하여[分茅; 공신의 봉함을 받음] 땅을 나누어 주고 나라를 개국하여 가업을 계승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몸

31 도 태위(陶太尉) : 동진(東晉)의 명장(名將) 도간(陶侃, 257-332)으로 두수(杜弼)와 소준(蘇峻) 등 반역자를 평정하였다. 41년간 장상(將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32 양 사공(楊司空) : 수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양소(楊素, 미상-606)이다.

33 석두성(石頭城)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이다. 본래는 초(楚)나라의 금릉성(金陵城)이었는데, 212년(건안 17)에 손권(孫權)이 증축하고 석두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조조(曹操)가 오(吳)나라를 침공하였을 적에 손권이 유비(劉備)와 합세하여 적벽대전(赤壁大戰)을 치른 고사가 유명하다.

34 현수산(峴首山) :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양양(襄陽)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280년에 진나라 두예(杜預)가 오(吳)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킬 때 현수산에서 오나라 군대와 대치하였다.

과 머리가 잘리는 화를 면하고, 공명(功名)을 우뚝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친한 척하는 무리를[面友] 믿지 말아야 먼 후손에게까지 영화를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아녀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실로 대장부의 일이니 서둘러 회보(回報)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라. 내가 황천(皇天)의 명을 떠받들고 백수(白水)에 맹세하였으니 한 번 말을 하면 메아리처럼 응할 것이니 은혜를 원망으로 갚으려 하면 안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미쳐 날뛰는 무리에게 이끌려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서듯 하고,<sup>35</sup>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려고만 한다면,<sup>36</sup> 곧 곰과 표범을 잡는 군사들로 한 번에 박멸(撲滅)할 것이니 까마귀처럼 모이고 솔개처럼 날뛰던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너의 몸은 도끼날의 기름이 되고, 뼈는 전차[戎車] 밑에서 가루가 될 것이요, 처자(妻子)는 잡혀 죽고 일가친척[宗族]은 주살당할 것이다. 동탁(董卓)의 배짱을 불로 태울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려 선악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배반하여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귀순(歸順)하여 영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다만 바라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부디 장사(壯士)의 규범을 찾아 즉시 표범처럼 변하고,<sup>37</sup> 우부(愚夫)의 소견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만 하지 말지이다. 모(某)는 고하노라.

35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에 맞서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36 수주대토(守株待兔) : 한 농부가 밭을 갈 때, 토끼 한 마리가 달아나다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때부터 농부는 일손을 놓고 그 그루터기만 보며 다시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37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영천 신 선생 비문(靈川申先生碑文)

내가 한가로이 고향[田里]에 거주할 때 인적이 드물어 대문 앞에 새그물을 펼칠 만 하였다.<sup>38</sup> 하루는 대나무 사이의 작은 집에 앉아 있는데 포의(布衣)를 입고 띠[博帶]를 두른 풍채 좋은 어떤 두 명의 유생이 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며 만남을 청하였다. 바로 성균관 진사[上庠] 김원(金元)<sup>39</sup>과 성균관 유생 백삼구(白三龜)였다. 두 유생이 말하길 “저희들은 대대로 태인에 거주하였습니다. 청컨대 저희 태수 신 현감의 위정(爲政)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을은 수레바퀴와 말발굽이 모이는 지역으로 사람은 드물지만 일이 많고 역이 번다하며 부세가 많아 느슨히 다스려도 숙식과 거마(車馬)를 제공해야 하고 급히 다스리면 원망하고 한탄하여 두 가지를 모두 병통으로 여겨 살아갈 방도가 적었습니다. 신 현감이 1544년(갑진)<sup>40</sup> 초에 제수 받아[分左符]<sup>41</sup> 부임해 온 날 먼저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오랜 폐단을 물어서 개혁하여 없애고, 위로하여 달래기를 부지런히



신장비 (제공: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38 문호(門戶)가 쇠락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39 김원(1511-미상) : 도강(道康) 김씨이고, 호가 시암(詩巖)이다. 1537년(중종 32) 진사시에 3등 42위로 급제하였다. 무성서원이 있는 태인 고현내에 거주하였다.

40 신잠이 태인현감으로 제수 받은 것은 1543년이고 1548년까지 재임하였다. 원문에는 신잠이 갑진년인 1544년에 부임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태인현감에 제수된 것은 1543년 12월이므로 도임(到任)한 것은 1544년 초일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박정민, 「신영천자 신잠의 생애와 활동-태인현감 시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9, 2020)

41 좌부(左符) : 조선시대에 군사를 동원할 때 사용한 부신(符信)의 왼쪽 조각으로 지방관으로 부임한 것을 의미한다.

하고, 송사를 결단함에 상세하게 따졌으며, 자신은 엄하게 다스리고 타인은 어질게 대하니, 백성들이 이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해 공덕을 칭송하는 노래가 바야흐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신 현감께서는 ‘아직 아니다. 자유(子遊)가 무성(武城)의 읍재가 되어 예악(禮樂)으로 가르치자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민관의 양법(良法)이지만 이후로 덕교(德敎)의 은택이 퍼지지 못해 대략 형법만을 가지고 속박하며 단속하였다. 그러니 순박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드물게 혹 보여 지기도 했으나, 나는 단지 법도의 말단에만 급급했을 뿐이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개연(慨然)히 학문을 흥기시켜 풍속을 변화시킬 뜻으로 마을(坊曲)에 명하여 각 지에 서당(局堂)을 설치하고 즉시 서책(書冊)을 인쇄하여 간직했으며<sup>42</sup>, 풍부한 재정 지원[餼廩]으로 마을 사람 중에 준수한 사람들을 모아 스승을 택해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절의(節義)를 숭상하며 염치(廉恥)를 권면하고 순수하고 독실한 행실을 몸소 하시며 바야흐로 교화의 도를 밝히시니 교활한 서리(胥吏) 또한 고개를 움츠리고 마음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어 즐거이 선으로 나아가려 하여 1년이 되지 않아 온 경내가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일찍이 퇴근하고[退食] 머무는 당(堂)을 삼사(三事) 당이라고 편액했으니 대개 옛 사람의 관직을 맡는 법<sup>43</sup>에서 취한 것으로 오직 청렴(淸), 신중(愼), 근면함(勤)만이 있을 뿐이라며 크게 세 글자의 뜻을 벽 위에다 써서 자신을 단속하고 또 훗날의 군자들도 힘쓰게 하였습니다. 당의 동쪽에 몇 칸의 초가집을 짓고 한가한 날이면 거문고 타며 학을 감상하고 쓸쓸히 속세를 벗어날 생각을 하니 옛 신라 말의 최 문창(文昌) 고운(孤雲)이 일찍이 우리 읍에 현감으로 계실 때 그 유풍(遺風)의 남은 여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우리 현감의 문장과 품격은 천 년 전 고운과 함께 논할 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하며 그리워하여 차운한 절구가 많은 것이니 고운도 혹 (신 현감 보다) 앞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42 『양곡선생집(陽谷先生集)』 권14, 태인 신잠 선정기(申泰仁潛 善政記)에는 ‘인장서책(印藏書冊)’으로 되어 있어 보충 번역했다.

43 “관직을 맡는 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 曰愼 曰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에서 유래한다. 『동래집(東萊集)』 권6, 「사인관잠(舍人官箴)」



현감의 이름은 잠(潛)이고 자는 원량(元亮)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공신이자 정승을 지낸 신숙주(申叔舟)의 증손이고 세 번 장원을 한 삼괴(三魁) 선생 신중호(申從濩)의 아들입니다.<sup>44</sup> 일찍이 집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능히 가업을 이어 문장과 서화가 세상에서 삼절(三絶)<sup>45</sup>로 일컬어졌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는 이로 집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고 매번 일을 처리하기를 단숨에 많은 종이에 휘둘러 써나가며 대략 막히는 것이 없으셨으니 비유하자면 푸줏간 백정이 소를 바르는 듯하여<sup>46</sup>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익숙하고 뛰어났습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 돌아감에 노잣돈 주머니는 비고 거문고와 칼, 도서(圖書)만 몇 바리 싣고 가니, 읍의 노인과 아이들이 못 가게 만류하고[攀轅]<sup>47</sup> 등자를 끊어도[截鐙]<sup>48</sup> 이미 만류할 수 없으므로 돌을 채취해 다듬고 정리해 선정(善政)을 새길 것을 의논하여 길가에 세워 후세에 무궁하게 전하여 보이고자 합니다. 원컨대 선생을 찬양한 문장을 얻기를 감히 와서 청합니다.”

내가 듣고는 탄식하며 “정말 이러하구나. 원량이 정치를 행함은 이른바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였다. 한나라의 공경(公卿)이 대부분 어진 2,000석에서 나온다고 하더니<sup>49</sup> 그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였다. 다만 내가 늙고 졸렬하여 글을 잘 짓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만, 어찌 죽히 여러분들의 소망을 막겠는가? 비록 그러하더라

44 신중호의 장남은 신항이다. 신항은 성종의 서장녀인 혜숙옹주와 결혼하였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일찍이 형인 신항에게 글을 배웠다.

45 삼절(三絶) : 시·서·화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 또는 그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46 전국시대 양(梁)나라에 살던 포정이라는 인물이 소를 매우 잘 발라서 뛰어난 솜씨를 비유하는 뜻이다.

47 반원(攀轅) : 선정(善政)을 베푼 수령이 떠날 때 백성들이 수레를 붙잡고서 못 가게 만류한다는 뜻이다.

48 절등(截鐙) : 말의 등자를 끊고 채찍을 잡아 떠나는 목민관을 만류하고 그에게 석별의 정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감이 태인을 떠날 때 그 백성들이 아쉬워하고 고마워했음을 의미한다.

49 어진 2,000석은 한 대(漢代)에 1군(郡) 태수(太守)의 연봉이 2천 석이었으므로 뒤에 지방 수령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서(漢書)』 권89, 「순리전(循吏傳)」에 “서민이 향리에서 안정을 취하며 탄식과 근심이 없게 하려면, 정치와 송사가 공평하게 잘 다스려져야 하는데,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어진 이천 석일 뿐이다.(庶民所以安其田里 而亡歎息愁恨之心者 政平訟理也 與我共此者 其唯良二千石乎)”라는 선제(宣帝)의 말이 실려 있다.

도 원량은 1513년(중종 8) 진사시에 장원급제한<sup>50</sup> 나의 문생(門生)이다. 시산(詩山)<sup>51</sup>과 내 집의 거리가 꽤 멀지만 훌륭한 정치가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을 다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도인(道人)의 훌륭한 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태사(太史)<sup>52</sup>가 모두 큰 붓을 들고서 특히 역사[簡策]<sup>53</sup>를 쓴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어찌 내 글만을 기다리겠는가. 우선 나와 그대들이 서로 말한 것으로 부모(父老)들에게 남기고 또한 이어서 부임할 수령들이 모범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좌찬성(左贊成) 소세양(蘇世讓)<sup>54</sup> 쓰다.

50 신감은 1513(중종 8)의 진사 식년사에서 100명 중 1등으로 합격하였다.(<http://people.aks.ac.kr>)

51 시산(詩山) : 현재의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 시산리와 무성리 일대를 통칭한다.

52 태사(太史) ; 고대의 사관(史官)이다.

53 간책(簡策) : 종이 대신에 글씨를 적는 데 쓰던 대쪽, 혹은 그것으로 엮어 맨 책이다.

54 소세양(1486-1562) : 진주(晉州) 소씨이고, 호가 양곡(陽谷)이다. 1504년(연산군 10) 진사시, 1509년(중종 4)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에 1530년에 왜구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한 죄로 파직되었다, 말년에 고향인 익산에서 은거하였다. 문명이 높고 시에 능하였으며 익산 화암서원(華巖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양곡집(陽谷集)』 등이 있다.

## 오현행적(五賢行蹟)

### 불우현(不憂軒) 정 선생(丁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sup>55</sup>

세종조(世宗朝)에 요사스러운 승려 행호(行乎)가 주지가 되어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위로는 종척(宗戚 ; 종친과 외척)부터 아래로 여항(閭巷 ; 백성들이 사는 거리)에 이르기까지 마치 제자가 되지 못할까 염려하는 듯 1년 동안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 아직 벼슬이 없는 선비인[布衣] 정공(丁公)이 성균관(太學)에 있으면서 곧 여러 유생들을 거느리고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의 따르지 않았다. 공이 여러 유생들과 권당(捲堂)<sup>56</sup>하기를 약속했는데, 임금이 불러들여 학관(學館)을 비운 문제를 힐난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니 여러 유생들이 귀의하여 승려가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상소하여 극간하자, 임금이 진노하여 죽이려 했는데, 당시의 재상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가 임금의 소매 자락을 당기며 간쟁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정극인(丁克仁)을 죽이시면 역사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후회하고 깨달아서 마침내 북방으로 귀양 보냈다가 곧 사면하여 돌아오게 하고, 이어서 요승 행호를 제주도에서 귀양 보냈다. 공은 이 때문에 이름을 당대에 떨쳤다.

성종조(成宗朝)에 나이가 많아져서 상소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니 특별히 좌리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었다.<sup>57</sup> 왕이 예조판서 이승소(李承召)에게 명하여 도성의 문 밖에서 장막을 치고 조도연(祖道宴)<sup>58</sup>을 베풀어 전송하게 하였고, 연로하여 정사를 맡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특별히 3품(三品)의 산관(散官)을 더해 주었다. (사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추증하였다.

55 보유(補遺) : 빠진 것을 채워 넣는다는 뜻이다.

56 권당(捲堂) : 조선시대에 성균관 유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정에 불만이 있으면 일으킨 집단 시위의 하나이다. 성균관을 비우고 나간다고 하여 공관(空館)이라고도 한다.

57 여기에서는 정극인을 좌리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에서는 1472년(성종 3) 3월에 산관을 특별히 가하였다고 한다. 『성종실록』 권16, 3년 3월 23일 기미) 이는 약간의 과장이라고 보인다.

58 조도연(祖道宴) : 멀리 떠나는 사람을 위해 무사안녕을 비는 뜻으로 행로신(行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 눌암(訥庵) 송 선생(宋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선생께서 타고난 천성이 매우 뛰어나고 성품이 어질며 효성스럽고, 재주가 명민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 무릇 언행(言行)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고 특히 시사(詩詞)에 뛰어나서 사물을 보는 대로 읊으면 모두 성율(聲律)에 맞으니,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불렀다. 돌아가신 아버지 여원군(礪原君 ; 송연손)이 일찍이 왕자의 사부가 되어 중종(中宗)께서 잠저(潛邸)<sup>59</sup>에 계실 때 시독관(侍讀官)이었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시자 친가로 돌아가기 위해 시독관을 급히 그만두었다.

중종께서는 선생의 행실이 준엄함을 알고 오로지 선생을 시독으로 명하였으며 중종 때 정국(靖國)의 공으로 특별히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을 내렸으니 대개 일전에 선생의 시독에 대한 공을 기억하신 것이다. 갑자사화(甲子士禍) 이후에 『어면순(禦眠楯)』<sup>60</sup> 2책을 저술하였다. 호음(湖陰) 정 선생(정사룡)<sup>61</sup>이 발문에 “비록 유희(遊戱)에서 나왔지만 타일러 깨우쳐주는 뜻이 실로 그 안에 담겨 있다. 가령 선생께서 사국(史局)에서 간악한 자는 꾸짖고 알려지지 않은 자를 드러내게 하며 사간원에서는 천거를 하거나 일을 논하게 하셨으니 어찌 여기에 업적을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중종께서 선생이 고질병으로 일 년 내내 벼슬을 하지 못하시자 내약(內藥 ;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하사하고 의원을 보내니 (공이) ‘학교를 진흥시키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에 관해 상소[封事]를 올렸다. 중종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옷의 겹감과 안집[表裏] 한 벌[襲]을 내렸다.

선생의 훌륭한 명망은 사림(士林) 가운데에서도 우뚝 솟았다. 눌재 박 선생(박상)<sup>62</sup> 이

59 잠저(潛邸) :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나, 그 기간 동안을 이르는 말이다.

60 어면순(禦眠楯) : 송세림이 편찬한 한문 소담집이다. 책의 제목과 같이 ‘잠을 막아 주는 방패’라는 뜻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61 정사룡(1491-1570) : 동래(東萊) 정씨이고, 호가 호음(湖陰)이다. 1507년(중종 2) 진사시, 1509년의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부제학,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서 문명을 떨쳤고, 이후 『조천록(朝天錄)』을 썼다. 칠언율시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62 박상(1474-1530) : 충주(忠州) 박씨이고, 호가 눌재(訥齋)이다. 1496년(연산군 2) 진사시, 1501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조좌랑, 전라도도사, 임피현령 등을 역임하였다. 1515년(중종 10)에 순창군수 김정과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한 상소를 올렸다. 청백리로 인정받았으며 문장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서로 『눌재집(訥齋集)』이 있고, 광주(光州)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다.

늘 선생의 문인들에게 말하길 “선생은 참으로 심학(心學)을 하셨다.”고 하셨으며 면앙(倅仰) 송 선생(송순) 또한 함께 교유[從遊]하며 예절을 묻고 도를 논하며 일찍이 탄식하시길 “안자(顔子)와 민자건(閔子騫)의 덕행(德行)과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의 문장,<sup>63</sup> 도연명[陶潛]의 정절<sup>64</sup>을 오직 선생께서 겸하셨다”고 하였다. 정조조[正廟朝] 이재 황 선생(황운석)<sup>65</sup>이 찬양하여 말하기를, “선생께서 본디 가숙(家塾)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셨다.”고 하였으며, 후학들이 사표(師表)를 올려 또한 말하길,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기록할 만하다.”고 하였다.

63 공자가 덕행으로 손꼽은 제자가 안자(顔子)와 민자건(閔子騫)이고, 문학으로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이다. 『논어』 「선진편」 2장)

64 도연명은 송대 이후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충신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주희가 도연명의 인격을 유교적 인격을 가진 인물로 규범화하였고, 성리학을 국시로 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의 정절을 기린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 - 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35, 2013)

65 황운석(1729-1791) : 평해(平海) 황씨이고, 호가 이재(頤齋)이다. 1759년(영조 35)의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정릉참봉, 목천현감, 전의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실학에 감명 받아 이학(理學), 역사, 언어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였고, 호남의 3대 실학자로 평가받는다. 저서로 『이재유고(頤齋遺稿)』 등이 있다.

###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선생께서 날마다 유상대(流觴臺)에서 강론하였으니 유상대는 곧 선생께서 거주하신 곳과 매우 가깝고 제일가는 경치 좋은 곳이다. 하서 김 선생(김인후)<sup>66</sup>과 성재 김 선생(김약목)이 마음 맞기가 부절(符節)처럼 들어맞아<sup>67</sup> 창수(唱酬)<sup>68</sup>한 시편들이 자못 적지 않았으나 못한 먼 후손들이 잃어버려 다만 4~5수의 시가 남아 있었다. 대개 선생(정언충)의 생년월일시는 소요부(邵堯夫)<sup>69</sup>와 부합하고, 돌아가신 월일시(月日時) 또한 소요부와 일치 하니 이는 기이한 부분이다.

---

66 김인후(1510-1560) : 울산(蔚山) 김씨이고, 호가 하서(河西)이다. 그는 장성에서 태어나 순창 등에서 지내다 장성으로 돌아갔다. 1531년(중종 26)의 사마시, 1540년의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545년(인종 1)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김인후는 필암서원을 비롯한 여러 서원·사우와 문묘에 배향되었다.

67 부절(符節)처럼 들어맞다 : 부절은 대나무 등으로 만든 물건에 글자를 쓰고 그것을 두 조각으로 쪼개 한 조각은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조각을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서로 맞추어 증표로 삼던 물건이다. 즉,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 것을 의미한다.

68 창수(唱酬) : 시(詩)나 문장을 지어 화답(和答)하는 것이다.

69 소요부(邵堯夫) : 송대(宋代)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자(字)이다. 성리학의 이상주의 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數)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 한다. 유교의 경전이며 점치는 데에도 이용되는 『역경(易經)』을 공부하다가 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면앙(倅仰) 송 공(송순)<sup>70</sup>이 저술한 선생의 행장 말편(末篇)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1560년(명종 15) 여름에 김복억(金福億)<sup>71</sup>이 여러 번 상을 당하고 처사(處士) 이항(李恒)의 편지를 가지고 급히 나[純]에게 와서 울며 말하길, “제 어머니는 공과 친족이 되고 제 아버지는 일찍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친밀한지 오래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바야흐로 후세에도 밝게 깨우쳐 줄 사람으로 공이 아니면 안 되므로 감히 와서 묘지명에 새길 글[銘]을 청합니다. 나[純]는 글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며 사양했으나 되지 않았다.

묘지명[銘]에 “청렴하며 곧아 자기를 지킬만 하였고, 과단성이 있으면서 방정(方正)하여 일을 잘 다스렸다. 위대하구나! 이 사람은 학문에 연원이 있으니 백리의 작은 은혜가 공의 입장에서 어찌 높이리오. 품계가 겨우 3품이었고 6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하늘이 착하고 어진 사람에 대해 보답함에 어찌 흡족함이 있겠는가. 오직 뒷날에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을 이어받아 다시 천만년 뒤에 복이 있을 것이니 단지 멀다 하겠는가. 시산(詩山)의 별과 수천(水川)의 골짜기가 영영 아득하게 이곳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

70 송순(1493-1582) : 신평(新平) 송씨이고, 호가 면앙정(倅仰亭)이다. 1519년(중종 14)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세자시강원설서, 사간원정언, 경상도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담양에 면앙정을 짓고 박순, 소세양, 고경명, 김인후, 송세립 등과 교유하였고, 여기에서 많은 시를 지었다. 벼슬에서 물러나 강화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예찬한 작품을 지어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조선 시가문학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저서로 『면앙집(倅仰集)』이 있고, 담양 구산사(龜山祠)에 배향되었다.

71 김복억(1524-1600) : 도강(道康) 김씨이고, 호가 울정(栗亭)이다. 그는 김약목의 아들로 태인현 고현내 출신이다. 1573년(선조 6)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회덕현감, 창평현령, 김제군수 등을 지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 두고, 김후진(金後進)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후에 홍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항의 문인으로 정철, 기대승 등과 교유하였으며 1927년에 남고서원에 배향되었다.

##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행적보유(行蹟補遺)

선생은 4세 문헌가(文獻家)<sup>72</sup>에서 태어났다. 호가 한정(閒亭)으로 휘는 약晦(若晦)다. 퇴계(退溪) 이황 및 하서(河西) 김인후와 교유(從遊)하였다.<sup>73</sup> 시암(詩巖)의 휘는 원(元)으로 문학과 행실이 부친의 장점을 이어받았다. 월봉(月峰)의 휘는 대립(大立)으로 일재(一齋) 이항의 문인이고, 1592년(선조 25)에 창의(倡義)하니 이들이 선생의 아버지와 조부, 증조이다.

어려서는 총명하고 자라서는 학문에 뜻을 두어 충담(冲澹)<sup>74</sup>하고 정수(精粹)<sup>75</sup>하여 순일(純一)해 잡된 것이 없었다. 경학(經學)이 나이 들수록 더욱 독실해지고 자신의 몸가짐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았다. 남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에도 충신(忠信)을 근본으로 삼아 선현(先賢)을 추모하고 후생(後生)을 권장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려 한성에 들어왔다. 이이첨(李爾瞻)은 본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공에게 명성이 있자 두 세번 초청하였으나 공이 끝내 피하며 만나지 않았다.

기암(崎庵) 정 선생(정홍명)<sup>76</sup>은 일찍이 교유한 사람인데, 도와 의를 즐거워하였다. 백석(白石) 유 선생(유즙)<sup>77</sup>과 봉곡(鳳谷) 김 선생(김동준)<sup>78</sup>은 막역한 사이로 두 분은 일찍이 찬탄하길, “기쁨과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봄바람 같은 기상은 우리들이 미칠

72 문헌가(文獻家) : 전적이 많고 대대로 학문이 있는 집을 의미한다.

73 뒷부분의 영천(靈川) 신 선생과 교유하던 인물(從遊)에도 이들의 이름이 보인다.

74 충담(冲澹) ; 성격이 조촐하고 깨끗함이다.

75 정수(精粹) : 아주 깨끗하고 순수함이다.

76 정홍명(1582-1650) : 연일(延日) 정씨이고, 호가 기암(崎庵)이다.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 이조정랑, 사헌부집의, 김제군수,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8)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소모사(召募使)로 활약하였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아들로, 김장생의 학통을 받아 예학에 밝았고, 제자백가서와 고문(古文)에 밝았다고 한다. 저서로 『기옹집(崎翁集)』 등이 있다.

77 유즙(1585-1651) : 문화(文化) 유씨이고, 호가 백석(白石)이다. 1616년(광해군 8)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오수찰방, 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 김장생의 휘하에서 의병 모집 등에 활약하였다. 저서로는 『백석유고』가 있고, 김제 백석서원(白石書院)에 배향되었다.

78 김동준(1573-1661) : 광산(光山) 김씨이고, 호가 봉곡(鳳谷)이다. 1617년(광해군 9)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의금부도사, 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8)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장생의 문인으로 광해군대 인목대비 폐모사건이 있을 때 전주에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찬성하는 상소문을 올리려 하자 반대하였다고 한다. 사후 전주의 석계사(石溪祠)와 인봉사(麟峯祠)에 배향되었다.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우산(牛山) 안 선생(안방준)<sup>79</sup>은 이전에 말하길 “내 소싯적에 공과 함께 공부하여 익히 그 사람됨을 아니 진실되고 망령됨이 없었다. 순수한 학문은 진실로 당대 인물 중에 대인군자(大人君子)가 아니라면 매번 벼들이 스승으로 삼으며 예우했겠는가?”라고 하였다. 미호(溪湖) 김 선생(김원행)<sup>80</sup>이 찬하기를 “사세 문헌이 성대하니 호남에서 빼어나신 분이네.”라고 하였고, 두호(杜湖) 조 선생(조정)<sup>81</sup> 선생은 찬하기를 “명천의 학문은 대대로 그 미덕을 계승하여 크게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이고, 향당에서도 공경한다. 그가 남긴 시편에서 성정(性情)을 얻으니 음율이 깨끗하여 사람들에게 낭송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이제 황 선생(황윤석)께서는 “학문이 넓고 행실이 갖추져 더욱 드러나니 유풍(遺風)을 공경하여 흥기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생께서 송정계회도(松亭契會圖)의 시에서 ‘8월 높은 정자에서 가을바람 완상하니 10편 시에서 봉우 간의 기개가 같네. 비로소 옛 적 유람을 보니 참으로 멋지거니와 당대 사람들 그림 속에 있네.’라고 제(題)하셨다. 상서(尙書) 김응균(金應均)<sup>82</sup>이 찬하길 “고금을 거슬러 이 송정(松亭)은 어진이들의 모임[賢契]이자 그림이네. 오호라, 십현(十賢) 이전에 십현이 있지 않았고 십현 이후에도 십현이 없으니, 십현의 후손은 그 수가 몇 명인가. 이와 같이 선인을 사모하니 오래도록 후대에 모범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79 안방준(1573-1654) : 죽산(竹山) 안씨이고, 호가 우산(牛山)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정철과 조헌 등과 교유하였다. 임진왜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때에도 의병을 일으켰다. 송준길 등과 친교가 있는 서인으로 분류되고,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조선에 거둬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보성의 대계서원(大溪書院), 동북의 도원서원(道原書院), 능주의 도산사(道山祠)에 배향되었다.

80 김원행(1702-1772) : 안동(安東) 김씨이고, 호가 미호(溪湖)이다.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사화 때 조부 김창집(金昌集)이 노론 4대신으로 사사(賜死)되고, 아버지와 형들이 유배되어 사사되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후 학행으로 여러 차례 천거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산림의 지위에 있으며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일부 실학자도 있었는데 홍대용(洪大容)과 황윤석(黃胤錫) 등이 대표적이다.

81 조정(1719-1775) : 풍양(豐壤) 조씨이고, 호가 두호(杜湖)이다. 1767년(영조 43) 생원시, 이듬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지, 의주부윤, 대사성, 수원부사,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무마의 재배를 실현한 조엄(趙曠)은 그의 형이다.

82 김응균(1801-미상) : 안동(安東) 김씨이고, 호가 상서(尙書)이다. 1834년(순조 34)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정원주서, 성균관대사성, 예조판서, 의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피향정 현판운(披香亭懸板韻)<sup>83</sup> 이 정자는 최 선생(최치원)께서 창건하셨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현판시

할계(割雞)<sup>84</sup>하던 당일에 맑은 덕행 전파했기에  
가시나무에 난(鸞)새<sup>85</sup>가 앉았다 하였네  
천 년 전에 시 읊던 혼을 어디에서 찾을까  
일만 송이 연꽃에 일만의 고운이로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sup>86</sup>



정읍 피향정 (제공: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 83 차운(次韻) : 다른 사람이 지은 시에 운자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이다.
- 84 할계(割雞) : 우도할계(牛刀割雞)의 준말로, 큰 재능이 아주 작은 데에 쓰임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과거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장차 평소의 포부를 펴 보려고 하였지만 크게 쓰이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서 태산 태수(泰山太守)로 부임한 일을 가리킨다.
- 85 난(鸞)새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닭과 비슷하지만 깃은 붉은 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다고 한다.(문화콘텐츠 용어사전)
- 86 김종직(1431-1492) : 선산(善山) 김씨이고, 호가 점필재(佔畢齋)이다. 1453년(단종 1) 진사시,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정몽주-길재로 이어지는 성리학을 계승하였고, 훗날 사림파의 거두가 되었다. 김종직은 1487년(성종 18) 5월부터 1488년 5월까지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때 피향정 현판에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후인 1498년에 무오사화(戊午士禍)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현판시**

원량(元亮 ; 신잠)이 새로 땅에 묻혔고  
고운(孤雲 ; 최치원)은 옛날에 하늘로 올랐다  
쓸쓸하게 연꽃만 남아 있어  
흰 이슬은 가을 연꽃에 떨어진다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sup>87</sup>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현판시**

시든 잎 떨어진 가지, 흰 이슬이 소식 전하는데  
못 가 정자 붉은 기둥엔 지는 해가 조문하네  
언덕 위 푸르른 대나무는 사랑스러우니  
홀로 녹음(綠陰)을 띠고 세한(歲寒)에 이르르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sup>88</sup>

**기암(畸菴) 정홍명(鄭弘溟) 현판시**

지친 객이 남쪽 지방에서 노니니  
(그 때는 바로) 서늘한 가을 팔월  
무심히 길을 가다가

---

87 임억령(1496-1568) : 선산(善山) 임씨이고, 호가 석천(石川)이다. 그는 박상(朴祥)의 문인으로 사장(詞章)과 시문(詩文)에 탁월하다고 한다. 전라남도 동북(현 화순)의 도원서원(道源書院), 해남의 석천사(石川祠)에 제향되었다.

88 김상헌(1570-1652) : 안동(安東) 김씨이고, 호가 청음(淸陰)이다. 각종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1613년(광해군 5년)에 칠서지옥(七庶之獄)이 발생하자 복인의 박해를 피해 안동으로 이사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지도자가 되었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청과 강화를 반대하였으나 인조가 항복하자 은퇴하자 안동으로 물러났다. 1639년에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출병을 요구했을 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에 압송되었다.

앓아 맑은 못의 연꽃을 즐기네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sup>89</sup>

### 임선(林愼) 현관시

어두운 빛이 가을비에 일어나고  
찬 향기는 철 늦은 연꽃에서 떨어지네  
긴 방죽 가엔 많은 집들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버들 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네

임선(林愼)<sup>90</sup>

###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현관시

가을 연못에 흰 서리 몇 번이나 내렸던가  
선조의 시<sup>91</sup> 울며 읽다 홀로 난간에 기대자  
78년 세월<sup>92</sup>에 많은 감회 일어나니  
시든 연잎 예전 같아도 빛소리는 차갑구려

원량과 고운이 모두 앞뒤로 나오니

---

89 정홍명(1582-1650) : 연일(延日)이고, 호가 기암(畸庵)이다. 아버지는 서인의 영수였던 송강(松江) 정철(鄭澈)이다. '이괄의 난' 때 인조를 모시고 공주까지 몽진을 갔다 돌아와 삼사와 이조정랑을 거치며 승승장구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총명하여 제자백가서에 정통하고, 고문에 밝았다고 한다. 김장생의 영향으로 경전과 예학에도 밝았다고 한다.

90 임선(1552-미상) : 나주(羅州) 임씨이고, 자는 자관(子寬)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나주 사람으로 이순신 등과 교유하였다고 한다.

91 원문의 '사룡(紗籠)'은 비단으로 소중하게 써서 간직하는 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 김상헌의 작품을 가리킨다.

92 할아버지인 김상헌(金尙憲)이 이곳에 와 시를 읊은 지 78년이 되었다는 뜻이다. 『청음집(淸陰集)』 권2에 〈피향정에서 관상에 있는 시에 차운하다(披香亭次板韻)〉라는 시가 전한다.



시산은 예로부터 명현으로 이름났지  
가을 연꽃 흰 이슬을 그대로인데  
누가 멋진 시구로 석천(石川)<sup>93</sup>의 뒤를 이을까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sup>94</sup>

### 이민서(李敏敘) 현관시

이십 년 전 이곳 지났었지  
물가 정자에는 가랑비 내리고 가을바람 불어온다  
가득한 연잎은 모두 옛날 그대로인데  
그때의 만 송이 붉은 연꽃 보이지 않네

이민서(李敏敘)<sup>95</sup>

### 유태명(柳泰明) 현관시

이곳을 지나갔던 현도관(玄都觀)의 옛 객  
십 년만에 돌아와도 다시 꽃 구경하네<sup>96</sup>

93 석천(石川)은 임억령(林億齡)의 호이다. 임억령이 태인 피향정(披香亭)을 지나다가 시를 쓴 것이 남아 있다.

94 김수항(1629-1689) : 안동(安東) 김씨이고, 호가 문곡(文谷)이다. 1646년(인조 24) 진사시, 1651년(효종 2)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다. 전적, 이조정랑, 예조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할아버지는 김상헌이고, 아버지는 김광찬이다. 아들은 창집, 창협, 창흙 등 노론의 영수이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駢儷文)은 당대 일인자로 알려졌다. 전주의 호산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95 이민서(1633-1688) : 전주(全州) 이씨이고, 호가 서하(西河)이다. 1650년(효종 1) 진사시, 1652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 호조, 이조의 관서를 차례로 역임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올랐다. 김수항(金壽恒)-남구만(南九萬) 등과 깊이 교유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많은 시문을 남겼다. 위 시는 그가 나주목사로 재직하던 1667년부터 1668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李敬輿)이고, 송시열을 가르쳤다.

96 현도관(玄都觀) : 당(唐)나라 장안에 있던 절의 이름이다. 유우석(劉禹錫)이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郎)을 지내다가 낭주사마(郎州司馬)로 좌천된 뒤 10년 만에 다시 조정에 들어올 때, 현도관의 복사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지난 일을 회상하며 감상에 젖었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다.

호남 밖에서도 이름난 정자를 절승(絶勝)으로 칭해지니  
 아름다운 절기는 청명하고 따뜻한 시절이네  
 이슬 가득한 붉은 꽃은 그윽한 향기 스미며  
 푸른 잎은 산들바람에 상쾌한 기운 가득하다  
 우리 선조가 남기신 제(題)에 몹시도 감회가 일어나니  
 남기신 옛 물건 얼마나 유지되랴

유태명(柳泰明)<sup>97</sup>

### 유복명(柳復明) 현판시

비가 막 지나가자 봄 연못엔 푸른 물결 넘치고  
 수면 위 작은 연잎은 꽃이 핀 것보다 낮네  
 난간 밖 물고기 날이 개어 따뜻한 날 뛰어오르고  
 처마 끝 제비가 봄바람 화창하다 지저귀네  
 백년의 발자취 호산(湖山) 멀리 남아 있는데  
 삼월 좋은 때라 경물(景物)이 다채롭네  
 사롱(紗籠)<sup>98</sup>을 보니 눈에 비치는 듯하니  
 남쪽 지방 밝은 정자 배나 빛이 나네

97 유태명(1666-미상) : 전주(全州) 유씨이고, 자는 도휘(道輝)이다. 1694년(숙종 20)의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집의, 승지, 안변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10년(숙종 36) 12월에 담양부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1월에 부임지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1711년에 그가 부임하는 길에 피향정에 들렀다가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98 사롱(紗籠) : 현판(懸板)에 먼지가 앉지 못하도록 덮어 씌우는 사포(絲布)이다. 주로 시나 문장을 새긴 현판을 높이는 의미로 쓰인다.

유복명(柳復明)<sup>99</sup>

### 유유(柳逾) 현판시

옛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곳을 지나실 적  
30년 전에 모시고 꽃구경 하였다네  
벽 위 사롱(紗籠)은 세고(世稿)로 완성되고  
숲 속에서 맛 좋은 술로 원기를 길러냈네  
색동옷 입고 춤을 추던[斑衣]<sup>100</sup> 지난날 더없이 즐거웠는데  
지금 수령[墨綬]되어 오니 감격의 눈물 많네  
난간 밖 경치는 전과 다름이 없으니  
연꽃은 옛 그대로 화려하도다

유유(柳逾)<sup>101</sup>

### 이성조(李聖肇) 현판시

저편 푸른 산만이 홀로 완연(完然)하니  
천 년전 두 신선을 슬피 바라보네  
교화가 백리(百里)에서도 행해져 유풍(儒風)이 일어나니<sup>102</sup>  
학문은 중국[中州]에서부터 맑은 울림이 전하네

---

99 유복명(1685-1760) : 전주(全州) 유씨이고, 호가 만촌(晩村)이다. 1711년(숙종 37) 생원시, 171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 지평, 도승지, 대사간 등을 지내고 1734년(영조 10) 7월부터 1735년 3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다. 앞의 시를 지은 유태명의 동생이다.

100 반의(斑衣) : 춘추(春秋)시대 초(楚)나라의 노래자(老萊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입었다는 색동옷이다. 노친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를 비유하는 의미이다.

101 『무성서원원지』와 피향정의 현판에는 유유(柳逾)라고 기재되었지만,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재된 이름은 유유(柳愈)이다. 유유(1685-1760)는 전주(全州) 유씨이다. 1725(영조 1)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병조정랑, 경산현감, 오위장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43년(영조 19) 3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현판에 기재된 갑자년은 1744년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은 1744년 6월 하순이다.

102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재직할 때의 교화를 의미한다.

무너진 완학정(鴈鶴亭)의 옛 터만 남아 있고  
황폐해진 유상대(流觴臺)는 앞 시내를 통해 찾을 수 있네  
뒤에 올 문인[墨客]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다시 누가 옛 현인을 계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랴

이성조(李聖肇)<sup>103</sup>

---

103 이성조(1663-1740) : 전의(全義) 이씨이고, 호는 정묵재(鄭默齋)이다. 1690년(숙종 16) 진사시, 1693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 병조참의, 광주부윤(廣州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 원우 중수 상량문(院宇重修上樑文)

다음과 같이 서술하노라. 성(城)이 비록 무(武)자 명칭을 써도 문치(文治)가 발흥한 곳이고, 지역은 사람의 명성에 화액(華額)이 거둬 맞나는구나.

뜻은 대장괘(大壯卦)<sup>104</sup>를 가져왔고, 도모는 동인괘(同人卦)에 부합하네.

이 현에 사당(祠堂) 세울 방도 생각하니, 곧 칠현(七賢)의 영령을 모실 곳이로다.

문장은 규벽(奎壁)<sup>105</sup>의 광채처럼 빛나고, 명망은 제향을 올리는 존귀함 누리네.

읍의 수령인 두 선생과 고을의 현인 다섯 군자여!

순수한 학문은 당대의 연원(淵源)을 서로 이어가고, 거문고 타며 시 읊조리는 풍류 이 날의 음운(音韻)을 남겨 놓았네.

이에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고, 다시금 불만한 명승지가 되었네.

여러 구비의 유상곡수대(流觴曲水臺) 아직 남아있어 아름답게 속세 밖 멀리를 생각할 수 있고, 만 그루의 연꽃 서로 비추어 의연하게 그림 속에서 정신을 전해 받는 듯하네.

월연대(月延臺) 주변은 사조(詞藻)의 노래 소리 울려 퍼지고, 차아봉(嵯峨峯) 아래는 장구(杖屨)가 노닐던 곳 닮았네.

인간 세상 요로(要路)와 통진(通津)은 과연 어느 곳이던가? 세속 밖의 청산(靑山)과 녹수(綠水)는 정말로 명승지이리라.

얼마나 흥망이 거둬하였는데도, 오랫동안 수선할 겨를이 없었네.

담장과 벽에 물새는 환란은 유림들의 근심일 뿐 아니고, 정무(庭廡)가 황폐해짐에 길 이 자주 막히는 탄식이 나네.

다행히 부사가 새로 부임함에 사우(祠宇)의 중수를 먼저 의논하였네.

104 대장괘(大壯卦) : 『주역』의 64괘 중 34번째 괘명이다. 『주역』에서 대(大)는 양(陽)을 의미하고 장(壯)은 왕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장은 양이 왕성함을 상징하는 괘이다.

105 규벽(奎壁) : 규수(奎宿)와 벽수(壁宿)의 병칭으로, 예전에 문장을 주관하는 별을 상징하였다.

촉군(蜀郡)의 유화(儒化)<sup>106</sup>가 다시 밝아진다면 어찌 늦었다고 하겠는가? 노읍(魯邑)의 현가(絃歌) 성대하게 울리면 비로소 경영할 수 있으리라.

이에 원근(遠近)이 다 같이 주장하고, 대소인이 힘을 합치도다.

흙과 돌을 쌓음은 규모(規模)에서 이름난 터전(名基, 무성서원)에 전을 올리기 위함이고, 배산임수로 정함은 표준(圭臬)에서 방향을 정하기 위함이라.

공수(工僮)<sup>107</sup>의 재주와 노반(魯般)<sup>108</sup>의 기예처럼 아전들이 마음을 다해 분주하고, 신보산(新甫山)의 잣나무와 조래산(徂徠山)의 소나무<sup>109</sup>에 선비들이 마음을 다해 닦는구나.

오직 이가 인심(人心)이 같이 여기는 바이고, 신물(神物)의 보살핌이 있는 곳이라.

옛 것을 모아 새것으로 바꾸니 원근(遠近)에서 보고 들음을 흥기시키고, 당(堂)에 올라 방 들어가니 오르내리는 신령(神靈)을 거의 보겠구나.

인재들 교화됨이 멀리까지 퍼지니 칭송이 이미 좌해(左海)에 가득하고, 변두(邊豆)의 예를 이에 가지런히 하니 가르침이 실로 숭문(崇文)에서 빛나도다.

이에 축하객들의 무성한 축하를 본받아, 무지개 들보(虹梁) 올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노라.

여보게들(兒郎偉)<sup>110</sup>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세나

명천(鳴川)<sup>111</sup>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

106 촉군(蜀郡)에서 유가의 교화 :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 문옹(文翁)은 촉(蜀)의 군수가 되어 성도(成都)의 시장 가운데에 학관(學官)을 설치하였다. 이때 입학자는 요역을 면제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군현의 관리로 삼자 촉군(蜀郡)에 문풍이 크게 떨쳐지고 교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한다.

107 공수(工僮) : 순(舜)임금 때의 뛰어난 목수였다.

108 노반(魯般) : 노(魯) 나라의 유명한 기계 기술자인 공수반(公輸般)을 가리킨다. 초(楚) 나라가 송(宋) 나라를 공격할 때 사용한 운계(雲梯; 구름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그는 직인(職人)의 수호신으로 추앙받는다.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09 조래산(徂徠山) : 중국 산둥성(山東省) 태안현(泰安縣) 동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통상 동량(棟梁)이 될 재목이 자라는 큰 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10 아랑위(兒郎偉) : 젊은 사람을 뜻하는 아랑(兒郎)의 복수형으로, 상량문에서 도목수(都木手)가 장인(匠人)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111 명천(鳴川) :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명천 마을 일대로 보인다. 실제 무성서원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고현내에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었다.(제6, 전라도 태인) 이후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명천리 등이 통합되어 와우리가 되었고 칠보면에 편입되었다.



도의 근원은 쉽이 없어 구덩이를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sup>112</sup>  
밤낮으로 끊임없이 깊고 푸른 바다로 흘러 드네

여보게들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세나  
가야산(伽倻山)의 색은 진한 푸른빛(藍)보다 푸르네  
하늘이 흐르는 물로 산을 에워쌌다는<sup>113</sup>  
시구에서 신선의 조화를 찾아보네

여보게들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세나  
칠보(七寶) 봉우리 아래 달이 반쯤 기울었네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지만  
봄을 찾는 어부가 길을 어찌 헛갈릴까<sup>114</sup>

여보게들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세나  
가지런한 문, 평평한 뜰이 있네  
금석(金石; 남기신 글)은 걸려 있는 해와 달과 같이 장구하리니  
어찌 후학들이 혼미하게 될 수 있으랴

---

112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 『맹자』에 나오는 글귀이다. 『맹자』 「이루 하(離婁下)」 즉, 물의 흐름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먼저 그곳을 가득 채운 뒤에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학문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113 하늘이 흐르는 물로 산을 에워쌌다 : 이 문장은 최치원이 지은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의 '짐짓 흐르는 물을 시켜 온 산을 둘러싸네(故教流水籠山)'에 나오는 구절이다. 『동문선』 권19,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114 이 내용은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진(晉) 나라의 어느 어부가 계곡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다가 복숭아꽃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곳의 산에 있는 작은 동굴로 들어가자 별천지가 나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부에게 절대 밖에 나가서 이곳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그곳에서 나온 어부가 다시 그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속세와 떨어져 있는 별천지라는 의미로 무릉도원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보게들 들보 위에 떡을 던지세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네  
 뛰어난 젊은이 금의환향하여<sup>115</sup>  
 지금까지 중국에서 명성이 화려하네

여보게들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세나  
 도통(道統)이 이어져 대아(大雅 ; 현인)가 배출되었네<sup>116</sup>  
 전후의 현인들 그 도는 다르지 않았으니  
 오직 충과 효 같은 인륜이 큰 도리이리라

삼가 바라옵건대 대들보를 올린 뒤에 편액을 걸면 재주 있는 선비들이 흥기하여 유상(遺像)이 맑아지리니 온전히 와룡암(臥龍庵)<sup>117</sup>의 모습을 맞추고 사잠(四箴)<sup>118</sup>에 근면하며 아무쪼록 백록동(白鹿洞) 옛 규범을 준수하라.

---

115 『고운집』의 「가승(家乘)」에 “무협 중봉의 해에 무명옷 입고 중화에 들어갔다가, 은하 열수의 해에 비단옷 입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巫峽重峯之歲 絲入中原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土)”라는 구절이 있다. 무협 중봉의 해는 무협이 12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2세를 뜻하고, 은하 열수의 해는 열수가 28수(宿)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28세를 뜻한다. 즉, 최치원이 12세에 당으로 유학을 가고, 28세에 귀국한 것을 의미한다.

116 이 구절은 최치원의 학문을 계승하여 지역에서 우수한 현인들이 배출 된 것을 의미한다.

117 와룡암(臥龍庵) : 주희(朱熹)가 55세 때인 1184년에 여산(廬山)의 오란봉(五亂峯) 아래에서 그곳의 본래 지명인 와룡(臥龍)에서 무후사(武侯祠)를 지어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을 향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18 사잠(四箴) : 송(宋)나라 때 정이(程頤)가 지은 시잠(視箴)·청잠(聽箴)·언잠(言箴)·동잠(動箴)을 통칭한다.

## 강당 중창기(講堂重創記)

성인을 지키고 현인을 존중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인데, 원우(院宇) 제도는 교궁(校宮)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다. 서원이 건립된 초기에 중문 밖에 강당을 설치하여 여러 유생이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강당[堂]은 서원이 모양을 갖추는데 본보기[矜式]가 되므로 어찌 중요하고 대단하지 않겠는가? 이 서원은 곧 최 문창[최치원]·신 영천[신집] 두 선생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으로 지역에서 이름난 다섯 현인도 배향되었다. 그리고 옛 고을의 명칭을 따라서 태산사우(泰山祠宇)로 불리었다. 숙종 1696년(숙종 22)에 무성서원으로 사액 받았으니 대개 자유(子游)가 ‘현가(絃歌)’를 타면서 무성(武城) 고을을 다스렸다는 고사에서 취한 것이다.

우리 5대조 허곡(虛谷)공<sup>119</sup>이 강당은 중창하였고 그 후 60여 년 만에 족숙(族叔) 치영(致榮)이 이어 중수하였으므로 허곡 공의 이름[名帖]이 아직도 대들보[上樑]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상량문을 지어 추모하는 마음을 부쳤다. 그런데 초고[本草]가 유실되고 전해지지 않아 유고(遺稿)를 찬정(撰正)할 무렵에는 순서대로 편집할 수 없었다. 불행히도 1825년(순조 25) 4월에는 화재가 나서 상량문도 따라서 재가 되었다. 아! 애석하구나. 선인(先人)의 손 때 묻은 책을 다시는 상고할 수 없고, 존경할만한 흔적이 파괴해진지 오래되었으므로, 제사 지내는 곳도 다만 예의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함께 탄식하고 아까워하는 장소가 되었다.

내가 마땅히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처리해야 했으나 자질이 졸렬하고 재주가 어리석고 둔해 그 계획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놀암 송 선생의 후손 치덕(致德)이 흔쾌히 힘써 약간의 재물을 한데 모으니 다섯 현인의 본손(本孫)들도 힘을 다해 넉넉하지 못해도 의연금을 마련하고 서원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도 해마다 추가하여 겨우 3년만에야 강당의 중창을 마야흐로 긴급히 처리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와 같이 힘써 수고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불우헌 정 선생의 후손 문덕(文德)과 목재 정 선생

119 김행건(1605-1682) : 도강(道康) 김씨이고, 자가 이강(以強), 호는 허곡(虛谷)이다. 무성서원에 배향된 김관의 아들이다.

의 후손 재혁(載赫)에게 부탁하여 일이 시행될 수 있었다. 또한 다행히도 현감 서호순이 현인을 숭상하고 선비를 예우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사를 감독하니 5~6개월 만에 공사가 완성되었다.

아! 사람이 때와 만나고 일이 뜻과 이루어졌으니 어찌 흥망이 덧없지 않겠으나 공로와 사업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일의) 전말을 기록하여 강당의 벽에 걸어 후손에게 보이기를 청하니 내가 감히 글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중창기를 짓게 되었다.

1828년(순조 28) 6월 일 유사(有司) 명천(鳴川) 김 선생의 6대손 김민(金玟) 삼가 짓다.

## 현우 중수기(賢宇重修記)

서원과 사우의 융성과 쇄망은 대개 수령이 선현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서원이 월연대[臺] 근처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1483년(성종14)이다. 그로부터 190여 년이 흘러 그동안 수령을 지낸 사람도 여럿이었고 얼마쯤 지나 선현을 모신 건물의 기와와 서까래가 무너지고 부러졌으며, 창과 벽은 닳아서 더러워졌다. 주춧돌은 기울고 마룻대는 썩었으며 벽돌 자리는 망가져 축축하고 궁벽했다. 강당은 불이 나는 재앙으로 유생들이 재계하며 머무를 곳이 없었다. 온 고을에서 애달프고 안타깝게 여기니 참으로 어찌했겠는가. 그러나 우리 유학은 오고가는 운이 있고 훌륭한 의전이 끝내 막히게 될 이치는 없을 것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현감 서호순(徐灝淳)이 이 고을에 부임하여 정사를 보는 여가에 이 서원을 우러러 배알하고 개연히 탄식하며 말하길 “이 서원이 얼마나 존경받는 곳인데, 이와 같이 쇠잔하고 피폐하단 말인가? 한갓 사림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현감에게 책임이 없겠는가?” 라고 하셨다.

이에 놀암(訥庵) 송 선생(송세립)의 후손 치덕(致德)과 모의하여 일을 시작하여 여러가지로 주선하였다. 먼저 강당을 세우고 이듬해에는 친히 오셔서 둘러보며 말씀하시길 “선현을 모신 건물의 중수는 본래 순서가 있다. (강당을 세운) 큰 일을 마친 뒤에 서원의 힘이 쇠약하니, 경비를 마련할 방법을 우선 나부터 시작하겠다.” 하시고는 이에 녹봉을 털어서 시작하였다. 온 고을 사람들을 불러 타일러서 약간의 돈[儒錢]<sup>120</sup>을 마련하여 마침내 4~5개월이 지나 일을 마쳤다.

또 문창후 최 선생(최치원)의 영정이 오래되어 변하고 상하자 현감 서호순이 비용의 다소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시 그려서[改模] 서원의 모습이 아주 새로워져 다시 보이니 아름답고도 성대하도다! 우리 현감이 선현을 높이고 공경하며 사모하는 뜻의 전말을 대략 기록하여, 뒷날 현감으로서 이 서원을 찾아 이 영정 초상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서

---

120 유전(儒錢) : 조선시대에 지방의 유림들이 각출하여 향교 운영과 보수를 위해 모은 돈이다.

호순 현감의 공이 이와 같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아, 우리 5대조 허곡공(虛谷公)<sup>121</sup>이 창시하고 이건하셔서 그 사연을 적는다.

1832년(순조 32) 8월 일 유사(有司) 명천(鳴川) 김 선생(김관) 6대손 민(玟) 삼가 쓰다.

---

121 강당 중수기에 나왔던 김행건(1605-1682)이다.

## 계원필경 중간기(桂苑筆耕重刊記)

옛날에 우리 공자[夫子]께서 책을 벽(壁) 속에 보관하여 꿰어진 사문(斯文)이 계승되었고,<sup>122</sup> 하간왕(河間王)<sup>123</sup>이 전해 내려오지 않는 시[逸詩]를 얻어 시[風雅]가 다시 일어났다. 지금 『계원필경』이 거의 끊어졌으나 다시 세상에서 알려지니 어찌 우연일 뿐이겠는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이(旭夷 ; 동이족)에서 비롯되어 학문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문창(文昌) 최 선생(최치원)이 나온 뒤로부터 도가 돈독해지고 옛 것을 좋아하는 것이 중국보다 깊었다. 그렇다면 우리 동방의 문헌은 실로 선생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대개 선생(최치원)은 신라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천 여 년 전의 분으로, 그 문집이 흩어지고 사라져 거의 없는데 혹 『기아(箕雅)』<sup>124</sup>와 비명(碑銘)에 나온 것이 있으나 대부분 전질(全秩)도 아니었다. 오직 『계원필경』, 『중산복궐집(中山覆篋集)』 수 십 권만 있을 뿐이지만, 또한 얻어서 본 사람이 없다.

심능숙(沈能淑)<sup>125</sup>이 이 고을의 현감이 되어서 날마다 고적을 찾아다니며 권위 의식[崖岸 ; 오만하여 남과 어울리지 않음]도 차리지 않고, 시문을 짓고 술을 마시면서 정사를 보았지만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의 한 달 동안의 정사보다 나왔다. 일 년이 채 안 되어서 백성들은 현감의 교화에 복종하였다. (심능숙 현감은) 집무를 보는 여가에 이 서원에서 선생을 지알(祗謁 ; 공경히 알현함)하고 돌거북[石龜]과 유상대 사이를 둘러보았다. 이

122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나오는 기록으로, 한(漢) 무제(武帝) 말년에 노(魯) 공왕(恭王) 유여(劉餘)가 궁궐을 확장할 때 우연히 공자가 살던 옛 집의 벽에서 『고문상서(古文尙書)』와 『논어』, 『예기』, 『효경』 등 수십 편의 책을 얻었다고 한다.

123 하간왕(河間王) : 중국 전한(前漢)의 황족이자 제후왕이다. 그는 유교를 좋아하였고, 민간에서 좋은 책을 얻어 수많은 고서(古書)를 모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옛 책을 모으는 대표인물로 표현된다.

124 『기아(箕雅)』 : 1688년(숙종 14)에 남용익(南龍翼)이 편찬하고 간행한 시선(詩選)집이다. 기아는 조선의 바른 시가(詩歌)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신라 말의 최치원부터 조선 현종대의 김석주 등 497가(家)의 시를 뽑아서 모았다.

125 심능숙(1782-1840) : 청송(靑松) 심씨이고, 호는 소남(小楠)이다. 그는 1829년(순조 29) 음직(陰職)으로 관직에 오르고 감찰(監察)·판관(判官) 등을 거쳐 1832년(순조 32)부터 1835년(헌종 1)까지 태인현감을 역임하였다. 그는 관직 생활보다 시를 쓰고, 사상에 탐닉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근체시(近體詩)에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고, 수 년 간 경기도 양주에 은거하며 불교와 도선(道仙)을 참선하였다고 한다.



어서 서원의 유생[院儒]들을 만나보고 선생의 유적(遺蹟)을 찾고자 했으나 여러 유생들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현감이 말하길 “이 서원은 바로 선생이 주향(主享)으로 모셔진 곳이고 문집의 보장채[寶莊]인데 상고할 만한 작은 종이 조각 하나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지금 『계원필경』 1질이 좌의정[左揆]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sup>126</sup> 공(公)의 집에 있다. 신라 말에 처음 판각한 후 아무도 중간(重刊) 하지 않았으니, 다만 사사로이 한 집안의 보배가 되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이다. 어찌 장차 여러 유생들을 위해 영문(營門; 전라감영)을 매개하여 이 책의 중간을 도모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말을 들은 서원의 유생들이 기뻐하며 물러났다. 이에 심 현감이 영문에 가서 의논하였으니, 바로 전라감사는 서유구(徐有渠) 공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 의논해서 장인을 부르고 목판을 새긴 지 몇 개 월 만에 일을 마쳤으며, 이미 책(冊)을 상자에 담아 본원으로 내려 보냈다. 이제부터 그 존경하여 받드는 책임은 우리 사람의 성의가 어떠한 지에 달려있다. 이 서원은 창건된 지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책을 절대 얻을 수가 없고 겨우 전해지는 상황에서 얻게 되었으니 보관하여 값진 보배로 삼고 전하여 금석(金石)으로 삼는다면 이는 선생을 다시 일으키는 일대 큰 사업이다. 참으로 이른바 세 분[三侯; 홍석주, 서유구, 심능숙]이 시대를 함께 하니 천년에 한번 있을 기회인데, 드러남과 숨음에는 운수가 있어 고금에 더욱 개탄하는 소회를 갖게 되니, 아마도 오늘을 기다린 것인가? 원임(院任)은 공경히 이 책을 유념하여 사랑하는 현감의 뜻을 받드는 한편 어진 현감의 공적이 끊어져 전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나에게 그 일에 대한 기문(記文)을 요청하였다.

1834년(순조 34) 12월[臘月] 상순[上澣] 평양 박해언(朴海彦) 삼가 쓰다.

126 홍석주(1774-1842) : 풍산(豊山) 홍씨이고, 호는 연천(淵泉)이다. 그는 1795년(정조 19) 전강(殿講)에서 수석을 한 뒤로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관, 충청도 관찰사,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자사(子史)·육예백가(六藝百家)·경례(經禮) 등에 모두 능해 학문과 철학 등에서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중수기(重修記)

### 김병흠(金丙欽) 기문

학교 건물의 흥폐는 대개 인사의 득실에 연유하니 인사를 얻으면 학교가 흥하고 인사를 잃으면 학교가 쇠퇴한다. 본 서원은 화재가 있는 뒤로 강당과 선현의 사우를 중창하고 복원하였으니, 많은 선비들이 존경하며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우 10년쯤 지나 신문이 무너졌고 선현의 사우, 강당, 창고는 모두 침식되었으며 담장은 무너져 내렸다. 재임들의 옷은 찢어지고 술은 깨졌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도 참으로 이루 말할 것도 없어, 선현을 존경하는 생도들이 사모의 마음을 표현할 공간이 없게 되었다.

놀암 송 선생(송세림)의 후손 송언직이 개탄하고 탄식하며 나에게 묻고 의논하여 바야흐로 새롭게 할 것을 계획 하였는데, 불행히도 하늘이 그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 버렸다. 보잘 것 없고 우매한 나는 중수할 방법을 알지 못해 고을 유생들에게 널리 묻고 그 후손들과 협의하고 도모하여 얇은 계책이라도 다 펴서 작은 경비를 마련하여 우선 선현의 사우와 강당, 창고, 담장, 옷, 술 등을 수리하였다. 이어서 신문도 건설하고 그 밖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닦아 완성하니 서원의 모양이 빛을 발해서 대강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었다.

또 창고 건물의 행낭문을 만들고서야 끝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불우헌 정 선생(정극인)의 후손 정지효가 또 일을 시작할 것을 도모하여 목재 정 선생(정언충)의 방계 후손인 정천규를 별고 유사로 택하여, 정천규와 그 집안 아저씨 정치학이 일을 맡아서 하였다. 두 사람이 힘을 다하고 재물을 준비하여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는 모두 여러 유생들의 힘이니 나는 무엇을 관여한 게 있겠는가?

아! 옛적 1804년(순조4)에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서원의 일을 맡아 신문과 담장을 수리하여 세운지가 지금 40여 년이 되었고, 이제 내가 또 수리를 맡은 일은 우연이 아니니 지난 일에 대해 느낀 마음이 있어 이에 전말을 기록하여 후일의 군자를 기다리는 바이다.

1847년(헌종13) 7월 일

### 송지호(宋持灝) 기문

무성(武城)이라는 서원의 명칭은 읍호(邑號)에서 유래하였다. 옛날에 최 문창(文昌) 선생이 이 읍의 태수로 부임하여 교화는 현가(絃歌)를 숭상하고 다스림은 자유(子游)의 사례를 따르니 민간의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읍호는 아마도 이 때문에 붙여진 듯하다.<sup>127</sup>

선생(최치원)을 제사 지내는 곳이 '무성'으로 사액 받은 이후에 영천(靈川) 신 선생(申先生)이 뒤를 이려 배향되니, 문화가 부흥했다. 또 이 고장에 계시던 오현인 불우헌(不憂軒) 정 선생(丁先生)·눌암(訥庵) 송 선생(宋先生)·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같은 분들이 모두 호남의 명망 있는 현인으로 도덕과 신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서원에 함께 배향이 되셨다.

서원이 창설된 지 몇 백 년이 지나 무너질 때마다 즉시 항상 보수하지 못하다 보니 현우(賢宇)·강당(講堂)의 기와가 파열되어 물이 새고 고사(庫舍)의 담장과 흙이 젖어서 무너져버렸다. 원유(院儒)들이 새롭게 고칠 것을 모의하였으나 역사(役事)의 규모가 크고 재정이 바닥나 경영하고 계획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 태수가 두 선생의 가르침을 다스림으로 삼으니 예교(禮敎)가 크게 진작되고 유가의 교화가 성대하게 흥하였다. 부임하시는 첫날에는 먼저 이 서원을 찾아와 공경히 배알하였다.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의 외손인 원유(院儒) 김정훈(金廷勳)이 서원을 수호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서원의 수리에 관한 일을 아뢰니 (태수가) 개연(慨然)이 말씀하시길 “이는 참으로 내 역할이다.”라고 하시고는 마침내 경비를 마련하여 장인을 불러와 일을 감독하니 한 달이 못 돼서 공사가 끝났다. 서원의 모양이 이에 다시 새로워지니, 현인의 혼령이 편히 모셔지고 학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태인의 유생들이 모두 그 공로를 기리며 그 공을 태수에게로 돌리니 태수는 누구인가? 한산(韓山) 이승경(李承敬) 현감이다. 그 일을 기록하기 위해 문장을 지어줄 것을 나에게[持灝] 부탁하니, 나는 눌암(訥庵) 송 선생의 10세손이다.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삼가 기(記)를 쓴다.

1854년(철종 5) 10월 상한(上旬) 송지호(宋持灝) 삼가 쓰다.

---

127 읍호는 …(중략)… 듯하다 : 최치원의 정사는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태수가 되어 예악(禮樂)을 가르쳐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현악(絃樂)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정도로 훌륭한 교화가 이루어졌던 고사와 유사하므로 읍호가 무성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 송종수(宋鍾壽) 기문

대체로 주(州)에 서원이 있고, 나라에는 학관(學館)이 있어서 예의문장(禮儀文章)이 그를 통해 갖추졌다. 제사를 지내 선사(先師)를 높이고, 학문을 갈고 닦아 후학들이 본받게 하였다. 옛날 문창(文昌) 최 선생, 영천(靈川) 신 선생 및 향현(鄉賢) 불우현(不憂軒) 정 선생, 놀암(訥庵) 송 선생, 묵재(默齋) 정 선생, 성재(誠齋) 김 선생, 명천(鳴川) 김 선생이 도덕과 신의로 자유(子游)의 다스림을 본받았다. 그러므로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필시 ‘무성(武城)’이라 사액 받을만 하였으니 읍 또한 이를 이름 삼아 유풍(遺風)이 아직도 전해졌다.

윤자현(尹茲賢) 현감이 자주 옛 선생의 가르침을 다스림 삼아 문교(文教)를 숭상하고 학궁을 수리하였고 흥기하기를 기다리는 선비들이 흠모하며 정성스레 보호하였다. 이 때문에 이 서원이 비록 오래됐어도 늘 제 때에 새로워졌으니 대개 하늘이 사문(斯文)을 돕는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주역(周易)』에 이르길 “태괘(兌卦) 상에서 강습(講)하여 봉우 간에 서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으며, “비괘(否卦)는 태괘(泰卦)를 받으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런 이치다.<sup>128</sup>

화재가 난 뒤에 서유구 관찰사가 중창한 것과 지붕의 기와를 갈아 덮을 무렵에 이승경(李承敬)<sup>129</sup> 현감이 다시 새롭게 한 것 등 무너질 때마다 보수한 일에 대해서는 선공(先公)<sup>130</sup>께서 서술하여 이미 갖추졌으니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생략한다. 서유구 관찰사의 아들 상정(相鼎)이 1870년(고종 7)에 관찰사가 되어 호남을 순시(巡視)할 때 동향(桐

128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고 막힌 것을 비라고 한다.[天地不交 否]”라고 하였으니 비괘(否卦)는 난세를 의미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것을 태라고 한다.[天地交泰]”고 하였으니 태괘(泰卦)는 태평을 상징한다. 본래 <주역>의 순서는 이와 반대로 태괘 다음에 비괘를 받으므로 태평 다음에 난세가 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원지에서는 난세 다음에 태평이 오는 것으로 쓰였으니 막히고 난 다음에 다시 형통하게 된다는 이치다. 즉, 무성서원에 발생한 화재 등 서원의 쇠함을 비괘에 비유하고, 이후 관찰사 서유구와 현감 이승경이 서원을 중수한 것을 태괘에 비유한 것이다.

129 원문에 李侯(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1828년부터 이민대가 현감으로 재임한 1875년 사이에 이씨 성을 가진 현감은 이승경이 유일하다. 바로 위의 중수기에서도 이승경이 서원의 공역에 일조했음을 기린바 있다.

130 선공(先公) : 놀암의 10세손으로, 중수기를 작성한 송지호(宋持灝)를 가리킨다.

鄉)<sup>131</sup>의 옛 자취를 먼저 찾았다. 이 서원에 현가(絃歌)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학문을 흥기시킨 일은 비석이 증언해줄 수 있기에 마침내 비각(碑閣)을 세웠다. 또 녹(稟奉)을 덜어 온갖 노력을 하여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눌재공(訥齋公)의 방계 10대손 김정신(金廷信), 명천공(鳴川公)의 7대손 김성흠(金惺欽)·정신(廷信)·성흠(惺欽)에게 맡기니, 정성을 다해 관리하였다. 또한 성재공(誠齋公)의 10대손 김필흠(金必欽)이 본 서원의 재임(齋任)이 되어 별청(別廳)에 이바지하는 등, 노력을 쌓았다.

그 이후로 올해에 이르러 마침 비바람이 크게 쳐서 지붕의 기와는 이미 물이 새고 파열됐으며 현우 문은 이미 좀먹어 두루 부서졌다. 담장과 홍문(弘門)이 무너질 때에 이르러 현감 이민태(李敏泰)가 무성서원의 원장이 되었다. 이민태 현감이 개연(慨然)히 선현의 다스림에 뜻을 두고 만나서 이야기 하고 편지로 타일러 사람들이 감동하게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여 재상 서상정 관찰사가 내려 준 경비를 출연하여 한 귀퉁이라도 충당하게 하였다. 또 불우헌(不憂軒) 공의 14대손 문현(文鉉)은 조상을 위하는 정성스런 마음이 보통 유생들이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간절하여 있는 힘을 다해 재물을 거두어 모아 장인에게 일을 맡기고 역사를 감독하였다. 서원의 모양이 아주 새로워져 다시 보이니, 아아, 아름답고도 성대하도다!

학문하는 원기는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현인을 현인으로 대하는 도는 곳곳에서 봉행되고 있다. 한갓 고을 현감들만이 존경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찰사도 찬양하는 바가 있었으며, 비단 유생들이 존경하여 본보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도 똑같이 길이 사모하였던 것이 이와 같았다. 재주 없는 내가 또한 서원에 배향된 분의 본손(本孫)으로써 여기에 감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삼가 선대의 유업(遺業)이 잊혀지지 않고 후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줄렬함을 잊고 거칠게 엮어 전말을 이와 같이 갖추 뿐이다.

1875년(고종 12) 10월 일 눌암(訥庵) 12대손 송종수(宋鍾壽) 삼가 쓰다.

131 동향(桐鄉) : 중국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에 있는 지명인데, 수령으로 어진 정사를 베풀었던 연고가 있는 고을을 뜻한다. 한(漢)나라 때 주읍(朱邑)이 동향(桐鄉)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고, 죽어서도 유언으로 동향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를 존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서 세시(歲時)로 제사를 지냈다는 고사가 있다. 『한서(漢書)』 권89 「순리전(循吏傳) 주읍(朱邑)」 관찰사 서상정이 자신의 아버지 서유구가 다스리던 고을을 찾은 것을 가리킨다.

### 송정순(宋程淳) 기문

옛날에 어떤 읍이 무성(武城)이라고 불리었는데 곧 자유가 다스린 지역이다. 지금 어떤 서원이 있으며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므로 그 자취 때문에 무성이라고 불리운다. 1696년(숙종 22)에 특별히 사액을 입었으니 얼마나 맑고 정제(淸肅)되었으며 얼마나 우러러 존경하는가? 문창(文昌) 최 선생과 영천(靈川) 신 선생은 도덕으로 서로 믿으셨고, 불우현(不憂軒) 정 선생, 놀암 송 선생, 묵재 정 선생, 성재 김 선생, 명천 김 선생이 덕과 신실함을 계승하니 일곱 현인이 무성서원에 배향되었다. 창건된 몇 백 여 년이고 중수를 몇 번쯤 하여 무너진 곳마다 보수해서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였다.

아아 슬프도다. 1876년(고종 13)에 큰 흉년이 든 뒤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에 분향(焚香), 봄·가을의 향사(享祀)를 삼가 받들어 행하고 수리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겨를이 없었다. 현우(賢宇)는 기와가 무너져서 물이 새고 자리는 해져 닳고 젖었으며 강수청(講修廳)은 동재와 서재의 사방에 하나의 벽도 없어서 비 바람을 피하기 어려웠으니 어찌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겠는가? 담과 고사(庫舍), 신문(神門)은 만에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없어 고쳐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내가 민첩하지 못하나 장차 어떠하겠는가. 향원(鄉員)과 도의 유생들에게 두루 알리고 사림이 사무를 맡는 중에 이미 공론(公爛)이 하나로 귀의되어 진신(縉紳)을 임명하고, 또한, 힘을 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였다. 일을 해낼 방법을 주선하고, 재물을 한데 모아 기워 새롭게 하니 새로워진 현우의 자리는 칩 대신에 대나무로 하고 동재와 서재는 예전 것을 계승하고<sup>132</sup> 옛 건물(肯堂)을 그대로 계승하여 침식된 곳의 기와는 기와로 흙은 흙으로 일일이 보수하며 매우 간절히 일을 마쳤다. 서원의 모습을 우러러보니 다시 새로워졌구나. 내가 재주는 부족하지만 원임이자 본손(本孫)이므로 마음으로 절로 감복해서 대략 전말을 들어 줄렬한 분수를 편히 지키며 기(記)를 쓸 따름이다.

1879년(고종 16) 윤 3월 일 놀암 송 선생 11대손 정순(程淳) 삼가 쓰다.

132 肯堂(肯堂) : 조상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궁구궁당(肯構肯堂)의 준말이다.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걱정하여 이미 그 규모를 정했는데도 그 아들이 기꺼이 당기(堂基)를 마련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집을 지으랴.”라고 한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서경』 「대고(大誥)」 「자손이 선대의 유업을 잘 계승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고가(古家)를 후학들이 중수(重修)한 것을 가리킨다.



##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대개 나라에는 상서(庠序)와 학교(學校)가 있고 향촌에는 서원과 사우가 있으니 성인을 호위하고 현인을 사모하는 뜻으로 한결같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곳이다. 이 서원은 곧 일곱 현인이 배향된 서원이며 숙종조(肅宗朝)에 사액(賜額)을 받아 복호<sup>133</sup> 3결과 보노<sup>134</sup> 30명이 서원으로 획급 되어 봄·가을의 향사(享祀)에 사용하여 조두(俎豆)의 예의를 갖추었으니 얼마나 우러러 존경하는 것이며 수 백 년 맑게 정제(整齊)하는 것이다.

오호라, 시대가 고르지 못하고 인도(人道) 또한 그러하여 1868년(고종 5)부터 각 서원이 훼손 될 때<sup>135</sup>에 보노와 복호가 혼입되어 줄어들어 예전으로 회복하자는 의논이 여러 해였으나 겨를이 없었다. 1880년(고종 17)에 본손(本孫) 송정순(宋程淳)·정세기(丁世基)·김영열(金永烈)·김정술(金廷述)·정한구(鄭漢龜), 유림 이병덕(李秉德)·김용조(金龍祖)·김영준(金永準)·김영로(金永瑤)·황기환(黃基煥)·변길용(邊吉容)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의론을 모아 여러 차례 영읍(營邑)에 정소하였다. 송정순(宋程淳)·김영열(金永烈) 두 사람이 외람되게 경사(京司)에 호소할 때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공이 특별히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옛 제도를 회복하라는 제음(題音)이 내려졌다. 이미 정중하면서도 옛 제도로 복구하라는 사항이 오직 원장에게 달려 있을 뿐인데 5~6년 간 일을 아직도 끝마치지 못했으니 아아 흠모할 수 있겠는가.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는 운수의 기복이 있고,<sup>136</sup> 박괘(剝卦)와 복괘(復卦)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37</sup>

한산 이정직(李定植) 현감이 본현(本縣)의 사성(司成)이자 또한 원장을 겸해 무성서원의 선현들을 사모하고 이 서원의 모양을 보고는 보노와 복호를 예전대로 환복(還復)시켜

---

133 복호(復戶) : 조선시대에 어떤 특정한 대상자(왕족·권장·진흥·특수인·군호·정역(定役))에게 그 호(戶)의 조세(租稅)나 부역(賦役)을 면제해 주던 제도이다.

134 조선시대에 병영이나 관아·서원·유향소에 소속되어 잡역을 맡아 하던 노비이다.

13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의미한다.

136 비태(否泰) : 『주역(周易)』의 괘 이름으로, 운수(運數)나 세도(世道)가 막히는 것을 비(否)라 하고, 순탄한 것을 태(泰)라고 한다.

137 박복(剝復) : 『주역(周易)』의 괘 이름으로, 박(剝)은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한 것을 의미하고, 복(復)은 음이 쇠하고 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는 열성조(列聖朝)와 존현(尊賢)의 뜻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들이 품은 원한을 펴서 사문(師門)에 큰 공이 있고 무성서원에서 길이 덕을 칭송하였다. 오직 우리 조정[聖朝]에서 사액의 은혜를 입음을 지금 다시 볼 수 있어 우리 유생들 중 누구라도 정성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 나는 재주는 부족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노를 회복시켜 원래대로 행하고, 한편으로는 어진 현감의 공이 쇠할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글을 잘 짓지 못한다고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 기(記)를 쓴다.

1882년(고종 19) 2월[仲春] 상순[上澣] 성재(誠齋) 김 선생 10대손 직흠(稷欽) 삼가 쓰다.

## 원지 개간기(院誌開刊記)

### 기양연(奇亮衍) 기문

일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선배[前輩]들은 (할) 거를이 없었으니 후배[後來]들에게 책임이 있다. 오직 근본이 견고하고<sup>138</sup> 널리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옛것을 편안히 여기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이가 드물 것이다. 또 만일 아득한 가운데에서 (공허하게) 주장하고 주선하여 반드시 때를 기다려 훌륭한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 또한 때를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임 따름이다.

무성서원이 오래되었는데도 원지가 없는 것은 이 세가지의 어려움이 겹친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무릇 서원은 학교와 표리가 되니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의 사유물이 아니고 사람의 공공물이므로 사실과 규례에 관해 반드시 한 질(帙)의 바꿀수 없는 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뒤에야 서원의 집사(執事)가 앞으로는 선배를 계승하고 뒤로는 후배에게 전수하여 거의 잔결되고 빠뜨리는 탄식을 면하여 장구하게 유지되고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본디 서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원유(院儒) 송정순(宋程淳)·김영로(金永瑬)·변길용(邊吉容)·황기환(黃基煥)·김형식(金亨植)·우재호(禹在鎬)씨가 단연코 자신의 임무로 여기며 처음부터 거두워 주워 모으고 또 그림 그리고 수를 놓았다. 아, 2백년세월 속에 정말이지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란말인가.

지산 처사(芝山處士) 안재호(安在叢)<sup>139</sup> 공과 같은 이가 집안에 보관된 경사(經史) 수백 권을 서원으로 옮겨 후학들이 강학하고 탐구할 바탕이 되게 하니 이공택(李公擇)<sup>140</sup>이

---

138 강간(疆幹) : 강간약지(強幹弱枝)의 줄임말이다. 즉,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한다는 뜻으로 근간을 강하게 하고 지엽(枝葉)을 약하게 한다는 뜻이다. 『반고(班固)』 『西都賦(서도부)』

139 안재호(1821-1873) : 순흥(順興) 안씨이고, 호는 지산 처사(芝山處士)이다. 이다. 태인에서 출생하였고, 효행에 뛰어나 1893년에 정려를 받았다. 1917년에 아들 윤묵(允默)이 편집·간행한 『지산유고(芝山遺稿)』가 있다.

140 이공택(李公擇) : 송대(宋代) 학자인 이상(李常, 1027-1090)의 자(字)이다. 소식(蘇軾)의 오랜 친구로 소식과 함께 신법(新法)에 반대하다 지방 관직으로 전전하게 되었다. 이상이 젊을 때 여산(廬山)의 백석암(白石庵)에서 공부했는데 과거에 급제한 뒤에 장서 9,000여 권을 기증하면서 '이씨산방(李氏山房)'이라고 유래하였다. 이공택은 이씨산방에 대한 기록문을 소식에게 지어달라고 하였고, 이 글이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수록된 「李君山房記(이군산방기)」이다.

승사(僧舍)에 쌓아 둔 것과 건주어도 뒤흔들고 정당하다. 가령 안공이 이군의 세상에 함께 성장하였다면(송나라에 살았다면) 이군(李君)으로 하여금 몹시 적적하게 하였을 터인데, 애석하도다! 혹 훗날의 군자들이 이 책을 마주대하고서 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표출해서 후대에 알리니 빈대와 좀벌레<sup>141</sup>가 옛 사람들의 지극한 뜻을 다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이미 원지의 끝에 발문을 썼으나 또 유생들의 간절한 정성을 가상히 여기고 오늘날의 이목(耳目)에 널리 전파하고자 하여 두서너 줄의 문장을 얹어 서원의 유생들이 공부하는 서재 문미에 걸게하고, 또 힘써 계승하여 이 서원에서 일을 맡은 자를 면려할 따름이다.

1884년(고종 21)<sup>142</sup> 5월 하순[下澣]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정읍현감 기양연(奇亮衍)<sup>143</sup> 쓰다.

141 좀벌레 : 책갈피에 생기는 좀으로 독서의 욕망에 비유한다.

142 원문에는 알봉군탄(閼逢涓灘)으로 기재되어 있다. 알봉(閼逢)은 고갑자에서 '갑(甲)'을 가리킨다. 군탄(涓灘)은 고갑자에서 '신(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갑신, 즉 1884년에 해당한다.

143 기양연(1827-1895) : 행주(幸州) 기씨이고, 호가 백석(柏石)이다. 1867년(고종 4)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하였다. 이후 전적, 정언, 예조정랑, 장령, 사복시정, 부수찬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 되자 삼정책(三政策)의 상소를 올리고 고향인 장성에 은거하였다.

## 김영조(金永朝) 기문

승정후(崇禎后) 다섯 번째 1884년(고종 21) 여름에 무성서원의 원지를 편집하였으니 관찰사 김성근(金聲根)<sup>144</sup> 씨가 그 일에 대해 서문을 쓰고 이 학문이 실전될까 근심하여 만든 것이다. 대개 도학의 전함은 유래가 1696년(숙종 22) 무성(武城)이라고 사액 받으니 대개 자유(子游)의 현가(絃歌)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자유는 공자[성인] 문하의 뛰어난 제자로 끼친 교화가 천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성에까지 가득 넘쳐흘렀다.

최 선생(崔先生)께서는 성묘(聖廟)에 배향되었는데, 훌륭한 명성이 후세에 전해져 무성의 여섯 현인에까지 이어지고 펼쳐졌다. 이에 영천 신 선생(申先生), 불우현 정 선생(丁先生), 놀암 송 선생(宋先生), 묵재 정 선생(鄭先生), 성재 김 선생(金先生), 명천 김 선생(金先生)은 시대가 비록 천백년이나 차이가 난다해도 똑같은 법도로 정일(精一)의 심법<sup>145</sup>을 서로 전수하여 하나의 당에 합사되었다.

창건된 해는 사라져 전해지지 않는다. 월연대(臺)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건한 일이 성화(成化) 19년 1483년(성종 14)에 있었고, 태산사(泰山祠) 둔전의 일은 만력(萬曆) 1616년(광해군 8)에 있었으며 정조[正廟] 1783년(정조 7)<sup>146</sup>에 원우(院宇)를 중수하였고, 영정을 봉안하였다. 순조[純廟] 1825년(순조 25)에 강당에 불이 나는 재난 때문에 중수하였다. 7년이 지난 1831년(순조 31)에 영정을 개모(改模)하고 4년이 지난 1834년(순조 34)에 『계원필경(桂苑筆耕)』을 개간하였다. 철종[哲廟] 6년 1855년(철종 6)에 서원의 터에 투장(偷葬)을 금하고 파갈 것을 독촉한 일이 있었고, 당저(當宇; 현재의 임금. 즉 고종을 의미한다) 9

144 김성근(1835-1919) : 안동(安東) 김씨이고, 호가 해사(海士)이다. 1861년(철종 12)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 예조참판, 한성부 부윤 등을 거쳐 1883년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후 이조참판,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84년에 미국 영사관 포크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 맞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45 정일(精一)의 심법(心法) :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곧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전일하게 지켜야 진실로 중도(中道)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16자 심법’을 가리킨다. 이는 순(舜)임금이 우왕(禹王)에게 전해주었다는 심법으로, 유가의 도통(道統)으로 일컬어진다.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146 원문에는 ‘임진’으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임진년은 1772년으로 정조대에는 임진년이 없다. 또한, 원지의 「영정봉안일기」 등을 보면 원우의 중수와 영정의 보관은 1783년(갑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임진’은 ‘갑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년 1872년(고종 9)에는 지산처사(芝山處士) 안재호 공이 장서(藏書)를 기증하였다. 7년이 지나고 1879년(고종 16)에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예전대로 회복시킨 일과 연액 당시의 제문과 절의(節儀), 원생의 관문(關文)과 전후 소장, 유생들이 서원에 알현한 기록, 고을 현감과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등 사무를 맡은 선비들의 그 이름을 엄숙히 기록하였다.

놀암 송 선생의 후손 정순(程淳)이 원지(院誌)에 관한 일로 진신관(縉紳官) 신기조(申岐朝)<sup>147</sup> 공에게 다녀오니 신 공(申公)이 문묘를 찾아 뵈고 서원의 쇠잔한 모습을 보고 개연(慨然)히 현인을 사모하는 뜻이 있어 있는 힘을 다하여 주선했다. 원지를 간행하였다. 또 신문(神門)이 기울자 새로이 바꾸고 서원의 담에 물이 새자 기와를 수리하였다. 오호라, 운수의 길흉은 천지(天地)의 일상적인 수(數)이고 어두웠으나 드러나는 것은 사문(斯文)의 큰 행운이니 이 고장 선비들이 서로서로 선현의 순박하고 성실한 유풍 속으로 끌어들여 『중용(中庸)』<sup>148</sup>에 복종하여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박학(博學)으로 말미암아 요약(要約)함에 이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선현이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즐거운 큰 덕을 드날리며 선현의 깨우치고 인도한 공에 대해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

안 처사는 회헌(晦軒 ; 안향) 선생의 영예(靈裔)로 효행과 절의, 덕행으로 향당에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자손을 가르칠 훈계와 법칙이 있어 서책 300여 책(冊)을 서원 안에 보관하여 학문을 일으키는 바탕으로 삼게 했다. 이는 어진자의 마음으로 어찌 이공택(李公擇)이 산방(山房)에 책을 간직함에 비할 뿐만이겠는가. 재주 없는 내가 교정하고 간행하는 반열에 끼어 여러 유생이 어진이를 높이고 도를 호위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 간략한 전말을 제시하여 뒷날의 군자들이 서원을 높이고 덕을 숭상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 해 6월 임인일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의 8대손 영조(永朝) 삼가 쓰다.

147 신기조(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팔도총록(八道總錄)』에 의하면 1883년(고종 20)에 흥덕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48 사전(思傳) : 『중용(中庸)』의 이칭(異稱)이다.

## 영천 신 선생 증유(靈川申先生從遊)

영천(靈川) 신 선생과 교유한 인물[從遊]

|                          |                            |                            |
|--------------------------|----------------------------|----------------------------|
| 퇴계 이황(李滉) <sup>149</sup> | 하서 김인후(金麟厚)                | 회재 이언적(李彦迪) <sup>150</sup> |
| 일재 이항(李恒)                | 금호 임형수(林亨秀) <sup>151</sup> | 복재 기준(奇遵) <sup>152</sup>   |
| 굴정 윤구(尹衢) <sup>153</sup> | 한정 김약회(金若晦) <sup>154</sup> | 옥계 노진(盧禎)                  |

7인의 사마시 급제자가<sup>155</sup>

함께 아름다운 마을로 와서 만났네

- 
- 149 이황(1501-1570) : 진성(眞城) 이씨이고, 호가 퇴계(退溪)이다. 1528년(중종 23) 진사시, 1534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단양군수,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나 1537년에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복상(服喪)하였다. 1543년부터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로 영남을 배경으로 한 주리적(主理的) 퇴계학과를 형성하였다. 『성학십도』, 『역학계몽전(易學啓蒙傳疑)』 등을 저술하였다. 예산 역동서원, 안동 도산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 150 이언적(1491-1553) : 여주(驪州) 이씨이고, 호가 회재(晦齋)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 1514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조정랑, 밀양부사, 전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1547년(명종 2)에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제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주리적 성리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이황에게 계승되어 영남학파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경주 옥산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 151 임형수(1514-1547) : 금호(錦湖) 임씨이고, 호가 금호(錦湖)이다. 1531년(중종 26) 생원시, 1535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기사관, 회령관, 부제학, 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547년(명종 2)에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절도안치(絶島安置)된 뒤 곧 사사(賜死)당하였다. 이황, 김인후 등과 교류하였고, 나주 송재서원에 배향되었다.
- 152 기준(1492-1521) : 행주(幸州) 기씨이고, 호가 복재(服齋)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 1514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정자, 장령, 시강관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등과 피화당하여 온성에 유배되었다. 1521년의 신사무옥으로 다시 유배를 가서 교살(絞殺)되었다. 온성의 충곡서원, 아산의 아산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기묘명현 중 한 사람이다.
- 153 윤구(1495-미상) : 해남(海南) 윤씨이고, 호가 굴정(橋亭)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와 진사시, 151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수찬, 지제교,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사직되었다. 조광조 등과 피화당하여 온성에 유배되었다. 남해향사(南海鄉祠)에 배향되었다.
- 154 김약회(1481-미상)은 도강(道康) 김씨이고, 호가 한정(閑亭), 자는 원명(原明)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이때의 교지가 남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12호로 지정되었다. 칠보면 원촌리에 그가 건립한 한정이 있다. 임형수, 기준, 윤구 등과 1513년 생원시 동기이고, 1544년에 신잡과 송순이 그의 한정에서 놀러왔던 적도 있다. 아마 이 시는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 155 현감인 신잡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김약회를 제외한 숫자이다.

원량(元亮)<sup>156</sup>은 어진 수령이고  
원명(原明)<sup>157</sup>은 좋은 곳에 거주하네  
물가 모래사장에는 산봉우리에 걸린 달 함께 비추고  
밭상에는 개울의 물고기 넉넉하네  
아름다운 오늘 모임 오래도록 전해지리니  
(그 내용 알려거든) 모름지기 푸른 석벽에 새긴 글을 보게나  
면앙(倅仰) 송순의 시

---

156 원량(元亮)은 신잠의 자(字)로 이때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57 원명(原明)은 김약회의 자(字)이다.



## 선진봉심안(先進奉審案)<sup>158</sup>

진사 정 진(鄭震)【1486년(성종 17)】

군수 송연손(宋演孫)<sup>159</sup>【1486년(성종 17)】 판서 송세형(宋世珩)<sup>160</sup>【1513년(중종 8)】

생원 윤희운(金希尹)【1488년(성종 19)】 생원 김약허(金若虛)【1513년(중종 8)】

생원 김약희(金若晦)【1513년(중종 8)】 생원 정삼준(丁三俊)【1513년(중종 8)】

진사 조승령(趙崇齡)【1513년(중종 8)】 진사 정 분(鄭汾)【1540년(중종 35)】

진사 김약현(金若玄)<sup>161</sup>【1525년(중종 20)】 생원 백원구(白元龜)【1519년(중종 14)】

생원 송 담(宋曇)<sup>162</sup>【1519년(중종 14)】 생원 손홍륜(孫弘綸)【1537년(중종 32)】

진사 손홍서(孫弘緒)【1537년(중종 32)】 진사 백삼구(白三龜)【1519년(중종 14)】

찰방 김 원(金元)【1537년(중종 32)】 진사 정자정(丁子淨)【1528년(중종 23)】

목사 김복억(金福億)<sup>163</sup>【1573년(선조 6)】

생원 송 경(宋敬)【1588년(선조 21)】 진사 박처인(朴處仁)【1610년(광해군 2)】

158 여기에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현감 이상과 생몰년이 확인되는 인물을 위주로 정리하고, 자나 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로 생원과 진사만 지낸 경우에는 등위까지 기재하였다.

159 송연손(1460-1508) : 여산(礪山) 송씨이다. 1486년(성종 17)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곡성현감, 용담현령, 한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부(師傅)였던 인연으로, 1506년(중종 1)의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에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올랐다. 아들이 무성서원에 배향된 송세립이다.

160 송세형(미상-1553) : 여산(礪山) 송씨이다. 1524년(중종 19) 생원시, 1532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부수찬, 사헌부지평, 사간원헌납, 예조참판,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송연손의 아들이고, 무성서원에 배향된 송세립과 형제이다.

161 김약현(1497-1529) : 도강(道康) 김씨이다. 1528년(중종 23) 진사시에 3등 7위로 급제하였다. 성재 김약목의 형이다.

162 송담(미상-미상) : 여산(礪山) 송씨이다. 1519년(중종 14) 생원시에 3등 14위로 급제하였다.

163 앞의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행적 보유(行蹟補遺)에 설명되어 있다.

현감 고용후(高用厚)<sup>164</sup>      군수 송치중(宋致中)<sup>165</sup>【1612년(광해군 4)】  
 순찰사 이충(李冲)<sup>166</sup>【1612년(광해군 4)】    현감 오희길(吳希吉)<sup>167</sup>【1615년(광해군 7)】  
 현감 한국겸(韓履謙)      진사 정자숙(丁子淑)  
 감찰 윤운구(尹雲衢)      현감 이후원(李厚源)<sup>168</sup>【1623년(인조 원년)】  
 순찰사 이명(李溟)<sup>169</sup>【1623년(인조 원년)】    찰방 조신준(曹臣俊)【1623년(인조 원년)】  
 현감 임충간(任忠幹)<sup>170</sup>      생원 김전(金填)

- 
- 164 고용후(1577-미상) : 장흥(長興) 고씨이다. 아버지는 임진왜란시에 호남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전사한 고경명이고, 이때 형 고인후도 함께 순국하였다. 그는 1605년(선조 38) 생원시, 동년의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좌랑, 병조좌랑, 병조정랑, 1609년에 태인현감을 거쳐 남원부사, 고성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 165 송치중(1591-1643) : 여산(礪山) 송씨이다. 1612년(광해군 4)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이때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여 이상형(李尙馨) 등과 낙향하였고, 태인 고현내에서 칠광(七狂)을 조직하여 유유자적하였다. 1623년의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나아가 금정찰방(金井察訪), 형조좌랑, 호조정랑, 사복첨정(司僕僉正) 등을 거쳤다. 태인 송산사에 배향되었다.
- 166 이충(1568-1619) : 전주(全州) 이씨이다.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무장현감, 성천부사, 광주목사, 이조참판,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1612년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 167 오희길(1556-1625) : 나주(羅州) 오씨이다. 음직으로 후릉참봉(厚陵參奉)을 거쳐 경기전참봉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조의 어진과 제기,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에 이안하였다. 1618년(광해군 10)에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태인현감을 역임하고, 고창의 월계정사와 태인의 남천사에 배향되었다.
- 168 이후원(1598-1660) : 전주(全州) 이씨이다. 163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인조반정 후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졌고, 동년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결사대를 이끌고 수습에 앞장섰다. 이후 단양군수, 한성부서윤, 익산군수, 충청도관찰사, 대사헌 등을 지냈다. 1650년(효종 1)에 북벌론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 169 이명(1570-1647) : 전주(全州) 이씨이다. 1591(선조 24) 진사시, 1606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언, 서천군수, 황연도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반정 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의 공주 몽진을 도왔다.
- 170 임충간(1573-1645) : 장흥(長興) 임씨이다. 1600년(선조 33)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인현감, 경상좌도병마절도사, 도총부부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때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입보하였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27년(정묘) 2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입하여 1628년(무자) 6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현감 신익량(申翊亮)<sup>171</sup>【1634년(인조 12)】 현감 권순경(權純慶)<sup>172</sup>  
 현감 유덕창(柳德昌)<sup>173</sup>【1642년(인조 20)】 현감 이성징(李星徵)<sup>174</sup>  
 지평 김지남(金地南)<sup>175</sup> 급제 김지성(金之聲)  
 한림 오이익(吳以翼)【1650년(효종 원년)】 현감 민 윤(閔昀)<sup>176</sup>【1653년(효종 4)】  
 현감 신 재(申在) 현감 송지림(宋之濂)  
 현감 조상우(趙相愚)<sup>177</sup>【1682년(숙종 8)】 진사 정사검(丁士儉)【1686년(숙종 12)】  
 현감 이 당(李堂)<sup>178</sup>【1696년(숙종 22)】 생원 정사걸(丁士傑)

- 
- 171 신익량(1590-1650) : 평산(平山) 신씨이다. 1634년(인조 1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경상도관찰사, 청주목사,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한 뒤로 벼슬을 버리고 숨어 지냈다고 한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34년(갑술) 8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임하여 1636년(병자) 7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172 권순경(1574-미상) : 안동(安東) 권씨이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태인군읍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 173 유덕창(1597-미상) : 전주(全州) 유씨이다. 1624년(인조 2) 진사시, 162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41년(신사) 11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임하여 1643년(계미) 12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174 이성징(1608-미상) : 연안(延安) 이씨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시와 생원시, 1662년(현종 3)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정원승지,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44년(갑신) 2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임하여 1646년(병술) 7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175 김지남(1600-1650) : 의성(義城) 김씨이다. 1624(인조 2) 진사시, 1638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공조좌랑, 기사관, 호조좌랑, 무장현감,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41년(인조 19) 1월 18일에 지평으로 임명되었는데, 동년 2월 15일에 남이웅을 탄핵했다가 체차(遞差; 다른 관직으로 바뀜)되었다. 고부군 출신의 인물이다.
- 176 민윤(1612-미상) : 여흥(驪興) 민씨이다. 1646년(인조 24)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태인군읍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 177 조상우(1640-1718) : 풍양(豐壤) 조씨이다. 1682년(현종 8)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지평, 병조정랑, 대사간, 강계부사,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82년(임술) 8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임하여 1683년(계해) 12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 178 이당(1650-미상) : 전주(全州) 이씨이다. 1673년(현종 14)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695년(을해; 숙종 21) 11월에 태인현감으로 도임하여 1699년(기묘) 6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생원 김형후(金炯厚)【1810년(순조 10)】 생원 기정진(奇正鎭)【1831년(순조 31)】  
 현감 서호순(徐灝淳)<sup>186</sup>【1831년(순조 31)】 생원 정재화(丁載和)  
 현감 심능숙(沈能淑)<sup>187</sup>【1832년(순조 32)】 생원 권집규(權執圭)【1834년(순조 34)】  
 현감 남학현(南鶴玄)<sup>188</sup> 생원 이병찬(李炳贊)【1835년(헌종 원년)】  
 현감 조병헌(趙秉憲)<sup>189</sup>【1836년(헌종 2)】 진사 김창업(金彰業)【1835년(헌종 원년)】  
 진사 조봉희(趙鳳熙)【1837년(헌종 3)】 신은(新恩) 이용운(李龍雲)【1837년(헌종 3)】  
 현감 정완용(鄭琬容)<sup>190</sup>【1839년(헌종 5)】 신승구(申升求)【1837년(헌종 3)】  
 현감 조운시(趙雲始)<sup>191</sup>【1840년(헌종 6)】 이진순(李晉純)【1840년(헌종 6)】  
 진사 김상홍(金相洪)【1842년(헌종 8)】 김정택(金敬澤)【1845년(헌종 11)】  
 진사 이동구(李東龜) 서정민(徐廷民)

진사 신재근(申在根)【1863년(철종 14)】<sup>192</sup> 김석흠(金錫欽)【1846년(헌종 12)】  
 급제 이규백(李圭白)【1846년(헌종 12)】 김기규(金基圭)【1848년(헌종 14)】  
 생원 송지호(宋持灝) 이형순(李馨純)【1848년(헌종 14)】

186 서호순(1789-1848) : 대구(大丘) 서씨이다. 1789년(정조 13)의 생원시 1818년(순조 10)의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적성현감, 회인현감, 임실현감, 함양군수, 태인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825년의 무성서원 화재 이후 중간에 힘써 주민들이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1866년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서상정(徐相鼎)의 아버지이다.

187 앞의 계원필경 중수기에 설명되어 있다.

188 남학현(1742-미상) : 의령(宜寧) 남씨이다.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경기전참봉, 서빙고별감, 남부도사, 공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793년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89 조병헌(1800-1842) : 풍양(豐壤) 조씨이다. 1825년(순조 25) 진사시, 1827년 증광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규장각대교, 대사성, 이조참의,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835년(헌종 1) 8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90 정완용(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38년(헌종 4) 1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91 조운시(1787-미상) : 풍양(豐壤) 조씨이다. 1831년(순조 31)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함흥관관, 김제군수, 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840년(헌종 6) 3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92 신재근(1796-미상) : 평산(平山) 신씨이다. 1843년(헌종 9)에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태인에 거주하였다. 원문에 '계해년' 즉 1863년으로 기재되었으나 앞 뒤 순서 등을 고려하면 1843년의 '계묘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급제 임문수(林文洙)【1850년(철종 원년)】 이구선(李龜善)【1849년(헌종 15)】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김학룡(金學龍)【1851년(철종 2)】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김정흠(金琰欽)【1849년(헌종 15)】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유경규(劉景奎)【1851년(철종 2)】 생원 민치두(閔致斗)【1855  
년(철종 6)】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송인호(宋麟浩)【1852년(철종 3)】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최광한(崔光漢)【1857년(철종 8)】

## 갑을기사(甲乙記事)<sup>193</sup>

현우(賢宇)<sup>194</sup> 중수【1735년(영조 11) 2월 2일 이안(移安) 10일 환안(還安)<sup>195</sup>】축문(祝文)이 상편(上篇)에 기재됨

현감 송징계(宋徵啓)<sup>196</sup> 재장 김덕징(金德徵) 장의 김성하(金成夏) 색장 권상일(權相一) 김희조(金希祖)

강수재(講修齋)<sup>197</sup> 중수【1737년(영조 13) 2월 일】

현감 허후(許逅)<sup>198</sup> 재장 정지웅(鄭之雄) 장의 김상채(金相采) 색장 권상정(權相廷)·안시기(安時器)

고사(庫舍)<sup>199</sup>와 홍문(弘門)<sup>200</sup> 중수【1745년(영조 21) 8월 일】

193 갑을기사는 서원의 중수나 봉심안을 기록한 연대기록이다.

194 현우(賢宇) : 현재의 태산사를 가리킨다. 본래 태산사는 태산현 군수를 지낸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사액을 받기 전에는 태산사우로 불렸다. 1483년(성종 14)에 지금 자리로 이건(移建) 되었고 몇 차례 중수를 거친 후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195 이안(移安) : 신주·영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이고, 환안(還安)은 다른 곳으로 옮겼던 신주를 다시 제자리로 모시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영정의 이안과 환안은 1784년(정조 8)에 이루어진 것으로 연도가 맞지 않는다.

196 송징계(1690-1722) : 여산(礪山) 송씨이다. 1723년(경종 3)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세자시강원 설서, 사간원 정언에,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34년 9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97 강수재(講修齋) : 무성서원에서 유생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다. 강수재 중수기에 따르면 1696년(숙종 22년)에 사액을 받은 이후에야 본래 고사(庫舍)로 쓰던 건물을 강수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1696년 이전에는 강수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우위치에 1707년에 창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강당과 혼용되다가 현재 강수재는 1879년에 다시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 허후(1686-?) : 양주(楊州) 허씨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시, 1733년(영조 9)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부사과, 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35년 7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99 고사(庫舍) : 서원의 제반 관리 업무 및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무성서원원지』에 따르면 무성서원의 고사는 8칸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200 홍문(弘門) : 홍살문으로 궁전·관아(官衙)·능(陵)·묘(廟)·원 등의 앞에 세우던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이다.



현감 임행원(任行元)<sup>201</sup> 재장 김흔(金渾) 장의 김주백(金冑{卜+百}) 색장 이재창(李再昌)  
·은도복(殷道復)

현우 중수 축문 위와 같음【1755년(영조 31) 2월 일】

현감 김시간(金時侃)<sup>202</sup> 재장 권상언(權相彦) 장의 김증(金嶺) 색장 이항수(李恒壽)·김  
기동(金箕東)

현우 중수 축문 위와 같음【1762년(영조 38) 9월 일】

현감 김이섭(金履復)<sup>203</sup> 재장 조이흠(趙爾欽) 장의 민백주(閔百冑) 색장 김정(金珽)·김  
언복(金彦復)

담장[牆垣]과 신문(神門)<sup>204</sup> 중수【1773년(영조 49) 2월 일】

현감 조재천(趙載天)<sup>205</sup> 재장 김지흥(金智興) 장의 김광운(金光運) 색장 김효승(金孝  
承)·안수중(安守中)

강수재 중수【1780(정조 4) 8월 일】

---

201 임행원(1633-1702) : 풍천(豐川) 임씨이다. 그는 1675년(숙종 1) 사산감역(四山監役), 사복시주부, 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45년(영조 21)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고, 10가지의 고과(考課)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202 김시간(미상-미상) : 안동(安東) 김씨이다. 선공감 감역, 영동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54년(영조 30) 윤4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203 김이섭(1720-미상) : 안동(安東) 김씨이다. 1753년(영조 29)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의금부도사, 내자봉사(內資奉事), 면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65년(영조 41) 10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204 신문(神門) : 현재의 무성서원 강당과 태산사 사이에 있는 문이다. 태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문을 지나쳐야 한다.

205 조재천(1735-미상) : 풍양(豐壤) 조씨이다.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내고, 전주부성을 축성한 조현명이다. 1762년(영조 38)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장릉참봉(長陵參奉), 의금부도사, 공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70년(영조 47) 6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현감 홍낙현(洪樂顯)<sup>206</sup> 재장 김태중(金泰鍾) 장의 김시영(金時榮) 색장 김광리(金光履)·김영우(金永祐)

고사와 담장 중수【1786년(정조 10) 5월 일】

현감 이제연(李齊淵)<sup>207</sup> 재장 양백해(楊伯楷) 장의 김광오(金光五) 색장 송석효(宋碩孝)

현우 개와(改瓦) 축문은 위와 같음【1787년(정조 11)<sup>208</sup> 6월 1일】

현감 박현수(朴賢秀)<sup>209</sup> 재장 김광운(金光運) 장의 박양식(朴良植) 색장 김윤조(金胤祖)·송계천(宋啓天)

제기와 지천(地薦) 새롭게 고침【1788년(정조 12) 8월 일】

재장 안처명(安處命) 장의 김민후(金敏厚) 색장 김철(金喆)

홍문과 중문(中門) 중수【1789년(정조 13) 6월 일】

재장 권재(權緯) 장의 김지묵(金之默) 색장 안치력(宋致璫)

현우 신문 중수【1793년(정조 17) 10월 일】

재장 권의덕(權儀德) 장의 김치영(金致榮) 색장 김정후(金慶厚)

---

206 홍낙현(미상-미상) : 풍산(豐山) 홍씨이다. 선공감역, 한성부주부, 제용관관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79년(정조 3) 1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태인군읍지』에 의하면 그는 1780년(경자) 정월에 도임하여 1781년(신축) 6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07 이제연(미상-미상) : 완산(完山) 이씨이다. 영릉참봉(永陵參奉), 사옹원주부, 합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85년(정조 9) 1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208 원문에는 정묘년이라고 하였으나 정묘년은 1807년으로 1786년경에 태인 현감으로 재직한 박현수와 맞지 않는다. 또한, 앞뒤의 순서를 보았을 때, '정미년(1787)'의 오기인 듯하다.

209 박현수(1735-미상) : 고령(高靈) 박씨이다. 1774년(영조 50)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공조좌랑, 군자주부, 창평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86년(정조 10) 1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강수재 담장 수리(修葺)【1796년(정조 20) 7월 일】

제장 권계(權繼) 장의 김준철(金峻哲) 색장 김규(金圭)

현우 개와(改瓦)【이안(移安) 환안(還安)】 축문 위와 같음【1799년(정조 23) 8월 일】

현감 이창희(李昌熙)<sup>210</sup> 재장 권시철(權時喆) 장의 김치후(金致厚) 색장 김이성(金履成)  
·송명철(宋命哲)

강수재가 불에 탐【1825년(순조 25) 4월 일】

강수재가 중창(重創) 됨.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 함【1828년(순조 28) 3월 30일】

현감 서호순(徐灝淳)<sup>211</sup> 재장 김준철(金峻哲) 장의 정문덕(丁文德) 색장 정재혁(鄭載赫)  
김광술(金匡述)

현우 중수(重修) 축문 위와 같음【1830년(순조 30) 2월 일】

재장 김치황(金致璜) 장의 송치덕(宋致德) 색장 송민식(宋敏植)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 영정개모(影幀改模) 현감 서호순이 녹봉의 일부를 덜어 전담  
봉안 축문은 위와 같음【1831년(순조 31) 8월 12일】

현감 심능숙(沈能淑) 현우(賢宇)의 지천(地薦)을 전담하여 새롭게 고침【1833년(순조  
33) 2월 일】

재장 송언익(宋彦益) 장의 김진순(金晉淳) 색장 김조현(金祖鉉)·송치빈(宋致斌)

『계원필경(桂苑筆耕)』 완영(完營)에서 개간【1834년(순조 34) 12월 일】

---

210 이창희(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99년(정조 23) 6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211 서호순(1789-1848) : 대구(大丘) 서씨이다. 1789년(정조 13)의 생원시, 1818년(순조 10)의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적성현감, 회인현감, 임실현감, 함양군수, 태인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825년의 무성서원 화재 이후 중건에 힘써 주민들이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1866년(고종 3)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서상정(徐相鼎)의 아버지이다.

현감 심능숙(沈能淑) 재장 이준한(李俊漢) 장의 김조현(金祖鉉) 색장 김주(金鉉)·김규  
훈(金奎勳)

제기(祭器) 개조 담장 수축(修築)【1836년(헌종 2) 2월 일】

재장 송치덕(宋致德) 장의 권사안(權思安) 색장 고중진(高重鎭)

강수재 지붕 기와 갈아 덮음[翻瓦] 중문 수리[修葺]【1837년(헌종 3) 2월 19일】

재장 김곤(金坤) 장의 조정구(趙貞球) 색장 송량채(宋亮采)

현우 중수【이안(移安) 환안(還安)】 축문 위와 같음【1838년(헌종 4) 8월 26일】

재장 송언직(宋彦直) 장의 김용(金壙) 색장 김석오(金錫五)

1842년(헌종 8) 2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김석노(金錫魯) 장의 김진흠(金鎭欽) 색장 송혁호(宋赫浩)

1854년(철종 5) 8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송유원(宋儒元) 장의 박규동(朴奎東) 색장 김정훈(金廷勳)

눌암선생(訥庵先生) 11세손 송량채(宋亮采)가 원임(院任)으로 재직하며 아껴 사용하여  
비용을 줄임

현우의 지천(地薦) 고사(庫舍)의 창[櫺戶]과 제기인 촛죽(燭竹) 하나씩 새롭게 고침

1855년(철종 6) 2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이민헌(李民憲) 장의 김도(金燾) 색장 송정순(宋程淳)

현감 이승경(李承敬) 무성서원 뒤편의 투총(偷塚) 30여 개를 직접 심리(審理)하여 파갈  
것을 독촉함

불우현(不憂軒) 선생(先生) 13대손 정진태(丁鎭兌) 별고(別庫)를 중창【1857년(철종 8) 3

월 일】

재장 이규헌(李奎憲) 장의 송치빈(宋致斌) 색장 권중희(權鍾喜)

현감 조진호(趙縉鎬)<sup>212</sup>【1859년(철종 10) 7월 3일 지알(祗謁)하고 봉심(奉審)】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김한정(金漢鼎)【1859년(철종 10) 3월 봉심】

과거에 새로 급제한[新恩] 장영진(張永鎭)【1860년(철종 11) 12월 봉심】 오위장 정예현(丁禮鉉)

1861년(철종 12) 2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권사황(權思璜) 장의 송병호(宋秉浩) 색장 김영낙(金永洛)

생원 정태용(鄭台鏞)【5월 28일 봉심(奉審)】 오위장 정경현(丁敬鉉)

1862년(철종 13) 2월 중정일(仲丁日)

장의 김대현(金大鉉) 색장 송영채(宋永采)

1863년(철종 14) 2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김용(金壙) 장의 정창현(鄭昌賢) 색장 김낙흠(金樂欽)

진사 김기(金壑)【1867년(고종 4) 3월 24일 봉심(奉審)】 진사 이겸술(李謙述)【1867년(고종 4) 8월 봉심】

1868년(고종 5) 2월 중정일(仲丁日)

재장 김인흠(金麟欽) 장의 송운채(宋雲采) 색장 김정술(金廷述)

참의 정재룡(丁載龍)【3월 7일 봉심(奉審)】

1871년(고종 8) 2월 중정일(仲丁日)

---

212 조진호(1762-미상) : 임천(林川) 조씨이다. 돈녕참봉(敦寧參奉), 군자봉사, 군자직장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57년(철종 8) 1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원장 현감 김인근(金寅根)<sup>213</sup> 장의 김양흠(金讓欽) 색장 변길용(邊吉容)

1872년(고종 9) 8월 중정일(仲丁日)

원장 현감 조중식(趙中植)<sup>214</sup>과 안학율(安學律)·김영조(金永朝) 남학당계(南學堂契)  
중창

봄 3월 3일, 가을 9월 9일에 강습(講習)

장의 김정훈(金廷勳) 색장 김영로(金永瑤)

별고장의(別庫掌議) 김필흠(金必欽) 색장 정영관(丁永權)

1873년(고종 10) 2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여러 유생들[諸生] 모여서 강습  
(講習)

장의 송영수(宋瑛秀) 색장 변대용(邊大容)

강수재 장의 안재복(安在福) 색장

1874년(고종 11) 8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여러 유생들[諸生] 모여서 강습  
(講習)

장의 김낙흠(金駱欽) 색장 김영곤(金永鯤)

강수재 장의 권병규(權秉圭) 색장

1875년(고종 12) 정월 일【3월 3일 향음주례 행함. 9월 9일 강습례(講習禮)】

---

213 김인근(1817-미상) : 안동(安東) 김씨이다. 1840년(헌종 6)에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남부도사, 내섬시 봉사, 태인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67년(고종 4) 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전라도도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서 표창을 받아 승서(陞敍)하였다고 한다.

214 조중식(1808-미상) : 함안(咸安) 조씨이다.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광흥봉사(廣興奉事), 백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71년(고종 8) 8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진신장의(縉紳掌議) 현령 이철재(李喆在)<sup>215</sup> 장의 김영홍(金永洪)  
 색장 우재호(禹在鎬) 강영문(姜永文) 도내 장의 이병돈(李秉敦)  
 색장 김상호(金相浩) 직월 김영렬(金永烈) 직월 변길용(邊吉容)  
 강수재 장의 김증혁(金增赫) 색장 안맹숙(安孟塾)  
 도내장의 이문의(李文儀) 색장 오고영(吳皋泳)  
 별고장의(別庫掌議) 김필흠(金必欽) 유사 정영관(丁永瓘)  
 최 선생 27세손 익현(益鉉)<sup>216</sup>【제주에서 방환(放還) 할 때 지알(祇謁) 4월 22일】  
 28세손 한운(漢運) 26세손 도(叟)【같은 날 봉심(奉審)】

1876년(고종 13) 2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 여러 유생들[諸生] 모여 강습례  
 (講習禮)를 행함  
 원장 현감 이민태(李敏泰)<sup>217</sup> 진신강장(縉紳講長) 찰방 김우현(金禹鉉)  
 장의 김영준(金永準) 색장 황기환(黃基煥)  
 유림강장(儒林講長) 진사 변우기(邊遇基) 도내 장의(道內掌議) 남제(南濟)  
 색장 이회수(李會粹) 직월(直月) 김영로(金永瑤)  
 직일(直日) 우재호(禹在鎬)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변길용(邊吉容) 색장 박해룡(朴海  
 龍)

- 
- 215 이철재(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1874년에 홍산현감을 역임 하고, 1875년에 금구현령으로 부임하였다. 진신(縉紳)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진신장의는 현직 에 있는 관리 중에 무성서원의 장의를 맡아본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그가 진신장의에 임명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체직될 경우 이후 주변 관원들 가운데서 진신장을 지냈다. 이후 이철재는 무주부사, 상주목 사, 금천군수 등을 지냈다.
- 216 최익현(1833-1907) : 경주(慶州) 최씨이고, 호는 면암(勉菴)이다. 1855년(철종 6)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 다. 순강원수봉관(順康園守奉官), 사간원정언, 사헌부장령, 승정원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73년에 올린 상소로 대원군의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873년에 제주도로 유배 되어 1874년에 한라산에 오른 기행문인 『유한라산기』가 있다. 그가 제주도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무 성서원에 들어서 봉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후일 최익현은 1906년에 무성서원에서 강회를 마치고 병 오창의를 일으켰다.
- 217 이민태(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75 년(고종 12) 2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도내 장의 경채용(景采容) 색장 이해구(李海龜)  
별고장의(別庫掌議) 김영필(金永弼) 유사 정한구(鄭漢龜)  
문과(文科) 고필상(高必相)【5월 일 봉심(奉審)】

1877년(고종 14) 2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여러 유생들[諸生] 모여 강습  
(講習)

원장 현감 민관호(閔觀鎬)<sup>218</sup> 장의 김용조(金龍祖) 색장 박계근(朴桂根),  
도내 장의(道內掌議) 황재현(黃在顯) 색장 최중권(崔中權),  
김봉익(金奉益)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영조(金永朝) 직월(直月) 송정순(宋程淳) 직일(直  
日) 황기환(黃基煥) 강수재 장의 김정술(金廷述) 색장 정상현(丁相鉉)·장한룡(張漢龍)  
도내 장의(道內掌議) 김두흠(金斗欽) 색장  
별고장의(別庫掌議) 김영은(金永殷)  
문과(文科) 최재철(崔在澈)【9월 일 봉심(奉審)】

1878년(고종 15) 8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여러 유생들[諸生]이 강습례(講習  
禮)를 행함

원장 현감 민관호(閔觀鎬) 진신장의(摺紳掌議) 현령 이철재(李喆在)  
진신강장(摺紳講長) 찰방 김우현(金禹鉉)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용흠(金用欽) 장의 송  
만수(宋晩秀) 색장 이명문(李秉文)·여홍섭(呂弘燮)  
도내 장의(道內掌議) 황종묵(黃宗默) 색장 윤중필(尹重弼)  
직월(直月) 김종림(金宗琳) 직일(直日) 정영관(丁永瓘) 강수재 장의 김영조(金永祖)  
색장 김재기(金在基) 도내 장의 유환창(柳煥昌)  
색장 한영조(韓永祚) 별고 유사(別庫有司) 최득서(崔得瑞)

---

218 민관호(미상-미상) : 여흥(驪興) 민씨이다. 감역, 정릉령(靖陵令), 덕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  
에 의하면 1876년(고종 13) 3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되었다.

1879년(고종 16) 2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9월 9일】 여러 유생들[諸生] 모여 강습례(講習禮)를 행함

원장 현감 민관호(閔觀鎬) 진신장의(摺紳掌議) 현감 김익건(金益健)<sup>219</sup> 진신강장(摺紳講長) 찰방 김우현(金禹鉉)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영린(金永麟)

장의 김낙흠(金樂欽) 색장 안요석(安堯錫), 전택진(田宅鎭)

도내 장의(道內掌議) 김요승(金堯昇) 색장 성재규(成載奎)

직월(直月) 송영채(宋永采) 직일(直日) 변길용(邊吉容) 강수재 장의 김영렬(金永烈)

색장 박재식(朴在植) 도내 장의 이상욱(李相旭)

색장 임치환(林致煥) 별고 유사(別庫有司) 최경원(崔鏡源)

문과(文科) 송관옥(宋琯玉)【8월 일 봉심(奉審)】 진사 유성렬(庾聖烈)【9월 일 봉심(奉審)】

강수재 중수【윤달 일】

1880년(고종 17) 2월 중정일(仲丁日)【3월 3일 향음주례 행함. 9월 9일 강습례(講習禮)를 행함】

원장 현감 민관호(閔觀鎬) 진신장의(摺紳掌議) 군수 이운부(李雲溥)<sup>220</sup>

진신유사(摺紳有司) 찰방 안익양(安翊良) 유림강장(儒林講長) 이계응(李啓應) 장의 이병덕(李秉德) 색장 김직술(金直述) 색장

도내 장의(道內掌議) 이농필(李穰弼) 색장 윤일현(尹日鉉)

직월(直月) 김낙흠(金樂欽) 직일(直日) 김형식(金亨植) 강수재 장의 공봉수(孔鳳洙)

색장 오관순(吳寬淳) 도내 장의 백래수(白來洙)

219 김익건(미상-미상) : 청풍(淸風) 김씨이다. 인릉참봉(仁陵參奉), 금부도사, 호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876년(고종 13) 7월에 정읍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앞서 이철재가 수행하던 진신장의를 정읍현감 김익건이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220 이운부(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1878년(고종 15) 6월에 고부군수로 부임하였다. 앞서 정읍현감이었던 김익건이 수행하던 진신장의를 고부군수 이운부가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색장 별고 유사(別庫有司) 최일구(崔日九)

신문(神門)과 담장 수리[修葺][7월 일]

고암서원(考巖書院)<sup>221</sup>을 다시 설립하는 일로 여러 고을에 통문(通文)을 보냄. 전주에  
서 모임[2월 일]

1881년(고종 18) 8월 일

원장 현감 이정직(李定植)<sup>222</sup> 진신장의(縉紳掌議) 현감 한기석(韓箕錫)<sup>223</sup>

진신유사(縉紳有司) 찰방 안익양(安翊良)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영언(金永彦)

장의 김영곤(金永鯤) 색장 송인옥(宋麟玉)

도내 장의(道內掌議) 이승호(李承灝) 색장 조대기(趙玳基)

직월(直月) 최봉구(崔鵬九) 직일(直日) 권중림(權鍾林) 강수재 장의 송정순(宋程淳)

색장 하구홍(河龜弘) 도내 장의

색장 임철상(林喆相) 김영술(金永述) 별고 장의(別庫掌議) 김기환(金奇煥)

유사 최창박(崔昌璞)

부사과 기양연(奇亮衍)[4월 일 봉심(奉審)] 진사 곽영중(郭璟鍾)[4월 일 봉심]

1882년(고종 19) 2월 중정일(仲丁日)

원장 현감 이정직(李定植) 진신장의(縉紳掌議) 현감 한기석(韓箕錫)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영수(金永洙) 장의 최익곤(崔翊坤) 색장 송병권(宋炳權)·서봉순

---

221 고암서원 :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서원으로 1695년(숙종 21)에 지방유림이 송시열을 모시기 위해 위패를 모셨고, 동년 9월에 사액서원이되었다. 1785년(정조 9)에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를 추가 배향하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에 해철되었다.

222 이정직(미상-미상) : 생몰년,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여원(汝元)이다. 1880년 8월에 태인현감 민관호와 덕천군수 이정직이 서로 바꾸었다.『승정원일기』 2878책, 고종 17년 8월 24일 경신) 이후 1882년 8월에 원주관관으로 이임하였다.

223 한기석(1816-미상) : 청주(淸州) 한씨이다. 선공봉사, 장악주부, 종묘령 등을 역임하였다. 1881년(고종 18) 7월에 임실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앞서 이운부가 수행하던 진신장의를 임실현감 한기석이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徐鳳淳) 도내 장의(道內掌議) 색장 한정수(韓廷秀)  
 이후근(李厚根) 직월(直月) 이농필(李穰弼) 직일(直日) 안하석(安夏錫)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주필환(朱弼煥) 색장 최남휴(崔南休)·오해천(吳海千)  
 도내 장의 변입기(邊立基) 색장 전택진(田宅鎭)·조용운(趙龍雲)  
 별고 장의 김직흠(金稷欽) 유사 강두영(姜斗永)

1883년(고종 20) 2월 중정일(仲丁日)

원장 현감 정이원(鄭履源)<sup>224</sup> 진신장의(摺紳掌議) 현감 기양연(奇亮衍)  
 유림강장 장의 김상익(金相翌) 색장 김형식(金亨植)

도내 장의 손이상(孫履祥) 색장  
 이상룡(李祥龍) 직월(直月) 고학술(高學述) 직일(直日) 김관현(金寬鉉)  
 강수재 장의 변길용(邊吉容) 색장 김병순(金炳淳)·유종철(劉鍾喆)  
 도내 장의 허흠(許欽) 색장 이병원(李秉元)·김재문(金在文)  
 별고 장의 유사 최창박(崔昌璞)

최재기(崔在基)·최원기(崔元基) 무성서원 뒤편의 투총(偷塚)에 관한 일로 감영에 보고.  
 감영에서는 20여 무덤을 즉각 파갈 것을 독촉  
 문과(文科) 김헌제(金楹濟)【4월 일 봉심(奉審)】 진사 김영(金[玉+榮])【봉심】

1884년(고종 21) 2월 중정일(仲丁日)

원장 현감 정이원(鄭履源) 진신장의(摺紳掌議) 현감 기양연(奇亮衍)  
 진신강장(摺紳講長) 현감 신기조(申岐朝) 진신유사(摺紳有司) 찰방 최성재(崔成在)  
 유림강장(儒林講長) 변좌용(邊佐容) 장의 김정후(金鼎厚) 색장 안영문(安永文)  
 도내 장의 황달주(黃達周) 색장

224 정이원(1843-1899) : 연일(迎日) 정씨이다. 1876년(고종 13) 진사시에 입격하고, 1885년 증광시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장릉참봉, 형조좌랑, 태인현감, 부사과 등을 역임하였다. 이정직의 후임으로 도임하였고, 1885년에 '현감 정후이원 영세 불망비(縣監 鄭侯履源 永世 不忘碑)'가 현재의 피향정 경내에 세워져 있다.

강창흠(姜昌欽) 직월(直月) 양재윤(梁在允) 직일(直日) 김영렬(金永烈)

강수재 장의 색장 최병두(崔柄斗)·정규복(鄭圭福)

도내 장의 이현우(李軒宇) 색장 조인승(曹仁承)·한태엽(韓泰燁)

별고장의(別庫掌議) 유사 최윤오

진사 정태현(丁泰鉉)【3월 일 봉심(奉審)】중수유사(重修有司) 최규섭(崔奎涉)·김유환(金有煥)

신문(神門) 담장을 수리[修葺]

## 원규(院規)

1. 재(齋)에 들어가는 규정은 장유(長幼)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독서에 뜻을 두어 학문을 하는 자는 모두 들어갈 수 있다.
1. 들어간 뒤에 만일 위의(威儀)를 닦지 않거나 언동(言動)을 삼가지 않고 심지어 혹 처신을 잘못하고 행실을 그르쳐 선비의 풍모에 누를 끼치고 욕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재임(齋任)이나 여러 유생(諸生)이 회의를 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을 게시[揭罰] 하거나 서원에서 내쫓는다. 만일 과거에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가 먼저 과오를 고치고 행실을 신칙하도록 해서 그의 행위를 익히 살펴보아 그가 과실을 고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1.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재임은 재생을 거느리고 두건과 의복을 갖추고서 사당에 나아가 중문(中門)을 열고 분향(焚香)하고 재배한다. 만일 재임이 부재중이면 재중(齋中)의 연장자가 한다. 비록 초하루나 보름이 아니더라도 여러 유생 중에 만약 외부에서 새로 오거나 서원에서 하직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묘정(廟庭)에서 재배한다.
1.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여 포개두고, 빗자루로 방안을 청소하며, 재직에게 뜰을 쓸도록 하고 모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한다.
1. 이른 아침에 모두 두건과 의복을 갖추고 묘정에 나아가 중문은 열지 않은 채 재배만 하고, 밖으로 나가 동서로 나뉘어 서서 마주보고 읍양례(揖讓禮)를 행하고는 각자 물러나 재실로 나아간다.
1. 무릇 독서할 때는 반드시 용모를 가다듬고 똑바로 앉아 집중하여 뜻을 기울여 의리를 힘써 궁구해야지 서로 돌아보며 얘기해서는 안 된다.
1. 무릇 거처할 때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는 연장자에게 양보해야지 먼저 차지해서는 안 된다. 연장자가 출입할 때면 연소자는 반드시 일어난다.
1. 책상, 서책(書冊), 붓, 베풀 등의 물건은 항상 일정한 곳에 두고 혹시라도 정돈하지 않고 어지럽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담배, 침, 콧물이나 낙서로 창이나 벽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한, 신을 신고 마루에 올라서도 안 된다.

1. 평상시 항상 의관(衣冠)을 정제해야지 편한 옷으로 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또한 화려하고 지나치게 사치스런 복식을 입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구용(九容)<sup>225</sup>으로 몸가짐을 바로하고 구사(九思)<sup>226</sup>를 마음에 새겨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한 것처럼 시종일관 해이해지지 않도록 한다.

1. 성현의 글이나 성리설이 아니면 서원에서 펼치고 읽지 마라. 사서[史冊]는 들여움을 허락한다. 과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익히도록 한다.

1. 무릇 작문(作文)은 반드시 모두 의리(義理)에 바탕을 두어야지 이단(異端)의 해괴한 설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 글씨를 쓸 때에도 반드시 단정하게 또박또박 써야지 마음 내키는 대로 흘려 써서는 안 된다.

1. 무릇 언어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여 문자와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자(夫子)께서 괴이함·무력·패란·귀신(怪力亂神)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본보기로 삼는다. 또한, 범씨의 7계(戒)<sup>227</sup>를 명심하여 주목하도록 하라.

칠계 중 첫째는 ‘조정의 이해나 변경의 보고 및 관원의 임명을 말하지 않을 것’, 둘째 ‘주현(州縣) 관원의 장단점이나 득실을 말하지 않을 것’, 셋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나 나쁜 일을 말하지 않을 것’, 넷째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나 시류에 편승하여 권세를 붙잡는 말을 하지 않을 것’, 다섯째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거나 부(富)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여섯째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말, 농담이나 오만한 말, 여색을 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일곱째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찾는 말을 하지 않을 것’

1. 무릇 친구 간에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며 서로 실수를 바로잡고, 서로 선을 권하는

225 구용(九容) : 군자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몸가짐을 말한다. ①죽용중(足容重) ②수용공(手容恭) ③목용단(目容端) ④구용지(口容止) ⑤성용정(聲容靜) ⑥두용직(頭容直) ⑦기용숙(氣容肅) ⑧입용덕(立容德) ⑨색용장(色容莊)

226 구사(九思) : 군자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마음가짐을 말한다. ①시사명(視思明) ②청사충(聽思聰) ③색사온(色思溫) ④모사공(貌思恭) ⑤언사충(言思忠) ⑥사사경(事思敬) ⑦의사문(疑思問) ⑧분사난(忿思難) ⑨견득사의(見得思義)

227 범씨의 7계(戒) : 여기서 범씨는 중국 송나라 사람 범충(范冲, 1067~1141)으로, ‘익검’은 자(字)이고, 유학자이다. 그의 좌우명이 유명하다. 이 내용이 『소학(小學)』 「가언(嘉言)」에 있다.



데 힘쓸 것이며 신분이 높고, 부유하고, 견문이 넓음을 믿어서 동료에게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또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며 희롱해서도 안 된다.

1. 서적을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주색(酒色)은 문 안으로 들일 수 없다. 잡기(雜技)를 행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혀 글을 읽다가 밤이 깊으면 그제야 잠자리에 든다.
1. 새벽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반드시 일삼는 바를 두어 마음이 잠시도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 독서를 하거나 정좌(靜坐)하여 마음을 보존하거나 의리를 강론하는 것은 학업 상 중요한 것이 아님이 없으니, 이런 것을 위반한다면 학자가 아니다.
1. 때때로 집에 돌아가서도 삼가 서원에서 익힌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검속하며 사물을 응접함에 모름지기 하나하나 도리를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서원에 들어가선 닭고 신칙하다가 서원에서 나가선 방만하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니 (서원에서 지내도록) 용납할 수 없다.

## 백록동 오규(白鹿洞五規)【병서】<sup>228</sup>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애가 있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으며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

위는 오교(五敎)의 강목이다.

넌리 배우고, 상세히 따져 묻고, 신중히 사색하고, 명백히 가리고, 독실히 행하라.<sup>229</sup>

위는 궁리(窮理)의 요체이다.

말은 진실하고 믿음있게 행실은 독실하면서도 공경스럽게<sup>230</sup> 분노를 경계하고 욕심을 막고,<sup>231</sup> 선한 쪽으로 나아가고 잘못이 있으면 고친다.

위는 수신(修身)의 요체이다.

그 의리를 그대로 바르게 하고 이익은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그대로 밝히고 공은 따지지 않는다.<sup>232</sup>

위는 처사(處事)의 요체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sup>233</sup> 행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함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한다.

위는 접물(接物)의 요체이다.

주희 내가 가만히 옛 성현들이 사람에게 학문을 하도록 가르쳤던 뜻을 살펴보니, (모두가) 의리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의의를 밝히[講明] 자신을 닦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는 것[記覽]만 힘쓰고 사장(詞章)이나 공부 해서 성명(聲名)을 얻고 이익과 관록(利祿)이나 취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학

---

228 한국고전번역원의 『상변통고(常變通攷)』 권27, 학교례에 해석본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번역하였다.(<https://db.itkc.or.kr>).

229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

230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231 『주역(周易)』 「손괘(損卦) 상(象)」

232 『한서(漢書)』 권56, 「동중서전(董仲舒傳)」

233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문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이다. 그러나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던 방법은 모두 경전에 있으니, 뜻 있는 선비[士]가 진실로 잘 읽고 깊이 생각하며 묻고 구별하여 그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알아서 반드시 그대로 하겠다고 자신을 채찍질한다면[責], 어찌 규정이니 금지니 하는 도구를 남들이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뒤에야 이를 지켜서 따르겠는가! 근세에 와서는 배움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학자(學者)에 대한 대우가 이미 박한 것이며 그 만든 법 또한 반드시 옛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학당에서는 이를 다시 시행하지 않고, 단지 여러 성현들이 가르친 학문하는 방법 중의 중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조목 나열하여 써서 처마에 게시한다.

제군들이 이를 서로 강명하고 준수해서 자신에게 책임 지운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반드시 저런 강제적인 규정보다 한층 더 엄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고 혹 금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남이 있다면 이른바 규정이란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요 실로 생략할 수 없다. 제군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 강습례 집사(講習禮執事)

도집례(都執禮)<sup>234</sup> 창집례(唱執禮)<sup>235</sup> 직월(直月)<sup>236</sup> 직일(直日)<sup>237</sup> 전생(典牲)<sup>238</sup> 전부(典簿)<sup>239</sup>  
 조사(曹司)<sup>240</sup> 전서(典書)<sup>241</sup>

- 
- 234 도집례(都執禮) : 여러 집사를 통솔하여 강습례의 도식(圖式)에 따라 서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하 강습례 집사들의 세부 역할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박종배,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 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4, 2013, 129~130쪽)
- 235 창집례(唱執禮) : 강습례의 절차 때마다 홀기(笏記)를 외쳐 참석자들을 이끌었다.
- 236 직월(直月) : 당에 올라 「백록동규」를 읽는다.
- 237 진강(進講)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강생(講生)의 성명과 책의 이름, 문답한 내용을 적는 등 강안(講案)을 작성한다.
- 238 전생(典牲) : 강생(講生)이 강할 부분이 있는 찌를 준비한다.
- 239 전부(典簿) : 강안(講案)과 도식(圖式), 홀기 등의 문서를 담당하였다.
- 240 조사(曹司) : 원래는 벼슬에 갓 임용되어 일의 경험이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서안(書案) 왼쪽에 꿇어 앉아 강상이 강해야 할 부분이 적힌 찌를 뽑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241 전서(典書) : 진강(進講)할 유생의 명단을 적은 강단(講單)을 관리한다.

## 흘기(笏記)

- 학임(學任)이 재직(齎直)에게 명하여 자리를 펴고 장막을 치게 한다.
- 학임(學任)은 당(堂)의 북쪽 벽 아래에 남향으로 허위(虛位)<sup>242</sup>를 설치한다.
- 집례(執禮)가 중정위(中庭位)에 서서 흘기[笏]를 외친다.
- 강장(講長), 학임(學任), 여러 집사 및 유생은 각기 도포에 검은 두건[黑巾]을 갖추어 입고 들어와 침배위(瞻拜位)<sup>243</sup>로 나아간다.
- 집례가 학임, 여러 집사 및 유생을 한결같이 도식(圖式)에 따라 순서대로 서도록 지휘한다.
- 집례가 물리나 자리로 돌아간다.
- 강장 이하는 모두 재배(再拜)한다.
- 마치면 집례가 나아가 서서 흘기를 외친다.
- 강장은 서쪽 계단 위(位)의 자리로 간다.
- 학임은 동쪽 계단 위(位)의 자리로 간다.
- 여러 집사 및 유생은 각각 자리로 간다.
- 학임이 강장을 향해 절한다.
- 강장도 답하여 절한다.
- 여러 집사 및 유생이 강장을 향해 절한다.
- 강장은 답습(答揖)한다.
- 학임과 여러 집사는 서로 마주보며 절을 한다.
- 여러 집사 및 유생은 학임을 향해 절한다.
- 학임이 답배한다.
- 여러 집사 및 유생이 서로를 향해 절한다.

---

242 허위(虛位) : 제사를 지낼 때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紙榜)을 의미한다.

243 선조나 선현의 묘소 혹은 사당에 우러러 절하는 것을 침배(瞻拜)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그 위치를 의미한다.

- 집례가 먼저 중청위(中廳位)에 올라서서 홀기를 외친다.
- 강장은 서쪽 벽 아래 자리로 올라간다.
- 여러 집사는 따라 올라가서 각각의 자리로 간다.
- 학임은 동쪽 벽 아래 자리로 올라간다.
- 여러 유생은 그 다음에 올라가 각자 자리로 간다.
- 강장 이하는 모두 꿇어앉는다.
- 전서(典書)가 여러 유생의 명단[諸生講單]<sup>244</sup>을 모아 한 축(軸)으로 만든다.
- 직월(直月)이 집례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서 좌우를 돌아보며 “공경히 듣되 소란피워서 안된다”고 말한다.
- 직월이 뒤돌아 독규위(讀規位)에 꿇어앉아 큰 소리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는다.
- 읽기를 마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강장이 허위(虛位)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무릎 꿇어앉아 한 책을 읽는다.
- 읽는 것을 마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학임이 허위(虛位)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무릎 꿇어앉아 한 책을 읽는다.
- 읽는 것을 마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조사(曹司)가 나아가 서안(書案 ; 책을 엮던 책상) 왼쪽에 꿇어앉아 찌를 뽑아 강해야할 유생에게 보여준다.
- 강생이 책(卷)을 들고 서안(書案) 앞에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는다.
- 강장이 한 장(章)을 손으로 짚어 보여준다.
- 강생이 받아 읽는다.
- 읽기를 마치면 강장이 뜻을 묻고 강생은 공경히 대답한다. 강생이 의심나는 부분을 물으면 강장은 상세히 말해준다.
- 직일(直日)이 나아가 서안 앞에 꿇어앉아 강생의 이름과 강송한 책의 이름, 문답한

---

244 진강할 유생의 명단을 적은 것이다.

뜻을 적는다.

- 강생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여러 유생이 차례대로 나아가 강송한다.
- 여러 집사도 예에 따라 나아가 강송한다.
- 읽기를 마치면 강안(講案), 도식, 흘기를 정돈한다.
- 예를 마치면 차례대로 절하고 물러난다.
- 학임이 먼저 허위를 치우고 다음으로 재직에게 명하여 자리와 장막을 거두게 한다.



## 향음주례 창홀(鄉飲酒禮唱笏)<sup>245</sup>

- 길일(吉辰)을 택하여 향음주례(禮)를 행하기 하루 전에 주인(主人)이 빈(賓)에게 찾아가 빈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戒賓]<sup>246</sup>, 빈은 왕립함에 대해 절을 한다.[拜辱]<sup>247</sup>
- 주인이 답배하고, 청빈(請賓)한다.
- 빈은 예의상 사양(禮辭)하고, 허락한다.
- 주인이 재배(再拜)한다.
- 빈이 답배(答拜)한다.
- 주인이 물러나면 빈이 왕립함에 대해 절을 한다.
- 개(介)와 준(僎)<sup>248</sup>에게 하는 것 역시 이와 같다.
- 빈·주인·개·준·사정(司正)·삼빈(三賓)·삼당(三黨)<sup>249</sup>·중빈(衆賓)<sup>249</sup>의 자리를 그림과 같이 펴되 모두 이어서 퍼지 않는다.[不屬]<sup>250</sup>
- 방호(房戶) 사이에 준(尊)과 두 개의 호(兩壺)를 두는데, 받침대(斯禁)로 받친다. 서쪽에 현주(玄酒 ; 정안수)를 둔다.
- 받침대[禁] 남쪽에 대광주리[篚]를 동향으로 진열한다.[肆]
- 두 개의 호(壺)에는 작(勺) 두 개를 올려 둔다.
- 조계(阼階 ; 동쪽 계단) 동남쪽에 세(洗 ; 물 버리는 그릇)를 설치한다.
- 빈 이하는 제시간에 도착하여 모인다.
- 그날 동틀 무렵(質明)에 주인이 빈 이하를 인솔하고 먼저 선성 선사(先聖先師 ; 공

245 향음주례 때 부르는 홀기(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246 계빈(戒賓) : 행례할 날자를 정한 뒤 이를 빈(賓)에게 알려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247 배욕(拜辱) : 왕립함에 대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248 개준(介僎) : 향음주례 행사를 도와 주선하는 자를 뜻한다. 빈을 돕는 사람을 개(介), 주인을 돕는 사람을 준(僎)이라고 한다.

249 중빈(衆賓) : 빈 중에 여러 단계가 있다. 제일 뒷자리에 모실 분을 빈(賓), 그 다음을 개(介), 기타를 중빈(衆賓)이라고 한다.

250 불속(不屬) : 이어서 퍼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 연달아 앉지 않고, 모두 혼자 앉도록 하는 것으로 그들의 덕이 각자 뛰어난을 밝힌다는 뜻이다.

자와 안회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게 석채(釋菜)<sup>251</sup>를 지낸다. 선성 선사에게 고하기를, “아무개가 삼가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예법[禮]과 문물제도[文]를 협력하여 고찰하고 성현을 추앙하고 천명하는 제도에 대한 몸가짐과 겸손함<sup>252</sup>을 옛 제도[舊章]의 처음과 똑같이 하고자 감히 문묘[문묘]에 제사 지내는 예를 삼가 올리고자 경건하게 고합니다.”라고 한다.

- 물러나 각자 자리로 나아간다.
- 주인과 상(相)<sup>253</sup> 한 사람이 대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면서, 빈에게 재배하면 빈은 답배한다.
- 개와 준에게 절하고, 개와 준도 답배한다.
- 주인이 읍하면 먼저 들어간다.
- 빈은 개와 준에게 염(厭 ; 손으로 몸을 당겨서 읍하는 것)하고, 개와 준은 중빈(衆賓)에게 염하고 문으로 들어가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 자리한다.
- 주인과 빈이 세 번 읍하고 계단에 이르러 (서로 먼저 오르라고 권유하면)<sup>254</sup> 세 번 사양한다
- 주인이 오르면 빈도 오른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북향하여 재배한다.
- 빈은 서계(西階) 위에서 북향하여 답배한다.
- 주인이 자리에 앉아 대광주리[筐]에서 잔[爵]을 꺼내 세(洗)로 내려간다.
- 빈도 내려간다.
- 주인이 앉아서 계단 앞에 잔을 올리고, 사양[辭]한다

251 석채(釋菜) : 문묘에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252 몸가짐과 겸손함 : 주선(周旋)은 행례를 할 때 발걸음이 돌고 꺾이는 것이며, 읍손(揖遜)은 손은 모아 쥐고 상대에게 겸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몸가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한다고 보았다.

253 상(相) : 주인의 속리(屬吏)로, 행사를 돕고 명을 전하는 사람이다.

254 『개원례』에 주인이 “그대가 먼저 오르시기를 청합니다”고 하면, 빈은 “모(某)는 감히 사양합니다”고 한다. 주인이 “그대가 먼저 오르시기를 거듭 청합니다”고 하면, 빈은 “모(某)는 감히 거듭 사양합니다”고 한다. 주인이 “그대가 먼저 오르시기를 끝내 청합니다”고 하면, 빈은 “모(某)는 감히 끝내 사양합니다”고 한다.

- 빈이 대답한다.
- 주인이 앉아서 잔을 꺼내 일어나 세(洗)로 가서 남향하여 앉아 대광주리 아래에 잔을 두고 손을 씻는다.
- 빈이 동쪽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씻는 것을 사양한다.
- 주인이 앉아 대광주리에 잔을 두고 일어난다.
- 빈이 자리로 돌아와서 서서(西序)에서 동향[東面]한다.
-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잔을 든다.
- 상 한명이 서북향하여 잔을 씻는다.
- 주인이 (빈과 마주하여) 한 번 읍하고 한 번 사양한 뒤 (당에) 오른다.
- 빈이 (잔을) 씻은 것에 대해 절한다.
- 주인이 앉아서 잔을 올려 두고 그대로 절하고, 내려가 손을 씻는다.
- 빈이 (당을) 내려간다.
- 주인이 사양한다.
- 빈이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서서(西序)에 서서 손을 다 씻으면 (빈과) 서로 읍하고 사양한 뒤에 (당에) 오른다.
- 빈은 서쪽 계단 위에 바르게[疑]<sup>255</sup> 선다.
- 주인이 앉아서 잔을 가져다 술을 채워 빈의 자리 앞에서 서북향하고 빈에게 술을 올린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주인에게) 절한다.
- 주인이 조금 물러난다.
- 빈이 잔을 받으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절하고 잔을 보낸다.
- 빈이 조금 물러난다.
- 포와 젓갈을 올린다.

---

255 ‘의(疑)’ : 바르게 서서 스스로 안정된 모양이다

- 빈이 서쪽으로부터 자리로 오른다. (유사가) 절조(折俎 ; 고기를 썰어 도마 위에 올림)를 진설한다.
- 주인이 동쪽 계단의 동쪽에 바르게 선다.[疑]
- 빈이 앉아서 왼손으로 잔을 잡고, 포와 젓갈로 제(祭)를 지낸다. 잔을 포의 서쪽에 놓고 일어난다.
- 오른손으로 폐(肺)를 잡고 맛보고[臍] 일어나 (폐를) 조(俎)에 올려 둔다.
- 자리에 앉아 손을 씻는다.
- 마침내 술로 제를 지내고 일어난다.
- 자리의 끝에 앉아서 술을 맛보고[啐] 내려와 앉는다.
- (자리에) 앉아서 잔을 두고 절한다.
- 술맛이 좋다고 말한다.[告旨]
- 잔을 들고 일어선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빈에게) 답배한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북향하고 앉아 잔을 비우고 일어선다.
- 다시 앉아 잔을 두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선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빈에게 답배한다.
- 빈이 잔을 씻는 곳[洗]으로 내려간다.
- 주인도 내려간다.
- 빈이 앉아서 잔을 놓고 일어나서 사양한다.
- 주인이 대답한다.
- 빈이 앉아서 잔을 가지고 씻는 곳의 남쪽으로 가서 북향한다.
- 주인이 동쪽 계단의 동쪽에서 남향하여 (잔을) 씻는 것을 사양한다.
- 빈이 앉아 대광주리에 잔을 놓고 일어나서 대답한다.
- 주인이 동쪽 계단의 동쪽으로 돌아가서 서향한다.
- 빈이 동북쪽에서 손을 씻는다.
- (빈이) 앉아서 잔을 취해 씻는 일을 마친다.

- (주인이) 빈에게 한 번 읊하고, 한 번 사양하고 (당에) 오른다.
- 주인이 (잔을) 씻은 것에 대해 절한다.
- 빈이 답배하고 일어나서 내려가 손을 씻는다.
- 주인이 (당을) 내려간다.
- 빈이 사양하는 말을 한다.
- 주인이 대답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 빈이 주인의 자리 앞에서 잔에 술을 채워 동남쪽을 향해 주인에게 잔을 올린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절한다.
- 빈이 조금 물러난다.
- 주인이 나아가 잔을 받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절하고 잔을 보낸다.
- 포와 젓갈을 올린다.
- 주인이 북쪽에서부터 자리에 오르면, (유사가) 절조를 설치한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 바르게 선다.
- 주인이 앉아서 왼손으로 잔을 잡고 포와 젓갈로 제를 지낸다. 천의 동쪽에 잔을 놓고 일어난다.
- 오른손으로 폐(肺)를 잡고 맛보고[臍] 일어나 (폐를) 조(俎)에 올려 둔다.
- 앉아서 손을 씻고 마침내 술로 제를 지내고 일어난다.
- 자리 앞으로부터 동쪽 계단 위로 가서 북향하고 앉아서 잔을 다 비우고 일어난다.
- 앉아서 잔을 놓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답배한다.
- 주인이 앉아서 서(序)의 끝에 잔을 놓는다.
- 동쪽 계단 위에서 북향하여 재배하고 (잔에) 술을 가득 채운다.<sup>256</sup>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답배한다.

---

256 숭주(崇酒) : 술을 가득 채운다.

- 주인이 앉아 대광주리에서 치(觶)를 꺼내 세(洗)로 내려간다.
- 빈이 (따라서) 내려간다.
- 주인은 내려온 것에 대해 사양한다.
- 빈은 (주인이) 씻는 것에 대해 사양하지 않고, 서서(西序)에 서서 동향한다.
- (치를) 다 씻으면 읍양하고 (당에) 오른다.
- 빈은 서쪽 계단 위에서 바르게 선다.
- 주인은 치에 술을 채워 빈에게 권하고 동쪽 계단 위에서 북쪽을 향한다.
- 앉아서 치를 두고 절한다.
- 치를 들고 일어난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답배한다.
- 앉아서 제(祭)하고 치를 비운 다음 일어난다.
- 치를 놓고 그대로 절한다.
- 치를 잡고 일어난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답배한다.
- 주인이 잔을 씻는 곳[洗]으로 내려간다.
- 빈이 내려와 사양한다.
- 주인이 (치를) 씻은 후에 읍하고 사양하며 (당에) 오른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 선다.
- 주인이 치에 술을 가득 채워서 빈의 좌석 앞에서 북향한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 절한다.
- 주인이 조금 물러난다.
- (주인이) 앉아서 치를 천의 서쪽에 올린다.
- 빈이 사양한 다음에 앉아 치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절하고 치를 보낸다.
- 빈이 북쪽을 향하며 천의 동쪽에 앉아 치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읍하고 내려간다.
- 빈은 내려와 서쪽 계단에서 동쪽을 향하여 선다.

- 주인이 개에게 한 번 읊하고 한 번 사양하고 오른다.
- 주인이 재배한다.
- 개가 답배한다.
- 주인이 동서(東序)의 끝에 앉아 잔을 가져온다.
- 잔을 씻는 곳[洗]으로 내려간다.
- 주인이 (개가) 내려오는 것을 사양한다.
- 개가 (주인이) 잔을 씻는 것을 사양한다.
- 개가 서쪽 계단 위에 선다.
- 주인이 개의 자리 앞에서 잔에 술을 채워서 서남쪽을 향하고 개에게 잔을 올린다.
- 개가 서쪽 계단 위에서 북향하여 절한다.
- 주인이 조금 물러난다.
- 개가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잔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오른쪽에서 북향하여 절하고 잔을 보낸다.
- 개가 조금 물러난다.
- 주인은 서쪽 계단의 동쪽에 선다. (유사가) 포와 젓갈을 올린다.
- 개가 북쪽으로부터 자리로 오른다. (유사가) 절조를 설치하고, 포와 젓갈로 제를 지낸다.
- 개가 남쪽으로부터 자리에 내려가 북향하여 앉는다.
- 잔을 비우고 일어난다.
- 앉아서 잔을 올리고 절한다.
- 잔을 들고 일어난다.
- 주인이 개의 오른쪽에서 답배한다.
- 개가 내려와 (잔을) 씻는다.
- 주인이 다시 동쪽 계단에서 내려온다.
- 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 사양한다.
- 주인이 답한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선다.



- 개가 잔을 씻는다.
- 주인도 손을 씻는다.
- 개가 읍하고 사양하고 (당으로) 올라 두 기둥 사이에서 주인에게 잔을 올린다.
- 개가 서쪽 계단 위에 선다.
- 주인이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서쪽 계단 위에서 준다. (주인이) 개의 오른쪽에 앉아서 잔을 올리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개가 답배한다.
- 주인이 앉아서 잔을 비우고 일어난다.
- 자리에 앉아 잔을 올리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개가 답배한다.
- 주인이 앉아서 잔을 서쪽 기둥의 남쪽에 두고, 개의 오른쪽에서 재배하고 술을 가득 채운다.
- 개가 답배한다.
- 주인이 다시 동쪽 계단으로 돌아와서 읍하고 내려온다.
- 개가 내려와서 빈의 남쪽에 선다.
- 주인이 서남쪽을 향하여 삼빈(三賓)에게 3번 절한다.
- 삼빈 모두 답하여 한 번 절한다.
- 주인이 읍하고 올라가 앉아서 서쪽 기둥 아래에서 잔을 가지고 내려가서 씻고 올라온다.
- (주인이) 서쪽 계단 위에서 잔을 가득 채우고 삼빈에게 드린다.
- 삼빈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長]이 (당에) 올라서 절하고 차례로 잔을 받는다.
- 주인이 절하고 잔을 보낸다.
- 그 자리에서 (유사가) 포와 젓갈을 올린다.
- 삼빈은 앉아서 제를 지내고 서서 (술을) 마시는데 절은 하지 않는다.
- 이미 다 마신 잔[既爵]을 주인에게 주고 (당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중빈에게 잔을 드린다.
- (중빈에게) 두루 포와 젓갈을 준다.
- 중빈은 잔을 받으면 앉아서 제를 지내고 서서 (술을) 마신다.
- 주인은 잔을 들고 내려와 대광주리에 올린다.
- (주인이) 읊하고 사양하고 (당에) 오른다.
- 빈은 개에게 염(厭)<sup>257</sup>하고 오른다.
- 개는 중빈에게 염하고 (당에) 오른다.
- 중빈은 차례로 올라 자리로 나아간다.
- 주인을 돕는 상 한명이 잔을 씻어서 올라간다.
- 치에 (술을) 가득 채워서 서쪽 계단에 앉아 치를 두고 절한다.
- 치를 잡고 일어난다.
- 빈이 자리 끝에서 답배한다.
- 앉아서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신다.
- 치를 비우고 일어난다.
- 앉아서 치를 두고 일어난다.
- 상이 절하고 치를 들고 일어난다.
- 빈이 답배한다.
- 상이 내려와 잔을 씻고 오른다.
- 서쪽 계단 위에서 (술을) 치에 가득 따른다.
- 빈이 절한다.
- 상이 앉아서 천의 서쪽에 치를 둔다.
- 빈은 사양하고 앉아서 잔을 받고 일어난다.
- 상이 서쪽 계단 위에서 절하고 잔을 보낸다.
- 빈이 자리에 앉아서 그곳에 치를 둔다.

---

257 염(厭) : 손을 안으로 당기는 것이다.

- 상이 내려온다.
- 당의 옆(堂簾)에 자리를 설치하는데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 악정(樂正)<sup>258</sup>이 먼저 올라 서쪽 계단의 동쪽에 선다.
- (악)공[工人]<sup>259</sup> 4명이 들어와 서쪽 계단으로부터 올라가 북향하여 앉는다.
- 악공 2명이 동쪽을 향해 앉아 북과 비파를 탄다.
- 악공 2명과 노래하는 사람이 녹명(鹿鳴)과 사모(四牡)와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한다.<sup>260</sup>
- 연주와 노래가 끝나면 주인이 악공에게 술을 드린다.
- 악공이 비파를 왼쪽에 놓고 악공 중 한 사람이 절하고 일어나지 않은 채 잔을 받는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절하고 잔을 보낸다.
- 포와 젓갈을 올리고 사람을 시켜 제를 돕게 한다.
- 악공들이 (술을) 마시고 절하지 않는다.
- 잔을 다 비우면 주인에게 잔을 준다.
- 여러 악공들에게 잔을 주고 제가(祭歌)한다.
- 포와 젓갈을 두루 준다.
- 생황을 부르는 악공들이[笙] 들어와 당 아래에서 경(磬)의 남쪽에서 북향하고 선다.  
악공이 남해(南陔)·백화(白華)·화서(華黍)를 연주한다.<sup>261</sup>
- 주인이 서쪽 계단 위에서 (술을) 드린다.
- 한 명이 계단에서 절하고 잔을 받는다.

258 악정(樂正) : 악공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259 원문에는 공(工) 혹은 공인(工人)으로 표기되었지만, 앞으로 악공으로 번역하겠다.

260 녹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는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가사이다. 녹명은 임금이 여러 신하를 불러 잔치를 베풀 때 부르던 노래이다.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귀한 손님을 초빙했을 때 불렀다고 한다. 사모는 임금이 사신이 온 것을 위로할 때 부르던 노래이다. 황황자화는 임금이 사신을 보낼 때 연주하는 것이다.

261 남해(南陔)·백화(白華)·화서(華黍)는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가사이다. 남해는 효자가 서로 격려하여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뜻이다. 백화는 효자의 결백, 화서는 계절이 순조롭고 그 해 풍년이 든 것을 기리는 내용이다.

- 주인이 절하고 잔을 보낸다.
- 계단 앞에 앉아서 제를 지내고 서서 (술을) 마신다.
- 올라가서 주인에게 잔을 준다.
- 생황을 부는 사람들[衆工]이 잔을 받고 앉아서 제를 지내고 서서 (술을) 마신다.
- 두루 포와 젓갈을 가져다준다.
- 이에 번갈아 노래하는데[間歌]<sup>262</sup> 어리(魚麗)<sup>263</sup>를 노래하고 생황으로 유경(由庚)<sup>264</sup>을 연주한다. 남유가어(南有歌魚)<sup>265</sup>를 노래하고 생황으로 송구(崇丘)<sup>266</sup>를 연주한다. 남산유대(南山有臺)<sup>267</sup>를 노래하고 생황으로 유의(由儀)<sup>268</sup>를 연주한다.
- 합동으로 연주할 때[合樂]<sup>269</sup>에는 주남(周南)의 관저(關雎)와 갈담(葛覃)과 권이(卷耳)이고,<sup>270</sup> 소남(召南)의 작소(鵲巢)와 채번(采芣)과 채빈(采芣) 등이다.<sup>271</sup>
- 악공이 악정에게 고하기를 “정가(正歌)가 모두 연주되어 끝났습니다.”
- 악정이 빈에게 고하고 곧 내려온다.
- 주인이 자리 남쪽에서 내려가되 혼자 내려온다.
- 주인이 상에게 사정(司正)을 맡도록 한다.
- 사정이 예로써 사양하고 허락한다.

262 『향음주의(鄉飲酒義)』의 주(註)에 “간가(間歌)라는 간(間)의 뜻은 교대하는 것인데, 생(笙)과 노래가 모두 끝나면 당상과 당하에서 교대로 연주하는 것이다.”라고 한다.(『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28일 기유)

263 어리(魚麗)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가사이다. 연회를 할 때 빈객을 접대하면서 사용하는 음악이다.

264 유경(由庚)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편명이다. 생황으로 연주하는 경음악이다.

265 남유가어(南有歌魚)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가사이다. 잔치를 벌일 때 자주 나오는 음악이다.

266 송구(崇丘)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제목이다. 생황으로 연주하는 시이다.

267 남산유대(南山有臺)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시이다. 잔치를 벌일 때 자주 나오는 음악이다.

268 유의(由儀)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있는 제목이다. 생황으로 연주한다.

269 합악(合樂) : 가락과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곡조이다.

270 주남(周南)·관저(關雎)·갈담(葛覃)·권이(卷耳) : 『시경(詩經)』 「국풍(國風)」에 나온다. 관저는 부부의 금슬을 의미하고, 갈담은 후비(后妃)의 덕이 높고 현모양처가 된 것을 노래한 것이고, 권이는 후비가 왕을 걱정하는 것이다.

271 소남(召南)·작소(鵲巢)·채번(采芣)·채빈(采芣) : 『시경(詩經)』 「소남(召南)」편에 있다. 작소는 덕에 감화되어 풍속이 교화되는 것이다. 채번은 채후의 부인들이 후비의 덕에 감화된 것이다. 채빈은 채후국의 부인들이 감화되어 집안의 제사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 주인이 절한다.
- 사정이 답배한다.
- 주인이 올라가서 자리로 돌아간다.
- 사정이 치를 씻어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동쪽 계단의 위에서 북향하고 주인에게 명을 받는다.
- 주인이 빈에게 편안히 하시라고 청하며 말한다.
- 사정이 빈에게 고한다.
- 빈은 예로써 사양하고 허락한다.
- 사정이 주인에게 알린다.
- 빈이 서쪽 계단 위에서 답배한다.
- 사정이 기둥 사이에 서서 서로 절한다.
- 주인과 사정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 사정이 치에 (술을) 채워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북향하고 앉아 치를 둔다.
- 물러나 공수(拱手 ; 공손하게 손을 잡음)하고 조금 서 있다가 앉아서 치를 들고 (술을) 마신다.
- 일어나서 치를 두고 절한다.
- 치를 들고 일어난다.
- 치를 씻고 북향하여 앉는다.
- 치를 그곳에 올린다.
- 물러나 치의 남쪽에 선다.
- 빈이 북향하고 앉아 도마의 서쪽에 있는 치를 가지고 동남향하여 주인에게 잔을 올린다.
-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와 빈의 동쪽에 선다.
- 빈이 앉아서 치를 두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주인이 답배한다.
- 빈이 치에 술을 채워 동남향하여 주인에게 준다.

-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서 절한다.
- 빈이 조금 물러난다.
- 주인이 치를 준다.
- 빈은 주인의 서쪽에서 절하고 (치를) 보낸다.
- 빈이 읍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서쪽에서 개에게 술을 준다.
- 개는 동쪽에서 내려와 주인의 서쪽에 선다.
- 주인은 절하고 잔을 보낸다.
- 개가 답배한다.
- 주인이 읍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사정이 올라가 차례[旅]를 살피고 “아무개는 잔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 중빈은 자리에서 내려간다.
- 사정이 뒤로 물러나 서서의 끝에서 동향하고 선다.
- 중빈은 개의 오른쪽에서 절한다.
- 사정은 답배하고 일어난다.
- 중빈은 잔을 받아 절하고 (술을) 다 마신다.
- 자리에서 내려와 치를 대광주리에 둔다.
- 사정이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간다.
- 당준(黨僊)이 치를 씻고 올라가 서쪽 계단 위에서 치에 가득 채우고, 모두 치를 두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빈과 개가 답배한다.
- 당준은 앉아서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고 일어난다.
- 앉아서 치를 두고 절한다.
- 잔을 잡고 일어난다.
- 빈과 개가 답배한다.
- 당준이 역순으로 내려가[逆降] 치를 씻고 오른다.

- 치에 (술을) 채워서 모두 서쪽 계단 위에 선다.
- 빈과 개가 모두 절한다.
- 당준은 모두 나아가 천의 서쪽에 치[之]를 올린다.
- 빈이 사양하고 앉아 치를 가지고 일어난다.
- 개가 천의 남쪽에 치를 둔다.
- 개가 앉아서 받고 일어나 물러난다.
- 당준은 모두 절하여 치를 보내고 내려간다.
- 빈과 개가 (치를) 그 곳에 둔다.
- 사정이 자리에서 나와 북쪽을 향해 서서 말하기를, “우러러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옛날의 제도[舊章]를 따라 예교(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향음주례(鄉飮酒禮)를 거행하게 되니, 오로지 음식(飮食)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릇 우리들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권면(勸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親]에게 효도하고, 안으로는 규문(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는 향당(鄉黨)에 친밀(親密)하며 서로 훈고(訓告)하고, 서로 교회(敎誨)하여 혹시 과실과 나태(懶怠)함으로써 그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시오.”한다.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배한다.
- 사정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주인에게 명을 받는다.
- 주인이 “빈에게 좌정하시라고 청하십시오”라고 한다.
- 빈이 도마가 있다는 이유로 사양한다.
- 주인이 도마를 치울 것을 청한다.
- 사정이 올라가서 서서의 끝에 선다.
- 빈이 자리에서 내려와 북향한다.
- 주인이 내려와 동쪽 계단 위에서 북향한다.
- 개가 자리에서 내려와 서쪽 계단에서 북향한다.
- 당준이 자리로 내려와 동남향한다.
- 빈이 도마를 가지고 와서 사정에게 준다.
- 사정이 (도마를 들고) 내려오면 빈이 따른다.
- 주인이 도마를 가지고 제자(弟子)에게 준다.

- 제자가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 개가 도마를 가지고 제자(弟子)에게 준다.
- 제자가 내려온다.
- 개가 따른다.
- 중빈과 개가 모두 내려온다.
- 신을 벗고[脫屣] 읊하고 사양하며 (당에) 올라서 앉는다.
- 이에 음식을 차린다.
- 마음껏 마신다.(잔을 끝없이 돌린다.)
-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음악을 계속 연주한다.
- 빈이 연회를 마치고 나갈 때 해하[陔夏]를 연주한다.
- 주인은 문밖으로 가서 재배한다.
- 다음날 빈이 향복(鄉服)으로 갈아입고,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한다.
- 주인이 빈과 같은 옷을 입고 방문한 것에 감사의 인사를 한다.
- 주인이 옷을 벗고 마침내 휴식한다.
- 사정이 포와 젓갈을 올리고 선생과 군자에게 고해도 괜찮다.

일. 마땅히 향음[飮]에 나올 사람의 명부[簿]를 비치[置]한다.

일. 향음에 나올 사람은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과 2품 이상의 관원을 예(禮)로써 모두 청하고, 그 외의 사람은 열위(列位)로 청하며, 70세 이상의 사람은 배례[禮]를 면제하게 한다.

일. 행례(行禮)<sup>272</sup>가 기일[期]이 있으므로, 질병[疾]과 사고[故]가 있어서 능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은 기일 전에 서장[狀]을 갖추어 말하여 면제한다.

일. 향음주(鄉飮酒)를 설행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은 이를 높이고, 유덕(有德)한 사람

---

272 행례(行禮) : 제사 등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을 높이고, 예양(禮讓)을 일으키는 것인데, 감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과 잔을 높이 든 사람이 있으면, 예절로써 이를 책망하고, 그 혹시 이 때문에 실례(失禮)한 사람은 그 명부를 삭제한다.

일. 사정(司正)은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이를 삼고, 상자(相者)는 예절에 익숙한 사람으로써 이를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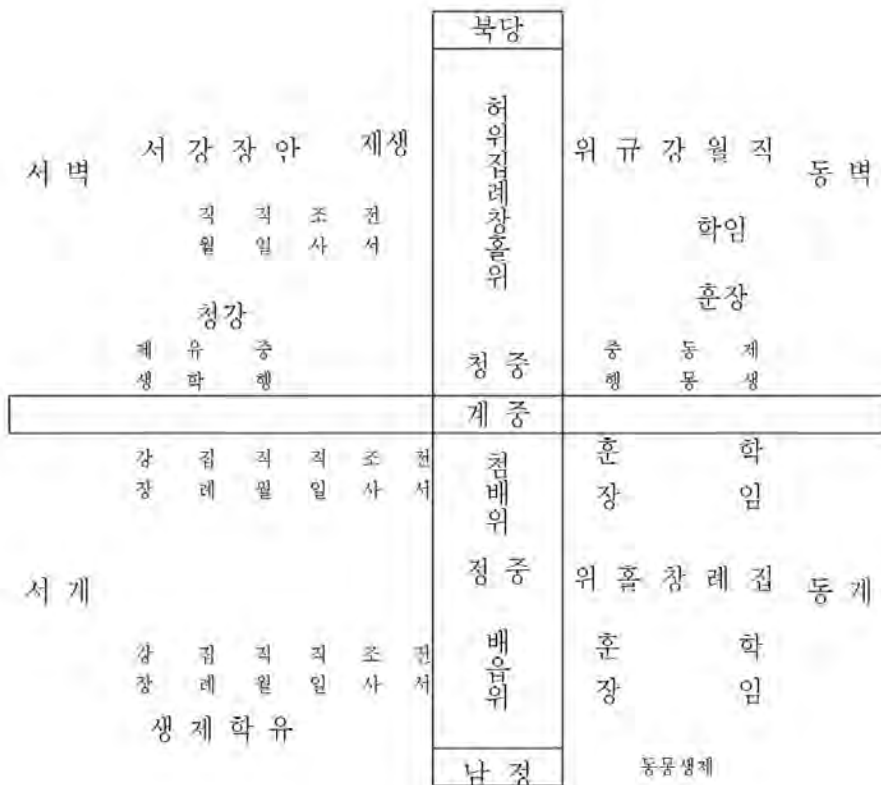
일. 술과 안주는 참작하여 헤아려 마련하되, 풍성하고 검소함을 적당하게 한다.

일. 기일 전에 술을 빚고 포를 갖추고, 하루 전에 당의 동쪽 아래에서 개를 삶아 향음주례의 음식을 갖추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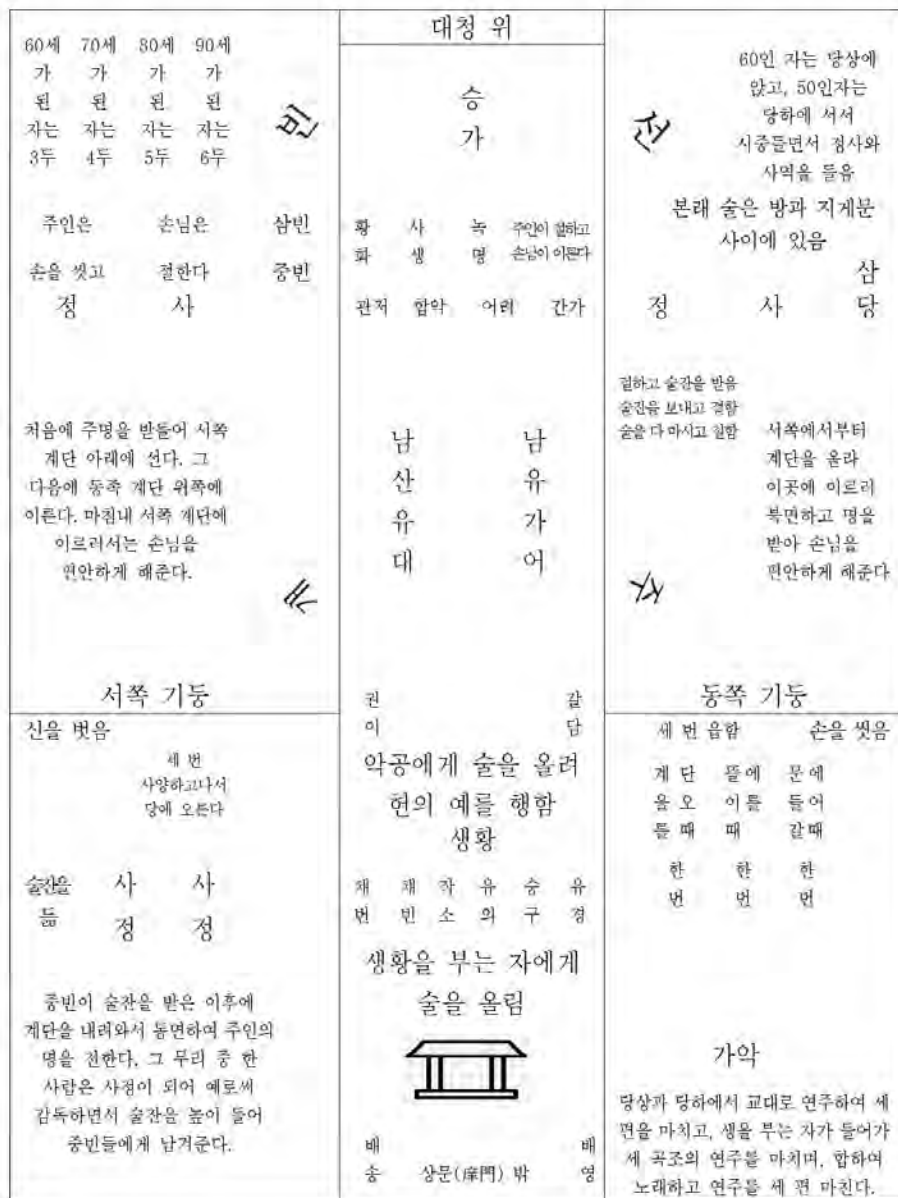
## 강습례 절목(講習禮節目)

1. 학임(學任)은 곧 서원(齋中)의 주인이고 강장(講長)은 곧 서원의 손님이다. 본디 마땅히 예로써 서로 공경해야 하므로 한결같이 향음주의(鄉飲酒儀)에 의거하여 주인은 동남쪽에 손님은 서북쪽에 앉는 예를 따르고 이로써 차례[班次]로 삼는다.
1. 나이가 많고 적은 순서는 곧 오교(五敎 ; 오륜) 중 하나이다. 하물며 나이로 자리를 양보하는 (향음주의의) 자리에서는 더욱이 마땅히 그 순서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 여러 집사와 유생은 각각 나이순대로 서거나 앉되, 혹 어지럽게 섞이어 순서를 잃어서는 안 된다.
1. 훈장은 한 면(의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이니 학임 다음에 서서 한결같이 학임의 예에 따라 절하고 읊한다.
1. 40세 이상으로 와서 참관하는 사람은 별도로 청강(廳講)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우한다.
1. 도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당 위의) 좌석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되, 동몽(童蒙)은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 설강도(設講圖)



#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 삼강발문록(三綱發文錄)

승지 안대규 공(安公大規)【순흥인 문의공(文懿公) 휘 문개(文凱) 후손】충절로 국기의  
은전을 입음  
처사 김경흠(金景欽)【명천(鳴川) 선생 후손】재주와 학문으로 관찰사가 추천함  
강재효(姜在孝)【문양공(文良公) 휘 희맹(希孟) 후손】효행으로 관찰사가 추천한 일  
이병덕(李秉德)【일재(一齋) 선생 후손】재주와 학문으로 관찰사가 추천한 일  
해주인 오두업(吳斗業)의 처 순흥 안씨(順興安氏) 열행(烈行)  
규정공(糾正公) 후손 박성래(朴成來) 처 대구 서씨(大丘徐氏) 열행(烈行)  
매헌 선생(梅軒先生) 후손 권철규(權哲圭) 처 강진김씨(康津金氏) 열행(烈行)  
순흥인 안재익(安在益) 처 전의 이씨(全義李氏) 열행(烈行)  
박수창(朴粹昌), 박수민(朴粹敏) 형제【함양인 수심재(收心齋) 후손】효행과 우애  
안재호(安在護)【문의공(文懿公) 후손】재주와 학문으로【관찰사 추천】변상문(邊相文)  
【망암(望菴)선생 후손】효행(孝行)  
김교환(金敎煥)【경주인 제숙공(齊肅公) 후손 효로 관찰사 추천】하상년(河相年)【진주인  
형제】효행과 우애  
정진태(丁鎭兌)【불우헌(不憂軒) 선생 후손】효행(孝行) 권중철(宋鍾轍)【눌암(訥庵) 선생  
후손】효행(孝行)  
이용필(李鏞弼)【익주인 남촌(南村) 선생 후손】재행(才行) 강재철(姜在哲)【진주인】효행  
(孝行)  
박주진(朴周鎭)【규정공(糾正公) 후손】효행(孝行) 최남휴(崔南休)【만육(晩六) 선생 후손】  
효행(孝行)  
하기석(河基錫)【진주인】효행(孝行) 임충수(林衷洙)【나주인】효행(孝行)  
최택현(崔澤鉉)【만육(晩六) 선생 후손. 효행으로 관찰사가 추천】진익복(陳翼福)【여양  
(驪陽)인】효행(孝行)  
우제철(禹濟喆)【단양인 역동(易東) 선생 후손. 7세에 부모의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자름【斷指】】효행(孝行) 관찰사가 추천

진사(進士) 서학권(徐鶴權)【장성인(長城人) 절효(節孝) 선생 후손】재학(才學)【관찰사가  
추천】하는 일

임진왜란 순절공신(殉節功臣) 황윤기 공(黃允器)【방촌(厓村) 선생 후손】포충(褒忠)  
하는 일

## 진설도(陳設圖)

녹포(鹿脯 ; 사슴고기로 만든 포) 율황(栗黃 ; 밤나무 열매) 축(燭) 작(爵)

어포(魚脯) 형염(刑鹽 ; 제사를 위해 호랑이 문양으로 만든 소금)

보도(簠稻 ; 도(稻)를 담은 보(簠)) 건조(乾棗 ; 말린 대추) 방보(方簠)

신위(神位) 시성(豕脰 ; 생 돼지고기) 향로(香爐) 작(爵)

퀘서(簠黍 ; 서(黍)를 담은 퀘(簠)) 원보(圓簠)

어해(魚醢 ; 물고기 젓갈) 청저(菁菹 ; 무 김치) 축(燭)

녹해(鹿醢 ; 사슴고기 젓갈) 근저(芹菹 ; 미나리 김치) 작(爵)

## 제물목록(祭物目錄)

향 1봉(封) 대동청(大同廳) 폐백(幣帛) 52척(尺) 5촌(寸) 대동청(大同廳)  
황촉(黃燭) 14병(柄) 관청(官廳) 도미(稻米) 1두(斗) 7승(升) 5합(合) 관청(官廳)  
녹포(鹿脯; 사슴고기 포) 21조(條) 맥미(麥米) 1두(斗) 7승(升) 5합(合)  
석어(石魚; 조기) 3속(束) 5개(介) 황을(黃栗) 1두(斗) 5합(合)  
대소(大召; 대추) 1두(斗) 5합(合) 형염(刑鹽) 1두(斗) 5합(合)  
어해(魚醢) 1두(斗) 5합(合) 곡자(曲子; 누룩) 3원(員) 관청(官廳)  
진묵(眞墨) 1정(丁) 관청 백필(白筆) 1병(柄) 공고(工庫)  
축석(祝席) 1립(立) 공고(工庫) 축장지(祝壯紙) 1장(張) 고청(雇廳)  
유장지(油壯紙) 7장(張) 고청(雇廳) 청저(菁菹) 1두(斗) 5합(合) 원두한(圓頭汗)<sup>273</sup>  
돼지(豕) 2구(口) 사창(司倉) 근저(芹菹) 1두(斗) 5합(合) 원두한(圓頭汗)

---

273 원두한(圓頭汗) : 발에 심은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 제기목록(祭器目錄)

- 뚜껑과 받침이 있는 향로(香爐) 21개
- 향합(香盥) 7개
- 유촉(鋤燭) 7쌍
- 주준(酒樽) 2좌
- 주잔(酒盞) 21좌
- 잔반(盞盤) 21좌
- 뚜껑과 받침이 있는 유보(鋤篋) 14개
- 뚜껑과 받침이 있는 유궤(鋤篋) 14개
- 변(簋) 21개
- 두(豆) 21개
- 주척(酒尺) 1개

## 답안(答案)

자호가 부자(府字)인 4두락(斗落) 성자동(聖子洞) 자호가 두자(杜字)인 6두락(斗落) 3두락(斗落) 서죽평(西竹平)

자호가 공자(公字)인 5두락(斗落) 굴어평(屈於坪) 자호가 공자(公字)인 2두락(斗落) 효자문평(孝子門平)

자호가 부자(府字)인 2두락(斗落) 자우평(雌牛坪) 자호가 벽자(壁字)인 8두락(斗落) 죽사동(竹寺洞)

자호가 칠자(漆字)인 2두락(斗落) 석우평(石隅坪) 자호가 상자(相字)인 8두락(斗落) 동산평(東山平)

자호가 예자(隸字)인 5두락(斗落) 행정평(杏亭坪) 자호가 칠자(七字)인 1두락(斗落) 세수동(細遂洞)

자호가 칠자(七字)인 2두락(斗落) 세적동(細笛洞) 자호가 나자(羅字)인 면화 밭[綿田] 3두락(斗落) 화랑평(花郎平)

자호가 나자(羅字)인 2두락(斗落) 화랑평(花郎平) 자호가 경자(傾字)인 면화 밭[綿田] 3두락(斗落) 내장보평(內藏塚平)

원대(院堡) 자호가 종자(鍾字) 수조(收租) 1석(石) 6두(斗) 5승(升)

**원생록(院生錄)** 원정액[元定] 30인으로 정함

신석흥(申碩興) 김일록(金逸祿) 전룡길(全龍吉)

김정홍(金正弘) 윤창열(尹昌烈)

지난해(過年) 신석흥(申碩興)

삭분향(朔焚香) 전룡길(全龍吉)

망분향(望焚香) 김일록(金逸祿)

## 원지 유사록(院誌有司錄)

|                 |             |        |          |
|-----------------|-------------|--------|----------|
| 도유사 삼례 찰방(參禮察訪) | 최성재(崔成在)    | 서사(書寫) | 김기흠(金機欽) |
|                 | 유학 김요승(金堯昇) |        | 황증주(黃証周) |
|                 | 송정순(宋程淳)    |        | 손규선(孫奎先) |
| 발문              | 이계호(李啓鎬)    |        | 안익환(安益煥) |
|                 | 이승호(李承灝)    |        | 최중권(崔中權) |
|                 | 김낙흠(金樂欽)    |        | 권종림(權鍾林) |
|                 | 김영로(金永瑤)    | 감인(監印) | 김직흠(金稷欽) |
|                 | 황기환(黃基煥)    |        | 정종구(鄭鐘龜) |
| 청서(請序)          | 김용조(金龍祖)    |        | 장석배(張碩培) |
|                 | 변길용(邊吉容)    |        | 김병순(金炳淳) |
|                 | 정영관(丁永權)    |        | 정상현(丁相鉉) |
| 교정              | 김영조(金永朝)    |        | 안요석(安堯錫) |
|                 | 송원호(宋元浩)    |        | 최영섭(崔榮涉) |
|                 | 배기만(裴基萬)    |        | 최경원(崔鏡源) |
| 장재(掌財)          | 김형식(金亨植)    |        |          |
|                 | 우재호(禹在鎬)    |        |          |
|                 | 송희옥(宋曦玉)    |        |          |

1884년(고종 21) 6월 일에 무성서원에서 개간함

무성서원원지 하(武城書院院誌下)





## 文昌侯崔先生檄黃巢書

廣明二年七月八日 諸道都統檢校太尉某 告黃巢  
夫守正修常曰道 臨危制變曰權 智者成之於順時  
愚者敗之於逆理 然則雖百年係命 生死難期 而萬  
事主心 是非可辨 今我以王師則有征無戰 軍政則  
先惠後誅 將期剋復上京 固且敷陳大信 敬承嘉論  
用戢奸謀 且汝素是遐氓 驟爲勍敵 偶因乘勢 輒敢  
亂常 遂乃包藏禍心 竊弄神器 侵凌城闕 穢黷宮闈  
既當罪極滔天 必見敗深塗地 噫 唐虞已降 苗扈不  
賓 無良無賴之徒 不義不忠之輩 爾曹所作 何代而  
無 遠則有劉曜·王敦覬覦晉室 近則有祿山·朱泚吠  
噪皇家 彼皆或手握強兵 或身居重任 叱咤則雷奔  
電走 喧呼則霧塞煙橫 然猶暫逞奸圖 終殲醜類 日  
輪闊輾 豈縱妖氛 天綱高懸 必除兇族 況汝出自閭  
閻之末 起於隴畝之間 以焚劫爲良謀 以殺傷爲急  
務 有大愆可以擢髮 無小善可以贖身 不惟天下之  
人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 縱饒假氣遊  
魂 早合亡身奪魄 凡爲人事 莫若自知 吾不妄言 汝  
須審聽 比者我國家德深含垢 恩重棄瑕 授爾節旄  
寄爾方鎮 爾猶自懷鳩毒 不斂梟聲 動則齧人 行惟  
吠主 乃至身負玄化 兵纏紫微 公侯則奔竄危途 警  
蹕則巡遊遠地 不能早歸德義 但養頑兇 斯則聖上  
於汝有赦罪之恩 汝則於國有辜恩之罪 必當死亡  
無日 何不畏懼于天 況周鼎非發問之端 漢宮豈偷  
安之所 不知爾意終欲奚爲 汝不聽乎 道德經云 飄  
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  
又不聽乎 春秋傳曰 天之假助不善 非祚之也 厚其

凶惡而降之罰 今汝藏奸匿暴 惡積禍盈 危以自安  
迷以不復 所謂鷲巢幕上 漫恣騫飛 魚戲鼎中 卽看  
焦爛 我緝熙雄略 糾合諸軍 猛將雲飛 勇士雨集 高  
旌大旆 圍將楚塞之風 戰艦樓船 塞斷吳江之浪 陶  
太尉銳於破敵 楊司空嚴可稱神 旁眺八維 橫行萬  
里 既謂廣帳烈火 爇彼鴻毛 何殊高舉泰山 壓其烏  
卵 卽日金神御節 水伯迎師 商風助肅殺之威 晨露  
滌昏煩之氣 波濤既息 道路卽通 當解纜於石頭 孫  
權後殿 佇落帆於峴首 杜預前驅 收復京都 剋期旬  
朔 但以好生惡殺 上帝深仁 屈法申恩 大朝令典 討  
官賊者不懷私忿 諭迷途者固在直言 飛吾折簡之  
詞 解爾倒懸之急 汝其無成膠柱 早學見機 善自爲  
謀 過而能改 若願分茅列土 開國承家 免身首之橫  
分 得功名之卓立 無取信於面友 可傳榮於耳孫 此  
非兒女子所知 實乃大丈之事 早須相報 無用見疑  
我命戴皇天 信資白水 必須言發響應 不可恩多怨  
深 或若狂走所牽 猶將拒轍 酣眠未寤 固欲守株 則  
乃熊批豹拉之師 一麾撲滅 烏合鴟張之衆 四散分  
飛 身爲齊斧之膏 骨作戎車之粉 妻兒被戮 宗族見  
誅 想當燃腹之時 必恐噬臍不及 爾須酌量進退 分  
別臧否 與其叛而滅亡 曷若順而榮貴 但所望者 必  
能致之 勉尋壯士之規 立期豹變 無執愚夫之慮 坐  
守狐疑 某告

## 靈川申先生碑文<sup>274</sup>

余閑居田里 門雀可羅 一日坐竹間小齋 有二生布衣博帶 頽然其貌 懷小刺求見 乃金上庠元 白上庠三龜也 二生之言曰 吾等世居泰仁 請言吾太守申侯之爲政焉 吾邑當輪蹄走集之地 人稀而事殷 役繁而賦夥 緩之則廚傳 急之則怨咨 與兩俱病焉 而理鮮得宜 侯於甲辰歲初 分左符下車之日 首開宿弊之爲民害者 釐革立盡 孜孜於撫摩 斤斤於聽斷 律已以嚴 待人以恕 民乃悅服 歌頌始起 侯曰 未也 子游氏之爲武城也 以禮樂爲教 而夫子喜之 此乃古今牧民之良法 而後世德教之澤不流 率以刑法束縛而操切之 故淳風美俗 罕或見之 吾但規規於法道之末而已乎 於是 慨然以興學變俗爲意 令於坊曲 各設局堂 印<sup>275</sup>藏書冊 豐其餼廩 聚鄉人俊秀者 擇師而教之 以至恤孤寡 崇節義 勵廉恥 躬淳篤之行 而闡化導之方 豪胥猾吏 亦莫不縮頭革心而樂趨於善 不期年而闔境大治 嘗扁退食之堂曰三事 蓋取古人當官之法 惟有清慎勤而已 大書三字之義於壁上 旣【缺】<sup>276</sup>其躬 又勸後來之君子 堂之東 構草舍數間 暇日則鳴琴玩鶴 蕭然有出塵之想 昔新羅季崔文昌孤雲 曾在吾邑 其遺風餘韻 至今爽人牙頰 吾侯之文藻襟期 可與孤雲 竝論於千載之上 而人之愛慕韻絕之深者 則孤雲或未之先也 侯名潛 字

274 『양곡선생집(陽谷先生集)』 「태인 신잠 선정기[申泰仁潛善政記]」에 수록되어 있다.

275 원문에는 ‘즉(卽)’으로 되어 있으나 『양곡선생집(陽谷先生集)』에 근거하여 ‘인(印)’으로 수정하였다.

276 『양곡선생집』에 따르면 ‘칙(飭)’자이다.



元亮 高靈勳相叔舟之曾孫 三魁先生從護之胤子  
早承庭訓 克紹家業 文章書畫 世稱三絕 遠近來求  
者 戶屨常滿 每於聽事之暇 一掃百紙 略不凝滯 譬  
猶包丁之解牛 其於游刃之恢恢乎有餘地矣 今者  
秩滿賜環 行橐蕭然 琴劍圖書 不數馱邑之老幼 攀  
轅截鐙 既不可留 則伐石磨治 謀所以刻諸善政 而  
立于達衢之上 以傳示無極 願得先生揄揚之文 敢  
來請 余聞而歎曰 有是哉 元亮之爲政 所謂導之以  
德 齊之以禮也 漢之公卿 多出於良二千石 君其人  
哉 第恨老拙不文 烏足以塞諸君之望 雖然元亮魁  
癸酉進士 於吾門生友也 詩山距吾家蒼茫之間 美  
政之及民者 聞之稔矣 如是而喑無一語 則不幾於廢  
道人之善乎 況太史氏方秉大筆 特書于簡策者非  
一再 奚待余文 姑敘與二子相道之言 以遺其父老  
且規夫繼來之守者 左贊成蘇世讓記

### 五賢行蹟 不憂軒丁先生行蹟補遺

世宗朝 妖僧行乎爲住持 恣行無忌 上自宗戚 下至  
閭巷 弟子如恐不及 一歲中 剃髮爲僧者數萬人 布  
衣丁公 在太學 乃率諸生上疏 王不從 公與諸生  
約捲堂 王召見 詰以空館 公對曰 殿下崇佛 諸  
生欲歸而爲僧耳 又抗疏極諫 王震怒 欲致之死  
時黃相翼成公喜 牽王之裾爭之曰 殿下若殺  
丁克仁 史策何以書之乎 王悔悟 竟竄北方 尋赦  
還 乃流妖僧于濟州 公由是 名震一世 成宗朝 以  
年滿上疏致仕 特贈佐理功臣之號 王命禮曹判

書李承召 供帳祖道都門外以送 年老難於任事 故  
特加三品散官 贈資憲大夫禮曹判書

### 訥庵宋先生行蹟補遺

先生資稟絕異 性仁孝 才明敏 幼聰穎 聞一知十 凡  
所言行異於群兒 尤工於詩詞 見物隨詠 咸中聲律  
人謂之神童 考礪原君嘗爲王子師傅 侍讀中  
宗于潛邸 以母老春秋歸寧 侍讀頻廢 中宗知先  
生之行峻 必命先生侍讀矣 中宗靖國特賜原  
從功臣二等 蓋記先生之前日侍讀功也 自甲子士  
禍著禦眠楯二冊 湖陰鄭先生跋曰 雖出於遊戲 而  
勸戒之意 實寓乎其中 使先生誅姦發潛於史局 剡  
章論事於諫院 則奚事於是錄哉 中宗以先生之  
久病不仕春秋 賜內藥 爲醫之 上封事興學校 闢  
異端 中宗嘉之 特賜表裏一襲 先生之令望 卓  
冠士林 訥齋朴先生 常語先生之門人曰 先生真心  
學也 俛仰宋先生 亦從遊問禮論道 嘗歎曰 顏閔之  
德行 游夏之文學 陶潛之靖節 惟先生兼之矣 正  
廟朝頤齋黃先生贊之曰 先生素以家塾勤誨 爲後  
進師 表又曰 文章德行 卓卓可紀矣

### 默齋鄭先生行蹟補遺

先生日講學於流觴臺 流觴臺卽先生所居密邇 一  
勝處也 與河西金先生·誠齋金先生 心契交符 唱酬  
諸篇 頗不些 雲仍幼微 入於矢中 只有四五首詩 蓋  
先生之生年月日時 符合於邵堯夫 卒年月日時 亦  
合於邵堯夫 此奇異處也

### 誠齋金先生行蹟補遺

俛仰宋公純撰先生行狀 至末篇曰 庚申夏福億纍然服喪 以李處士恒之狀 奔詣純泣謂曰 孤之母爲公族 以是孤之父 嘗獲私於左右 親且久 考終始明詔後者 非公不可 敢來乞銘 純以不文 辭之不得 銘曰清而直 足以守己 果而方 可以濟事 偉哉若人 學有淵源 百里小惠 在公寧輪 位纔三品 年未再甲 天於善良 報豈有洽 惟後有人 克承厥家 更千萬年 慶亦云遐 詩山之陽 水川之谷 永永茫茫 不在斯

### 鳴川金先生行蹟補遺

先生生四世文獻家 閑亭諱若晦·李退溪·金河西從遊 詩岳諱元 文學行義克趾父美 月峰諱大立 李一齋門人 壬辰倡義 此其先生之父與祖曾祖也 幼而穎悟 長而志學 冲澹精粹 純一無雜 經術之學 至老彌篤 行己處事 孝悌爲本 待人接物 忠信爲柢 追慕先賢 獎進後生 嘗赴舉入京城 爾瞻素艷 公名聲再三邀請 公終避不見 畸庵鄭先生 嘗與交遊有道義之樂 白石柳先生·鳳谷金先生 爲莫逆之交 二公嘗稱歎曰 喜怒不形 春風氣像 非吾輩所及 牛山安先生嘗曰 吾少與公同學 慣知其爲人 真實無妄 純粹之學 非當世人物誠大人君子 每以師友禮待之 漢湖金先生贊曰 四世文獻蔚然 爲湖南之選 杜湖趙先生贊曰 鳴川之學 世濟其美 大爲士林之所推 鄉黨之所敬 其遺什得之性情 音調疎朗 嘗令人可誦 頤齋黃先生曰 學博行備 尤爲著焉 遺風所聳 莫不興起云 先生題松亭禊會圖詩曰 高亭八月賞秋風

十數詩朋氣概同 始覺前遊眞勝事 一時人在畫圖  
中 金尙書應均贊曰 撫古溯今 是松是亭 是賢是禊  
是畫是圖 嗚呼 十賢之前未有十賢 十賢之後未有  
十賢 十賢之後承其數幾何 慕先如此 裕後也久

**披香亭懸板韻** 此亭崔先生創建

割雞當日播清芬 枳棘棲鸞衆所云 千載吟魂何處  
覓 芙蕖萬柄萬孤雲

**佔畢齋 金宗直**

元亮新埋土 孤雲已上天 空餘池水在 白露滴秋蓮  
**石川 林億齡**

敗葉離枝白露傳 水亭殘日弔朱欄 堪憐岸上青青  
竹 獨帶清陰到歲寒

**清陰 金尙憲**

倦客南遊日 涼秋八月天 無心向前路 坐愛碧池蓮  
**畸菴 鄭弘溟**

暝色生秋雨 寒香落晚荷 千家大堤上 人語柳邊多  
**林愼**

秋池白露幾回傳 泣閱紗籠獨倚欄 七十八年多少  
感 敗荷依舊雨聲寒  
元亮孤雲共後先 詩山從古著名賢 秋蓮白露應依

舊 佳句何人繼石川

文谷 金壽恒

前後經過廿載中 水亭疏雨又秋風 離離敗葉渾依  
舊 不見花時萬朵紅

李敏敘

玄都舊客此中過 十載歸來更賞花 湖外名亭稱絕  
勝 天中佳節屬清和 紅葩露重幽香濕 綠葉風輕爽  
氣多 吾祖遺題偏起感 分留物幾年華

柳泰明

春潭漾綠雨初過 水面荷錢勝着花 檻外魚跳晴日  
煖 簷頭鶯語惠風和 百年遺蹟湖山迥 三月佳辰景  
物多 看取紗籠猶照眼 明亭南國倍光華

柳復明

憶曾先考此經過 三十年前侍看花 壁上紗籠成世  
稿 葉中佳釀養元和 斑衣昔日歡情極 墨綬今來感  
涕多 物色依然欄外在 芙蓉不改舊時華

柳逾

一面青山獨完然 千秋悵望兩神仙 化行百里儒風  
振 學自中州雅響傳 翫鶴亭頽餘舊址 流觴臺廢指  
前川 後來墨客應無數 更看何人繼古賢

李聖肇

### 院宇重修上樑文

述夫 城雖武號 文治蔚興地 以人稱華額 重煥義取  
大壯 謀叶同人念茲縣建祠之 方卽七賢安靈之所  
文章輝奎壁之彩猗歟 雅望享俎豆之尊展也 邑侯  
兩先生鄉賢五君子 精粹之學 相承當世淵源 絃誦

之治 惟餘此日音韻 迺者多士之矜式 抑亦勝地之  
可觀 數曲之觴臺尙存美哉 物外遐想 萬柄芙蕖交  
暎 依然畫中傳神 月延臺邊騰播詞華之嘯咏 嵯峨  
峯下彷彿 杖屨之逍遙 人間之要路通津果是何處  
世外之青山綠水 眞箇名區 夫何廢興之無常久矣  
繕治之未暇墻壁漫患 不徒儒林之齎嗟 庭廡蓁荒  
屢見行路之興歎 幸值時府之新莅 首議祠宇之重  
修 蜀郡之儒化復明來何暮也 魯邑之絃歌賁作 經  
始營之 於是遠近齊聲 大小協力 壘土築石 奠名基  
於規模 背山臨流 定方面 於圭臬 工倕之巧 魯般之  
藝 吏竭蹶而奔趨【趨】新甫之栢 徂徠之松 士悉心而營  
度 惟此人心所同者 有若神物 其相之輯舊易新 可  
聳遠近之眺聽 升堂入室 庶見陟降之神靈 菁莪之  
化遐沾 頌已騰於左海 邊豆之禮斯秩 教實闡於右  
文 茲效薰賀之燕詞 用助虹樑之載舉 兒郎偉拋樑  
東 鳴川一帶古今同 道源不息盈科進 晝夜混混碧  
海通 兒郎偉拋樑南 伽倻山色碧於藍 天教流水籠  
山意 句語飄然造化探 兒郎偉拋樑西 七寶峯下月  
半低 除是人間別有天 尋春漁子路何迷 兒郎偉拋  
樑北 正正之門庭殖殖 金石長隨日月懸 肯教末學  
從冥埴 兒郎偉拋樑上 列宿昭森銀漢 像絲入錦還  
英妙 言至今中夏聲華暢 兒郎偉拋樑下 道統延綿  
開大雅 前哲後賢其揆同 惟忠惟孝大倫也 伏願上  
樑之後 扁額載揭 俊髦作興 遺像肅清 完對臥龍庵  
眞面 四箴勤勉 庶遵白鹿洞舊規

## 講堂重創記

衛聖尊賢 其義一也 院宇之制 仰體校宮 粵自建院之初 置堂于中門之外 爲諸生講劇之所 則是堂之爲院貌矜式 豈不重且大乎 本院卽崔文昌·申靈川兩先生 妥靈之所 而鄉先生五賢配焉 仍舊郡號稱泰山 祠宇肅廟丙子賜額武城書院 蓋取諸子游絃歌之治也 我五代祖虛谷公重創 是堂其后六十餘年族叔致榮 繼爲重修 則虛谷公名帖 尙留上樑 故先君子製上樑文 以寓追慕之感 而本草遺而不傳 遺稿撰正時 不得編次矣 不幸乙酉四月有回祿之禍 上樑文隨而成燼 嗚呼惜哉 先人手澤 無復可考 尊敬之地久廢 將事之所 徒爲好禮之士 所共嗟惜 如不佞 當先於人經紀 而資劣才魯 莫售其計矣 訥庵宋先生後孫致德 慨然奮勵 鳩聚如干之財 於五賢本孫 極力拮据裁捐院中冗費 逐年追補 纔三年而經始方亟 微斯人孰能如是賢勞乎 乃屬不憂軒丁先生後孫文德 默齋鄭先生後孫載懌 施爲方略 而又幸徐侯灝淳崇賢禮士 辦財董役 訖五六月 而功乃告成 噫人與時值 事與意成 豈非興廢無常 功業必待人而成者耶 請記顛末 揭于堂壁以示後 余不敢以不文辭 遂爲之記 戊子六月日有司鳴川金先生六大孫玟謹記

## 賢宇重修記

院宇之興替 蓋由守宰尊慕之如何 本院自臺上移建于此者 在於成化十九年癸卯 據[距]今一百九十餘年 其間守宰之閱歷凡幾許 賢宇則瓦裂椽摧 牕壁漫漶而汙 礎傾棟朽 甑席破濕而陋 講堂則爲回祿所禍 儒生無齋居之所 一鄉之嗟惜 儻如何哉 斯文有往復之運 盛儀無終否之理 何幸徐侯灝淳 來莅茲縣 視篆之暇 瞻謁是院 慨然興歎曰 本院何等尊敬之地 而若是殘弊 不徒爲士林之恥 亦豈無守宰之責乎 乃與訥菴宋先生後孫致德 謀所以經始之 百方周旋 先立講堂 粵明年 親臨環視曰 賢宇重修 自是次第事 然大役之餘 院力凋瘵 鳩聚之方 先從吾始 乃捐稟而設始 招諭一鄉 以略干儒錢克終 閱四五月而功告訖焉 且文昌侯崔先生影幀 年久渝 徐侯不論所費之多少 專當改模 則院貌一新改觀 猗歟盛哉 我侯尊賢敬慕之意也 略書顛末 使後之守宰之尋斯院瞻是像者 知徐侯之功之如此云 噫我五代祖虛谷公 創始移建而記之 壬辰八月日 有司 鳴川金先生六代孫玟 謹記

## 桂苑筆耕重刊記

昔吾夫子藏壁書 而斯文繼絕 河間王得逸詩 而風雅復興 今夫桂苑筆耕之幾絕 而復鳴於世者 亦豈偶然而已哉 噫我東人肇以旭夷 知學者鮮 自文昌崔先生之出 而篤道好古甚於中華 然則吾東文獻 實先生陶鑄之 蓋先生新羅人也 距今千餘



年 其文集散失無幾 或出於箕雅及碑銘者 皆非全秩 惟獨桂苑筆耕·中山覆簣集數十卷而已 而亦無得而見之者矣 沈侯能淑之知是邦也 日涉古蹟破去崖岸 以文酒爲政勝人醒 時一月不期年而民服從其教化 視事之暇 祇謁先生于本院 彷徨於石龜觴臺之間 而因訪院儒以先生遺蹟 諸生無以應之者 侯曰本院乃先生主享之所 爲文集之第一寶莊 而無尺紙可考 誠甚慨然 今桂苑一秩在於左揆淵泉洪公之家 羅季開板之後無人重刊顧 其私於一家之寶者 良以此也 盍將爲諸生介於營門謀 所以重刊之聞者忻然而退 於是侯往議于營門 營門乃徐公有渠也 協心同議 招匠就刻 數月功告訖 冊既成匣下本院 其尊奉之責在吾士林 誠意之如何 而本院自創建以後 殆近二百年 得是冊於絕無 僅傳之餘 而莊之爲寶貝 播以爲金石 則此先生中興之一大事業也 眞所謂三侯併世 千載一會而顯晦有數 古今增慨 抑有待於今日也耶 院任敬承侯意之着意奉玩 且懼賢侯之功朽不傳 請余記其事云爾 甲午臘月上澣平陽朴海彥謹記

## 重修記

學舍之興廢 蓋由於人事之得失 而人事得則學舍興焉 人事失則學舍廢焉 本院自回祿之後 講堂賢宇 重創改觀 爲多士之尊慕之地矣 纔經十年許 神門傾圮 賢宇·講堂·庫舍 皆爲滲漏 墻垣頽落 齋服破裂 食鼎破碎餘外之有無 萬不形說 而尊賢生徒幾

無寓慕之所 訥庵宋先生後孫彥直 慨然發歎 詢  
謀不佞 方營圖新 不幸有天奪之速 藐茲愚昧 未知  
所以經紀 博詢鄉儒 協謀本孫 展盡淺慮而鳩聚些  
財 先葺賢宇·講堂·庫舍·墻垣·齋服·食鼎 繼建神門修  
成餘外之有無 煥然院貌 略有萬一之助焉 且庫舍  
之廊門 修創乃已 故粵翌年 與不憂軒丁先生後  
孫志孝 又設經始 以默齋鄭先生旁裔天奎 擇付  
別庫有司 則天奎與其族叔致學受璧兩人 殫力辦  
財 俾至告訖 此皆群儒之力 不佞何與焉 噫昔在甲  
子年吾先君 已任院事 神門墻垣 修立一新 今暨四  
十餘載 不佞又當補葺 事不偶然 亦不無感舊之心  
茲揭顛末 以待後之君子云

丁未七月日 誠齋金先生十代孫丙欽記

院以武城名 因邑號也 昔崔文昌先生宰是邑 化  
尚絃歌 治倣子游 民俗丕變 邑之號 蓋以是先生  
俎豆之所 以武城宣額後 靈川申先生繼之文化  
復興 且鄉之五賢有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  
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 俱以湖南之  
望 道德相孚 併食此院院之創 閱幾百載 隨圯隨修  
不恒有焉 賢宇·講堂瓦裂而漏 庫舍墻垣土滲而圯  
院儒謀所以新之 而役鉅財窮 顧無以經畫 今我太  
守以二先生之治爲治 禮教丕振 儒化蔚興 下車  
之初 先訪是院 祇拜訖 院儒金廷勳 以誠齋金  
生外裔 誠護尤切 以其事白太守 慨然曰 是誠在我  
遂鳩聚集事 招匠董役 未一月工告訖 院貌於是乎  
復新 而賢靈妥侑 學徒藏修 泰之儒咸頌 其功歸之

太守 太守爲誰 韓山李侯承敬也 爲記其事 以文屬  
持灝 乃訥庵宋先生十世裔也 義爲所不敢  
辭者 遂爲之記 甲寅陽月上幹**宋持灝謹記**

夫州之有書院 國之有學館 而禮儀文章之所由具  
也 俎豆以薦先師 講磨以倣後學 昔文昌崔先生  
靈川申先生暨鄉賢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  
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 道德相孚 治  
倣子游 故先生安靈之所 必以武城宣額 而邑亦因  
以爲號 遺風尙傳 尹茲賢侯往往多以昔先生之治  
爲治 尙文教修學宮 凡士之待興者 向慕而誠護 是  
故斯院雖舊與時維新 蓋天道之扶斯文也信矣 而  
易曰兌講滋益 否則受泰 此其理也 粵若回祿後 徐  
侯之重創翻瓦時 李侯之復新 及其隨圯隨修者 先  
公之述已備 不必架疊而勦訖矣 徐侯之胤相鼎 庚  
午年旬宣湖省 桐鄉古蹟先訪 茲院絃歌之餘韻猶  
被興學之片石堪語 乃建碑閣 又捐稟俸以苞拮据  
爲資修補之方 而屬於訥齋公旁十代孫金廷信  
鳴川公七代孫金惺欽廷信惺欽 誠力勤幹 且誠齋  
公十代孫金必欽爲本齋 扶別廳 積累其功由來 迄  
于今年 風雨大戒 屋瓦則旣滲而且裂 賢宇門則旣  
蠹而旋破 至於垣牆之頽圯 弘門之顛越時 則李侯  
敏泰以院長 慨然有志於先賢之治 而面戒書諭 爲  
士林之興感經畫(劃) 方略捐出 徐相公資給條 俾當一  
隅 而不憂軒公十四代孫文鉉 其爲先之誠尤切於  
凡儒 慕賢之心 極力鳩財 屬匠董役 院貌一新而改  
觀焉 猗歟盛哉 文學之元氣 出乎天賦乎人 而賢賢

斯道 在在是奉 非徒地守之尊慕 而亦有方伯之修飭 不但章甫之矜式 而均是雲仍之永慕者 有如是夫不佞 亦以院本孫 不能無感服於此 而竊爲前緒之不朽 後覽之有效 忘拙構荒 以備顛末如右云爾  
乙亥陽月日 訥庵十二代孫**宋鍾壽**謹記

古有邑而曰武城 卽子游之治也 今有院而額武城 因其迹之號也 肅廟丙子特蒙宣額 何等清肅 何等尊崇 文昌崔先生 靈川申先生 道德相孚 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 踵乎德孚 七賢配享之院也 創建幾百載 重修幾許次 隨圯隨葺 維舊維新 嗚呼噫噫 丙子大無之後 朔望之焚香 春秋之享祀 謹慎奉行修葺之方 有志未遑 賢宇則瓦碎而滲漏 席弊而漫漶 講修廳則東齋西齋四無一壁 難庇風雨 何以藏修 垣牆與庫舍神門 萬無一全 不獲不改新 乃已以余之不敏 將何如哉 遍諭鄉員 輪告道儒 士林任事中 既有公爛之歸一 縉紳任命下 亦有貽力之不貳 方略周旋 鳩聚錢財 可以葺而葺之可以新 而新之賢宇之席則以葛代竹 東西之齋則仍舊肯堂 至於滲漏處 瓦則瓦 土則土 一一修補 懇懇訖功 瞻仰院貌惟爲復新 余之不佞以院本孫 心自感服 略揭顛末 安拙爲記云爾 己卯閏三月日 訥庵**宋先生十一代**  
**孫程淳**謹記

## 復戶保奴還復記

蓋國之有庠序·學校 鄉之有書院祠宇 衛聖慕賢之義 而一體尊崇之地也 本院卽七賢配享之院 而肅廟賜額 復戶三結保奴三十劃下院中 以需春秋之享祀 以備俎豆之禮儀 何等尊崇之地 而累百年清肅矣 嗚呼時運不齊 人道亦然 戊辰各院存徹之際 保復混入蠲削復舊之議 有年未遑 自戊寅本孫宋程淳·丁世基·金永烈·金廷述·鄭漢龜 儒林李秉德·金龍祖·金永準·金永璐·黃基煥·邊吉容心齊議同 屢呈營邑 宋程淳·金永烈兩瀆京司時 領相李公最應特下慕賢之心 復舊之題 既爲鄭重而復舊之節 惟係於院長矣 五六年間 事未遂了 猗歟欽哉 否泰有數剝復無常 韓山李侯定植 以本縣之司成兼且院長 慕其先賢 觀此院貌 保復依舊還復 上以答列聖朝尊賢之意 下以伸諸士林齎鬱之冤 大有功於師門 永頌德於本院 惟我聖朝蒙額之恩 今復可觀 惟吾章甫孰不忱感 余以不佞 一以服保復之仍舊 一以懼賢侯之功朽 以不文辭不獲 遂爲之記 壬午仲春上澣 誠齋金先生十代孫稷欽謹記

## 院誌開刊記

事有不得不爲者 而前輩之不遑 後來之責 除非疆幹通博之人 則鮮有不安古而因循矣 又若有主張幹旋於冥漠之中而必有待而有爲者 亦由時使之然耳 武城書院之久而無誌 不過兼是三難焉已耳 夫書院表裏學校 非一人一家之私 而士林之所公共 事

實規例必有一帙不易之書 然後執事於院者 前以承前 後以授後 庶免殘缺遺漏之歎 而可以壽久 可以布廣 此固院事之不得不爲者 而院儒宋程淳·金永璐·邊吉容·黃基煥·金亨植·禹在鎬甫之 斷然以爲已任 旣掇拾矣 又繪繡矣 嗚呼二百年矣 果有待於今日耶 至若芝山處士安公在護 以家藏經史數百卷輸諸院中 俾作後生講討之資 較之李公擇之貯之僧舍 不啻光明正大 若使安公竝生長公之世則可使李君寂寂太甚 惜哉 或慮後之君子 對是書而不知書之所自 故特表而出之 以告來世 母[毋]使蟬蝕盡古人之至意如何 余旣文諸誌端 又嘉諸儒眷眷之誠 欲播諸當世之耳目 爲構數行文 使揭之院中生齋之楣 而又勵繼今日而執事於茲院者云爾 閱逢涓灘五月下澣通訓大夫行井邑縣監**奇亮衍記**

崇禎后五甲申夏 武城書院院誌之編輯也 觀察使金公聲根氏 序其事憂斯學之失其傳而作也 蓋道學之傳有自來 而肅廟丙子賜額武城 蓋取諸子游絃歌之意也 子游聖門高弟而遺化 千載洋溢于左海之武城 崔先生聖廟從祀 而流芳百世繼開于武城之六賢 乃靈川申先生 不憂軒丁先生 訥庵宋先生 默齋鄭先生 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 歲之相後 雖或千百 揆之所同 相傳精一 合祀一堂 創建之年 佚而不傳 自臺上移建于臺下在於成化十九年癸卯 泰山祠屯田事在於萬曆丙辰 正廟壬辰 院宇重修 而影幀奉安也 純廟乙酉 講堂有回祿之禍 因以重修也 越七年辛卯

影幀改模也 粵四年甲午桂苑筆耕開刊也 哲廟  
 六年乙卯院址禁埋督掘也 當寧九年壬申芝山  
 處士安公在護藏書也 越七年己卯復戶保奴復舊  
 也 延額時祭文節儀 院生關文 及前後疏儒謁 院守  
 宰新恩事務句幹之士 濟濟載其名焉 訥庵宋先  
 生後孫程淳 以院誌事 往復于縉紳官申公岐朝 申  
 公謁廟 而視院貌之凋殘 慨然有慕賢之志 極力周  
 旋 院誌印訖 又神門傾覆者 易以新之 院牆滲漏者  
 瓦以脩之 嗚呼 否而泰 天地之常數 晦而顯 斯文之  
 大幸 此邦之士 盍相與挹先賢淳固慤實之餘風 服  
 思傳 尊德性道問學 由博而約 自下而高 以揚先賢  
 樂育之大德 則於先賢啓迪之功斯無負矣 安處士  
 以晦軒先生之靈裔 孝義德行 鄉黨所敬 教子孫有  
 訓有則 書三百餘冊藏于院中 以爲興學之資 此仁  
 者之心 豈啻與李公擇之藏山房者比也哉 不佞亦  
 參校正監印之列 觀感於僉章甫尊賢衛道 而略揭  
 顛末 以俟後之君子尊院崇德云爾 是年六月壬寅  
 鳴川金先生八代孫永朝謹記

### 靈川申先生從遊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晦齋 李彥迪  
 一齋 李恒 錦湖 林亨秀 服齋 奇遵  
 橘亭 尹衢 閑亭 金若晦 玉溪 盧禎  
 聯翮七司馬 來會一芳閭 元亮爲良宰 原明有好  
 居 沙汀同嶺月 盤箸足溪魚 勝事傳宜久 須看翠  
 壁書 宋俛仰詩

**先進奉審案** 進士 鄭 震【成化丙午】  
 郡守 宋演孫【成化丙午】判書 宋世珩【正德癸酉】  
 生員 金希尹【弘治戊辰】生員 金若虛【正德癸酉】  
 生員 金若晦【正德癸酉】生員 丁三俊【正德癸酉】  
 進士 趙崇齡【正德癸酉】進士 鄭 汾【嘉靖庚子】  
 進士 金若玄【嘉靖乙酉】生員 白元龜【己卯】  
 生員 宋 曇【己卯】生員 孫弘綸【丁酉】  
 進士 孫弘緒【丁酉】進士 白三龜【丁酉】  
 察訪 金 元【丁酉】進士 丁子淨【戊子】  
 牧使 金福億【萬曆癸酉】  
 生員 宋 徹【戊子】進士 朴處仁【庚戌】  
 縣監 高用厚 郡守 宋致中【壬子】  
 巡察使 李冲【壬子】縣監 吳希吉【乙卯】  
 縣監 韓履謙 進士 丁子淑  
 監察 尹雲衢 縣監 李厚源【癸亥】  
 巡察 使李溟【癸亥】察訪 曹臣俊【癸亥】  
 縣監 任忠幹 生員 金 填  
 縣監 申翊亮【甲戌】縣監 權純慶  
 縣監 柳德昌【壬午】縣監 李星徵  
 持平 金地南 及第 金之聲  
 翰林 吳以翼【庚寅】縣監 閔昀【癸巳】  
 縣監 申在 縣監 宋之濂  
 縣監 趙相愚【壬戌】進士 丁士儉【丙寅】  
 縣監 李堂【丙子】生員 丁士傑  
 縣監 金相玉【丁酉】縣監 洪樂顯【庚子】  
 及第 金命衡 進士 洪道明  
 新恩 金道元 典籍 金友正



都事 金憲球 生員 丁孝穆【壬寅】  
 新恩 金膺道 進士黃胤錫【乙巳】  
 新恩 金萬衡 進士 丁斗玉【丙寅】  
 縣監 趙恒鎭【乙卯】持平 金光遇  
 生員 邊相璇【甲子】新恩 丁翊祚【庚戌】  
 參奉 閔鳳赫【辛亥】新恩 李敦德  
 生員 李敦中【辛酉】生員 李敦稱【辛酉】  
 縣監 李略【丁卯】新恩 金致膺【甲戌】  
 生員 金炯厚【庚午】生員 奇正鎭【辛卯】  
 縣監 徐灝淳【辛卯】生員 丁載和  
 縣監 沈能淑【壬辰】生員 權執圭【甲午】  
 縣監 南鶴玄 生員 李炳瓚【乙未】  
 縣監 趙秉憲【丙申】進士 金彰業【乙未】  
 進士 趙鳳熙【丁酉】新恩 李龍雲【丁酉】  
 縣監 鄭琬容【己亥】申升求【丁酉】  
 縣監 趙雲始【庚子】李晉純【庚子】  
 進士 金相洪【壬寅】金敬澤【乙巳】  
 進士 李東龜 徐廷民  
 進士 申在根【癸亥】金錫欽【丙午】  
 及第 李圭白【丙午】金基圭【戊申】  
 生員 宋持灝 李馨純【戊申】  
 及第 林文洙【庚戌】李龜善【己酉】  
 新恩 金學龍【辛亥】新恩 金珽欽【己酉】  
 新恩 劉暭奎【辛亥】生員 閔致斗【乙卯】  
 新恩 宋麟浩【壬子】新恩 崔光漢【丁巳】

## 甲乙記事

賢宇重修【乙卯二月二日移安 十日還安】祝文載上篇

縣監 宋徵啓 齋長 金德徵 掌議 金成夏

色掌 權相一 金希祖

講修齋重修【丁巳二月日】

縣監 許迺 齋長 鄭之雄 掌議 金相采

色掌 權相廷 安時器

庫舍與弘門重修【乙丑八月日】

縣監任行元 齋長金渾 掌議金冑{卜+百}

色掌李再昌 殷道復

賢宇重修 祝文上同【乙亥二月日】

縣監金時侃 齋長權相彥 掌議金嶧

色掌李恒壽 金箕東

賢宇重修 祝文上同【壬午九月日】

縣監金履復 齋長趙爾欽 掌議閔百冑

色掌金斑 金彥復

墻垣及神門重修【癸巳二月日】

縣監趙載天 齋長金智興 掌議金光運

色掌金孝承 安守中

講修齋重修【庚子八月日】

縣監洪樂顯 齋長金泰鍾 掌議金時榮

色掌金光履 金永祐  
庫舍與墻垣重修【丙午五月日】  
縣監李齊淵 齋長楊伯楷 掌議金光五  
色掌宋碩孝

賢字改瓦 祝文上同【丁卯六月一日】  
縣監朴賢秀 齋長金光運 掌議朴良植  
色掌金胤祖 宋啓天

祭器與地薦改新【戊申八月日】  
齋長安處命 掌議金敏厚 色掌金喆

弘門與中門重修【己酉六月日】  
齋長權緯 掌議金之默 色掌宋致瓌  
賢字神門重修【癸丑十月日】  
齋長權儀德 掌議金致榮 色掌金慶厚

講修齋垣墻修葺【丙辰七月日】  
齋長權繼 掌議金峻哲 色掌金圭

賢字改瓦【移安 還安】祝文上同【己未八月日】  
縣監李昌熙 齋長權時喆 掌議金致厚  
色掌金履成 宋命哲

講修齋入於灰燼【乙酉四月日】  
講修齋重創立柱上樑【戊子三月三十日】  
縣監徐灝淳 齋長金峻哲 掌議丁文德

色掌鄭載懃 金匡述

賢宇重修祝文上同【庚寅二月日】

齋長金致璜 掌議宋致德 色掌宋敏植

文昌侯崔先生影幀改模 縣監徐侯灝淳 捐廩專當

奉安祝文上同【辛卯八月十二日】

縣監沈侯能淑 賢宇地薦 專當改新【癸巳二月日】

齋長宋彥益 掌議金晉淳 色掌金祖鉉 宋致斌

桂苑筆耕開刊于完營【甲午十二月日】

縣監沈能淑 齋長李俊漢 掌議金祖鉉

色掌金黈 金奎勳

祭器改造 墻垣修築【丙申二月日】

齋長宋致德 掌議權思安 色掌高重鎭

講修齋翻瓦 中門修葺【丁酉二月十九日】

齋長金坤 掌議趙貞球 色掌宋亮采

賢宇重修【移安 還安】祝文上同【戊戌八月二十六日】

齋長宋彥直 掌議金墉 色掌金錫五

壬寅二月仲丁日

齋長金錫魯 掌議金鎭欽 色掌宋懃浩

甲寅八月仲丁日

齋長宋儒元 掌議朴奎東 色掌金廷勳  
訥庵先生十一世孫宋亮采 以院任節用蠲費  
賢宇之地薦 庫舍之牕戶及祭器燭竹 一一改新

乙卯二月仲丁日

齋長李民憲 掌議金燾 色掌宋程淳  
縣監李侯承敬 院後偷塚三十餘 親審督掘焉

不憂軒先生十三代孫丁鎮兌 重創別庫【丁巳三月日】  
齋長李奎憲 掌議宋致斌 色掌權鍾喜

縣監趙縉鎬【己未七月十三日 祇謁奉審】新恩金漢鼎【己未三月奉審】  
新恩張永鎮【庚申十二月奉審】 五衛將丁禮鉉

辛酉二月仲丁日

齋長權思璜 掌議宋秉浩 色掌金永洛  
生員鄭台鏞【五月二十八日奉審】 五衛將丁敬鉉

壬戌二月仲丁日

掌議金大鉉 色掌宋永采

癸亥二月仲丁日

齋長金墉 掌議鄭昌賢 色掌金樂欽  
進士金塹【丁卯三月二十四日奉審】進士李謙述【丁卯八月奉審】

戊辰二月仲丁日

齋長金麟欽 掌議宋雲采 色掌金廷述

參議丁載龍【三月七日奉審】

辛未二月仲丁日

院長縣監金寅根 掌議金讓欽 色掌邊吉容

壬申八月仲丁日

院長縣監趙中植與安學律·金永朝 重創南學堂禊

春三三秋九九講習

掌議金廷勳 色掌金永璐

別庫掌議金必欽 色掌丁永瓘

癸酉二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講習

掌議宋瑛秀 色掌邊大容

講修齋掌議安在福 色掌

甲戌八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講習

掌議金駱欽 色掌金永鯤

講修齋掌議權秉圭 色掌

乙亥正月日【三月三日行鄉飲酒禮 九月九日講習禮】

縉紳掌議縣令李喆在 掌議金永洪

色掌禹在鎬 姜永文 道內掌議李秉敦

色掌金相浩 直月金永烈 直月邊吉容

講修齋掌議金增赫 色掌安孟塾

道內掌議李文儀 色掌吳宰泳

別庫掌議金必欽 有司丁永瓘

崔先生二十七世孫益鉉【自濟州放還時祇謁 四月二十三日】

二十八世孫漢運 二十六世孫畚【同日奉審】

丙子二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行講習禮  
院長縣監李敏泰 摺紳講長察訪金禹鉉  
掌議金永準 色掌黃基煥  
儒林講長進士邊遇基 道內掌議南濟  
色掌李會粹 直月金永璐  
直日禹在鎬 講修齋掌議邊吉容 色掌朴海龍  
道內掌議景采容 色掌李海龜  
別庫掌議金永弼 有司鄭漢龜  
文科高必相【五月日奉審】

丁丑二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講習  
院長縣監閔觀鎬 掌議金龍祖 色掌朴桂根  
道內掌議黃在顯 色掌崔中權  
金奉益 儒林講長金永朝 直月宋程淳  
直日黃基煥 講修齋掌議金廷述 色掌丁相鉉  
張漢龍 道內掌議金斗欽 色掌  
別庫掌議金永殷  
文科崔在澈【九月日奉審】

戊寅八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行講習禮  
院長縣監閔觀鎬 縉紳掌議縣令李喆在  
縉紳講長察訪金禹鉉 儒林講長金用欽  
掌議宋晚秀 色掌李秉文 呂弘燮  
道內掌議黃宗默 色掌尹重弼  
直月金宗琳 直日丁永瓘 講修齋掌議金永祖  
色掌金在基 道內掌議柳煥昌  
色掌韓永祚 別庫有司崔得瑞

己卯二月仲丁日【三月三日 九月九日】會諸生行講習禮

院長縣監閔觀鎬 縉紳掌議縣監金益健

縉紳講長察訪金禹鉉 儒林講長金永麟

掌議金樂欽 色掌安堯錫 田宅鎮

道內掌議金堯昇 色掌成載奎

直月宋永采 直日邊吉容 講修齋掌議金永烈

色掌朴在植 道內掌議李相旭

色掌林致煥 別庫有司崔鏡源

文科宋琯玉【八月日奉審】進士庾聖烈【九月日奉審】

講修齋重修【閏月日】

庚辰二月仲丁日【三月三日行鄉飲酒禮 九月九日行講習禮】

院長縣監閔觀鎬 摺紳掌議郡守李雲溥

縉紳有司察訪安翊良 儒林講長李啓應

掌議李秉德 色掌金直述 色掌

道內掌議李穰弼 色掌尹日鉉

直月金樂欽 直日金亨植 講修齋掌議孔鳳洙

色掌吳寬淳 道內掌議白來洙

色掌 別庫有司崔日九

神門及墻垣修葺【七月日】

考巖書院復立事 發文列邑 道會全州【二月日】

辛巳八月日院長縣監李定植 縉紳掌議縣監韓箕錫

縉紳有司察訪安翊良 儒林講長金永彥

掌議金永鯤 色掌宋麟玉

道內掌議李承灝

色掌趙玳基 直月崔鵬九 直日權鍾林 講修齋掌議宋程淳



色掌河龜弘 道內掌議

色掌林喆相 金永述 別庫掌議金奇煥

有司崔昌璞

副司果奇亮衍【四月日奉審】進士郭璟鍾【四月日奉審】

壬午二月仲丁日

院長縣監李定植 摺紳掌議縣監韓箕錫

儒林講長金永洙 掌議崔翊坤 色掌宋炳權

徐鳳淳 道內掌議 色掌韓廷秀

李厚根 直月李穰弼 直日安夏錫

講修齋掌議朱弼煥 色掌崔南休 吳海千

道內掌議邊立基 色掌田宅鎮 趙龍雲

別庫掌議金稷欽 有司姜斗永

癸未二月仲丁日

院長縣監鄭履源 摺紳掌議縣監奇亮衍

儒林講長 掌議金相翌 色掌金亨植

道內掌議孫履祥 色掌

李祥龍 直月高學述 直日金寬鉉

講修齋掌議邊吉容 色掌金炳淳 劉鍾喆

道內掌議許欽 色掌李秉元 金在文

別庫掌議 有司崔昌璞

崔在基崔元基 以院後偷塚事稟報 營邑二十餘

塚 卽爲督掘焉

文科金櫛濟【四月日奉審】進士金[玉+榮]【奉審】

甲申二月仲丁日

院長縣監鄭履源 縉紳掌議縣監奇亮衍  
 縉紳講長縣監申岐朝 縉紳有司察訪崔成在  
 儒林講長邊佐容 掌議金鼎厚 色掌安永文  
 道內掌議黃達周 色掌  
 姜昌欽 直月梁在允 直日金永烈  
 講修齋掌議 色掌崔柄斗 鄭圭福  
 道內掌議李軒宇 色掌曹仁承 韓泰燁  
 別庫掌議 有司崔允五  
 進士丁泰鉉【三月日奉審】重修有司崔奎涉 金有煥  
 神門墻垣修葺

## 院規

- 一 入齋之規 無論長幼貴賤 有志讀書爲學者 皆可入院事
- 一 旣而入 如有不修威儀 不謹言動 甚至失身敗行 玷辱儒風者 齋任與諸生會議 隨其輕重 或揭罰 或黜院 若有前日悖戾之人願入 則使之先自改過 飭行 熟視所爲 決知其改過 然後許入事
- 一 每月朔望 齋任率諸生 具巾服詣廟 開中門焚香再拜 若齋任不在 則齋中年少長者爲之 雖非朔望 諸生若自外新至 或自院辭歸 則必於廟廷再拜
- 一 每日晨起 整疊寢具 灑掃室中 使齋直掃庭 皆盥櫛衣冠
- 一 平日 皆以巾服詣廟廷 不開中門 只再拜 出外庭 分立東西 相向行揖讓禮 各就齋室

- 一 凡讀書 必整容危坐 專心致志 務窮義理 無得相顧談話
- 一 凡居處 必以便好之地 推讓於長者 無得先自擇占 長者出入時 少者必起
- 一 几案書冊筆硯等物 頓置皆有常處 無或散亂 不得以煙茶唾啖戲事 點汙牆壁 亦不得着履升堂
- 一 常時恒整衣冠 無得褻衣自便 亦不得着華過近奢之服 必以九容持身 九思存心 如對嚴師 終始不懈
- 一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院中 史冊許入 若欲做科業者 必習於他處
- 一 凡作文 必皆本之義理 無得雜以異端詭怪之說 作字 必端嚴楷正 無得放意潦草
- 一 凡言語必慎重 非文字禮法 則不言 以夫子不語怪力亂神爲法 且以范氏七戒 存心萬目  
 七戒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過惡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 一 凡朋友務相和敬 相規以失 相責以善 無得挾貴挾富挾多聞見 以驕儕輩 且不得譏侮以相戲謔
- 一 書籍不得出門 酒色不得入門 雜技不得行 刑罰不得用
- 一 昏後明燈讀書 夜久乃寢
- 一 自晨起至夜寢 一日之間 必有所事 心不暫怠 或讀書 或靜坐存心 或講論義理 無非學業上喫緊

有違於此 卽非學者

- 一 有時歸家 切宜勿忘 院中之習 治心檢身 應事接物 須要一一務盡道理 如或立齋修飭 出齋放倒 則是懷二心也 不可容接

### 白鹿洞五規【竝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窮理之要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而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 今之爲學者 旣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苟存於經 有志之士 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理之當然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而後 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己淺矣 而其爲法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 而揭之楣間 諸君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

所以戎謹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而或  
出於禁防之外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不得而  
略也 諸君其念之哉

## 講習禮執事

都執禮 唱執禮 直月 直日 典牲 典簿  
曹司 典書

## 笏記

學任命齋直 鋪筵設幕○學任設虛位於堂北壁下  
南向○執禮立中庭位唱笏○講長學任諸執事諸  
生 各具道袍黑巾 入就瞻拜位○執禮指揮學任諸  
執事諸生 一從圖式序立○執禮退復位○講長以  
下皆再拜○訖執禮進立唱笏○講長就西階位○  
學任就東階位○諸執事諸生各就位○學任向講  
長拜○講長答拜○諸執事諸生向講長拜○講長  
答揖○學任諸執事相向拜○諸執事諸生向學任  
拜○學任答拜○諸執事諸生相向揖○執禮先升  
中廳位立唱笏○講長升西壁下位○諸執事從升  
各就位○學任升東壁下位○諸生次升各就位○  
講長以下皆跪○典書收諸生講單 合成一軸○直  
月進立執禮之左 顧左右曰 敬恭聽 聽無譁○直月  
因進跪讀規位 抗聲讀白鹿洞規○讀畢拜退復位  
○講長進詣虛位 前拜跪讀一書○讀畢拜退復位  
○學任進詣虛位 前拜跪讀一書○讀畢拜退復位

○曹司進跪書案左抽牀以示當講生○講生執卷  
進詣書案前拜跪○講長拈一章以示○講生受讀  
○讀畢講長問義 講生敬對 講生質疑 講長詳言○  
直日進跪書案前 次書講生姓名及所講書名 問答  
文義○講生拜退復位○諸生次次進講○諸執事  
依禮進講○讀畢修整講案圖式笏記○禮畢以此  
拜退○學任先除虛位 次命齋直 撤筵撤幕

## 鄉飲酒禮唱笏

擇吉辰行其禮前一日主人戒賓賓拜辱○主人答  
拜乃請賓○賓禮辭許○主人再拜○賓答拜○主  
人退賓拜辱○介僎亦如之○乃設賓主介僎司正  
三賓三黨衆賓之席如其圖 席皆不屬焉○尊兩壺  
于房戶間斯禁 有玄酒在西○設筐于禁南東肆○  
加二勺于兩壺○設洗于阼階東南○賓以下依時  
刻集到○其日質明 主人率賓以下 先釋菜于○先  
聖先師告曰 某謹與諸生 考協禮文 推闡聖制 周旋  
揖遜 一如舊章卽事之初 敢以舍菜<sup>277</sup>之禮謹修虔告  
○退各就位○主人相迎于門外 再拜賓 賓答拜  
○拜介僎 介僎答拜○主人揖先入○賓厭介僎 介  
僎厭衆賓 入門北上○主人與賓三揖至于階 三讓  
○主人升 賓升○主人阼階上北面 再拜○賓西階  
上北面 答拜○主人坐取爵于筐 降洗○賓降○主

277 원문에는 사채(舍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옛날 학교에서 행했던 공자의 제사(祭辭)를 가리키는 사채(舍采)가 맞는 표현이라고 보인다.

人坐奠爵于階前辭○賓對○主人坐取爵興 適洗  
南面坐 奠爵于筐下盥洗○賓進東 北面辭洗○主  
人坐奠爵于筐興○賓復位當西序東面○主人坐  
取爵○一相西北面卒洗○主人一揖一讓升○賓  
拜洗○主人坐奠爵拜降盥○賓降○主人辭○賓  
對復位○主人當西序卒盥揖讓升○賓西階上疑  
立○主人坐取爵實 賓之席前西北面 獻賓○賓西  
階上拜○主人小退○賓受爵復位○主人阼階上  
拜送爵○賓少退○薦脯醢○賓升席自西方 設折  
俎○主人阼階東疑立○賓坐左執爵祭脯醢 奠爵  
于薦西興○右手取肺 却臍之興 加于俎○坐掬手  
○遂祭酒興○坐席末啐酒降席○坐奠爵拜○告  
旨○執爵興○主人阼階上答拜○賓西階上北面  
坐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阼階上答  
拜○賓降洗○主人降○賓坐奠爵興辭○主人對  
○賓坐取爵適洗南北面○主人阼階東南面辭洗  
○坐奠爵于筐興對○主人復阼階東西面○賓東  
北面盥手○坐取爵卒洗○賓一揖一讓升○主人  
拜洗○賓答拜興降盥○主人降○賓辭○主人對  
復位○賓實爵 主人之席前東南面 酢主人○主人  
阼階上拜○賓少退○主人進受爵復位○賓西階  
上拜送爵○薦脯醢○主人升席自北方 乃設折俎  
○賓西階上疑立○主人坐左執爵 祭脯醢 奠爵于  
薦東興○右手取肺 却興左手臍之興 加于俎○坐  
掬手 遂祭酒○自席前適阼階上 北面坐卒酌興○  
坐奠爵拜○執爵興○賓西階上答拜○主人坐奠  
酌于序端○阼階上北面再拜崇酒○賓西階上答

拜○主人坐取觶于筐降洗○賓降○主人辭降○  
 賓不辭洗立西序東面○卒洗揖讓升○賓西階上  
 疑立○主人實觶酬賓 阼階上北面○坐奠觶拜○  
 執觶興○賓西階上答拜○坐祭卒觶興○奠觶拜  
 ○執觶興○主人阼階上答拜○主人降洗○賓降  
 辭○主人卒洗揖讓升○賓西階上立○主人實觶  
 賓之席前北面○賓西階上拜○主人少退○坐奠  
 觶于薦西○賓辭坐取觶復位○主人阼階上拜送  
 ○賓北面坐奠觶于薦東復位○主人揖降○賓降  
 立于階西東面○主人以介一揖一讓升○主人再  
 拜○介答拜○主人坐取爵于東序端○降洗○主  
 人辭降○介對辭洗○介西階上立○主人實爵介  
 之席前西南面獻介○介西階上北面拜○主人少  
 退○介進北面受爵復位○主人介右北面拜送爵  
 ○介少退○主人立于西階東薦脯醢○介升席自  
 北方設折俎祭脯醢○介自南方降席北面坐○卒  
 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介右答拜○介  
 降洗○主人復阼階降○介辭降○主人對○東階  
 上立○介卒洗○主人盥○介揖讓升授主人爵于  
 兩楹之間○介西階上立○主人實爵酢于西階上  
 介右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卒爵  
 興○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奠爵  
 于西楹南介于右再拜崇酒○介答拜○主人復阼階  
 揖降○介降立于賓南○主人西南面三拜三賓○  
 三賓皆答一拜○主人揖升坐取爵于西楹下降洗  
 升○實爵于西階上獻三賓○三賓之長升拜以次  
 拜受酌○主人拜送○薦脯醢于其席○三賓坐祭



立飲不拜○既爵授主人爵降復位○主人獻爵于衆賓○辯有脯醢○衆賓受爵坐祭立飲○主人以爵降奠于筐○揖讓升○賓厭介升○介厭衆賓升○衆賓序升卽席○主人之一相洗酌升○實觶西階上坐奠觶拜○執爵興○賓席末答拜○坐祭飲○卒觶興○坐奠觶興○一相拜執觶興○賓答拜○一相隆洗爵升○實觶于西階上○賓拜○一相坐奠觶于薦西○賓辭坐受爵興○一相西階上拜送爵○賓坐奠觶于其所○一相降○設席于堂簾東上○樂正先升于西階東○工四人入升自西階北向坐○工二人東面坐鼓瑟○工二人歌鹿鳴四牡皇皇者華○卒歌主人獻工○工左瑟一人拜不興受爵○主人阼階上拜送爵○薦脯醢使人相祭○工人飲不拜○既爵授主人爵○衆工授酌祭歌○辯有脯醢○笙入堂下磬南北面立樂南陔白華華黍○主人獻于西階上○一人拜于階受爵○主人拜送爵○階前坐祭立飲○升授主人爵○衆工受爵坐祭立飲○辯有脯醢○乃間歌魚麗笙由庚歌南有嘉魚笙崇丘歌南山有臺笙由儀○合樂周南關雎葛覃卷耳 召南鵲巢采芣采蘋○工告于樂正曰正歌備○樂正告于賓乃降○主人降席自南方側降○主人使相爲司正○司正禮辭許○主人拜○司正答拜○主人升復席○司正洗觶升自西階阼階上北面受命于主人○主人曰請安于賓○司正告于賓○賓禮辭許○司正告于主人○賓西階上答拜○司正立于楹間以相拜○主人及司正皆復席○司正實觶降自西階北面坐奠觶○退拱

手少立坐取觶飲○興奠觶拜○執觶興○洗觶北面坐○奠觶于其所○退立于觶南○賓北面坐取俎西之觶東南面授主人○主人降席立于賓東○賓坐奠觶拜○執觶興○主人答拜○賓實觶東南面授主人○主人阼階上拜○賓少退○主人授觶○賓拜送于主人之西○賓揖復席○主人西酬介○介降席自東方立于主人之西○主人拜送爵○介答拜○主人揖復席○司正升相旅曰某子受酬○衆賓降席○司正退立于序端東面○衆賓自介右拜○司正答拜興○衆賓受爵拜飲卒○降坐奠觶于筐○司正降復位○使黨僎洗觶升實觶于西階上皆奠觶拜○執爵興○賓介答拜○黨僎坐祭飲興○坐奠觶拜○執爵興○賓介答拜○黨僎逆降洗觶升○實觶皆立于西階上○賓介皆拜○黨僎皆進薦西奠之○賓辭坐取觶以興○介薦南奠之○介坐受興退○黨僎皆拜送觶降○賓介奠于其所○司正出位北向立乃言曰 仰惟國家 率由舊章 崇尚禮教 今茲舉行鄉飲 非專爲飲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勉 忠於國孝於親 內睦於閨門 外比於鄉黨 胥訓告胥教誨 無或愆墮 以忝所生 在位者皆再拜○司正升自西階受命于主人○主人曰請坐于賓○賓辭以俎○主人請徹俎○司正升立序端○賓降席北面○主人降阼階上北面○介降席西階北面○黨僎降席東南面○賓取俎授司正○司正以降賓從之○主人取俎授弟子○弟子降自西階○主人降阼階○介取俎授弟子○弟子降○介從之○衆賓皆降○脫屣揖讓升坐○乃進羞○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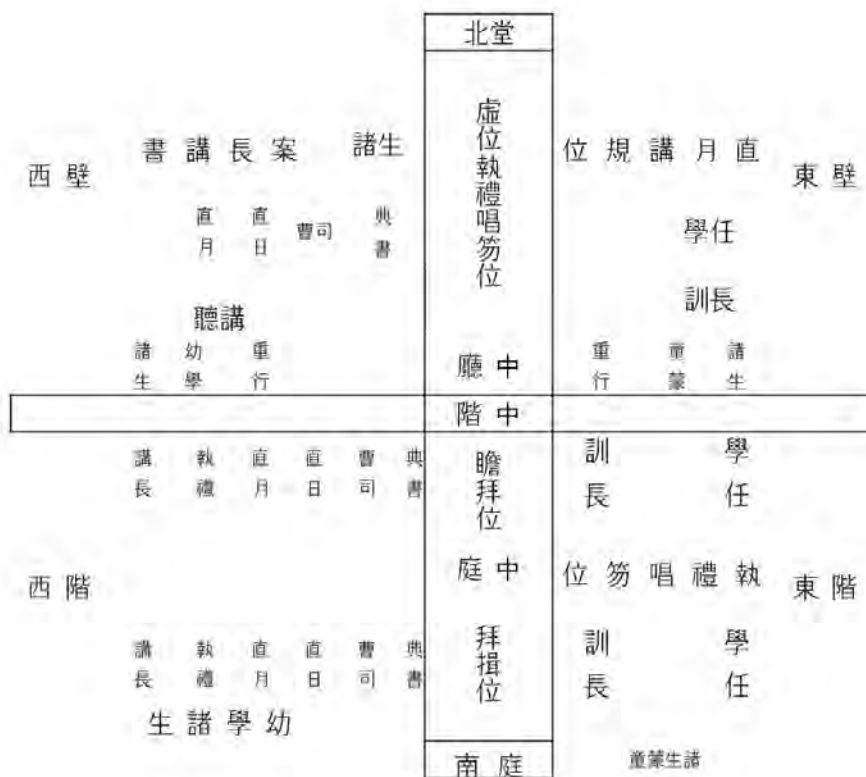
筭爵○無筭樂○賓出奏陔○主人出門再拜○明日賓鄉服以拜賜○主人如賓服以拜辱○主人釋服乃息○司正脯醢以告于先生君子可也

- 一 置應赴飲人籍 一 赴飲人 七十以上及官二品以上者 以禮專請之 其餘以列位請之 七十以上免拜
- 一 行禮有期 而有疾故不能赴者 前期具狀免 一 鄉飲酒之設 所以尊高年 尙有德 興禮讓 敢有誼譁者 許揚解者 以責之 其或因以失禮者 除其籍 一 司正以衆所推復者爲之 相者 以熟禮者爲之 一 酒肴酌量支辦 務要豐儉得宜 一 前期釀酒修脯 前日烹狗堂東下 以具鄉飲酒禮之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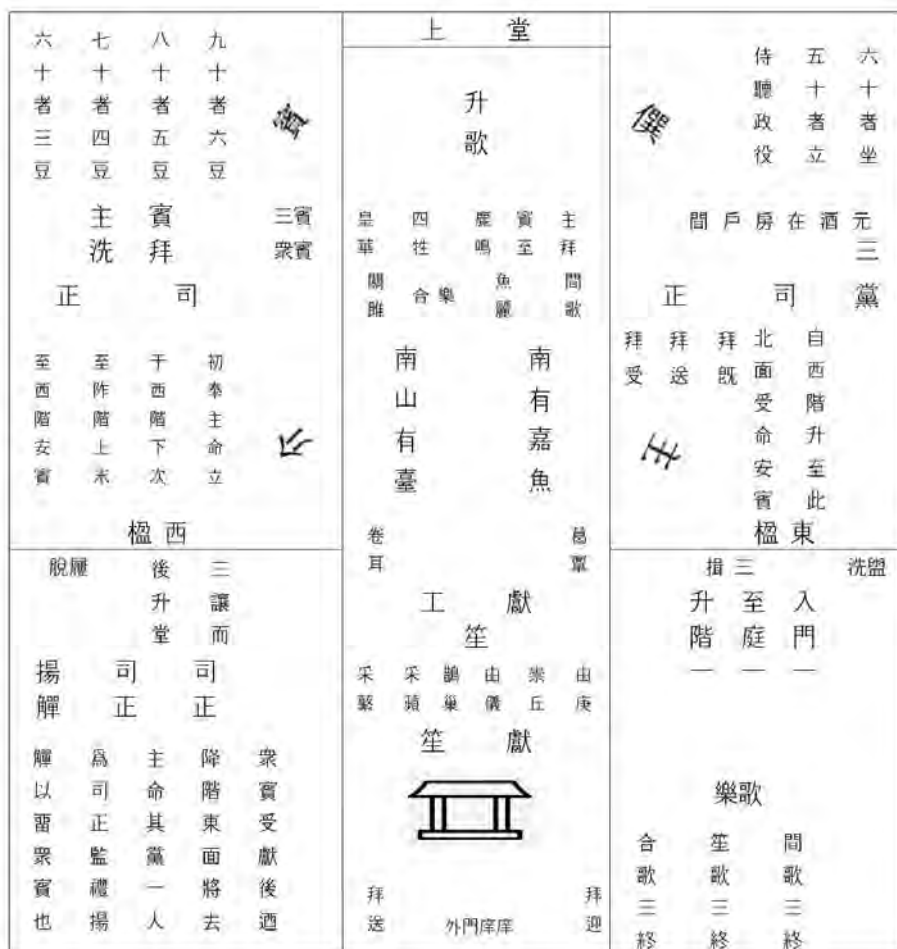
## 講習禮節目

- 一 學任卽齋中之主也 講長卽齋中之客也 固當以禮相敬 故一依鄉飲酒儀 主人坐於東南 賓坐於西北之禮 以爲班次
- 一 長幼之序 卽五教之一 況令齒讓之席 尤當明辨其序 諸執事諸生 各從齒次立坐 無或錯亂失序
- 一 訓長一面之主管 立於學任之次 拜揖一依學任
- 一 四十以上來觀之員 別設廳講一位以待之
- 一 不着道袍之人 勿許升座 而童蒙則勿拘此例

# 設講圖



# 鄉飲酒禮圖



### 三綱發文錄

承旨安公大規【順興人 文懿公 諱文凱后】忠節蒙恩事  
處士金景欽【鳴川先生后】才學道薦事  
姜在孝【文良公 諱希孟后】以孝道薦事  
李秉德【一齋先生后】才學道薦事  
海州人吳斗業妻順興安氏 烈行  
糾正公后孫朴成來妻大丘徐氏 烈行  
梅軒先生后孫權哲圭妻康津金氏 烈行  
順興人安在益妻全義李氏 烈行  
朴粹昌 朴粹敏兄弟【咸陽人收心齋后】孝友  
安在護【文懿公后】才學【道薦】邊相文【望菴先生后】孝行  
金教煥【慶州人 齊肅公后 以孝道薦】河相年【晉州人兄弟】孝友  
丁鎮兌【不憂軒先生后】孝行 宋鍾轍【訥庵先生後】孝行  
李鏞弼【益州人 南村先生后】才行 姜在哲【晉州人】孝行  
朴周鎮【糾正公后】孝行 崔南休【晚六先生後】孝行  
河基錫【晉州人】孝行 林衷洙【羅州人】孝行  
崔澤鉉【晚六先生後 孝行道薦】陳翼福【驪陽人】孝行  
禹濟喆【丹陽人 易東先生后 七歲斷指】孝行道薦  
進士 徐鶴權【長城人 節孝先生后】才學【道薦】事  
壬亂殉節功臣黃公允器【厓村先生后】褒忠事

### 陳設圖

鹿脯 栗黃 燭 爵  
魚脯 刑鹽  
簠稻 乾棗 方簠  
神位 豕脰 香爐 爵

|    |    |    |
|----|----|----|
| 簋黍 |    | 圓簋 |
| 魚醢 | 菁菹 | 燭  |
| 鹿醢 | 芹菹 | 爵  |

## 祭物目錄

香一封 大同廳 幣帛五十二尺五寸 大同廳  
黃燭十四柄 官廳 稻米一斗七升五合 官廳  
鹿脯二十一条 黍米一斗七升五合  
鹿醢一斗五合 醴酒米二斗一升  
石魚三束五介 黃栗一斗五合  
大召一斗五合 刑鹽一斗五合  
魚醢一斗五合 曲子三員 官廳  
眞墨一丁 官廳 白筆一柄 工庫  
祝席一立 工庫 祝壯紙一張 雇廳  
油壯紙七張 雇廳 菁菹一斗五合 圓頭汗  
豕二口 司倉 芹菹一斗五合 圓頭汗

## 祭器目錄

香爐具蓋二十一介○香榼七介○鍤燭七雙○酒  
罇二坐○酒盞二十一坐○盞盤二十一坐○鍤簠  
具蓋十四介○鍤簋具蓋十四介○籩二十一介○  
豆二十一介○酒尺一介

## 沓案

府字四斗落聖子洞 杜字六斗落三斗落西竹平  
公字五斗落屈於坪 公字二斗落孝子門平  
府字二斗落雌牛坪 壁字八斗落竹寺洞  
漆字二斗落石隅坪 相字八斗落東山平  
隸字五斗落杏亭坪 七字一斗落細遂洞



七字二斗落細笛洞 羅字綿田三斗落花郎平  
 羅字二斗落花郎平 傾字綿田三斗落內藏塚平  
 院垚鍾字收稅租一石六斗五升

## 院生錄 元定三十人

申碩興 金逸祿 全龍吉  
 金正弘 尹昌烈  
 過年 申碩興  
 朔焚香 全龍吉  
 望焚香 金逸祿

## 院誌有司錄

|     |          |        |     |
|-----|----------|--------|-----|
| 都有司 | 參禮察訪 崔成在 | 書寫 金璣欽 |     |
|     | 幼學 金堯昇   | 黃証周    |     |
|     | 宋程淳      | 孫奎先    |     |
| 發文  | 李啓鎬      | 安益煥    |     |
|     | 李承灝      | 崔中權    |     |
|     | 金樂欽      | 權鍾林    |     |
|     | 金永璐      | 監印     | 金稷欽 |
|     | 黃基煥      | 鄭鍾龜    |     |
| 請序  | 金龍祖      | 張碩培    |     |
|     | 邊吉容      | 金炳淳    |     |
|     | 丁永瓘      | 丁相鉉    |     |
| 校正  | 金永朝      | 安堯錫    |     |
|     | 宋元浩      | 崔榮涉    |     |

|    |     |     |
|----|-----|-----|
|    | 裴基萬 | 崔鏡源 |
| 掌財 | 金亨植 |     |
|    | 禹在鎬 |     |
|    | 宋曦玉 |     |

歲在甲申六月日 武城書院開刊  
武城書院院誌下





邊吉容

金炳淳

丁永瓘

丁相鉉

校正

金永朝

安堯錫

宋元浩

崔榮涉

裴基萬

崔鏡源

掌財

金亨植

禹在鎬

宋曦玉

歲在甲申六月 日武城書院開刊

武城書院院誌下

院誌有司錄

都有司參禮察訪崔成在

書寫

金璣欽

幼學金堯昇

黃証周

宋程淳

孫奎先

發文

李啓鎬

安益煥

李承灝

崔中權

金樂欽

權鍾林

金永璐

監印

金稷欽

黃基煥

鄭鐘龜

請序

金龍祖

張碩培

隸字五斗落杏亭坪 七字二斗落細遂洞

七字二斗落細笛洞 羅字綿田三斗落花郎平

羅字二斗落花郎平 傾字綿田三斗落內藏塚平

院垡鍾字收稅租一石六斗五升

院生錄 元定三十人

申碩興 金逸祿 全龍吉

金正弘 尹昌烈

過年 申碩興

朔焚香 全龍吉

望焚香 金逸祿



祭器目錄

香爐具蓋二十一介○香榼七介○鍤燭七雙○酒  
罇二坐○酒盞二十一坐○盞盤二十一坐○鍤簋  
具蓋十四介○鍤簋具蓋十四介○邊二十一介○  
豆二十一介○酒尺一介

畚案

|          |             |
|----------|-------------|
| 府字四斗落聖子洞 | 杜字六斗落三斗落西竹平 |
| 公字五斗落屈於坪 | 公字二斗落孝子門平   |
| 府字二斗落雌牛坪 | 壁字八斗落竹寺洞    |
| 漆字二斗落石隅坪 | 相字八斗落東山平    |



黃燭十四柄

官廳

稻米一斗七升五合

官廳

鹿脯二十一条

黍米一斗七升五合

鹿醢一斗五合

醴酒米二斗一升

石魚三束五介

黃粟一斗五合

大召一斗五合

刑鹽一斗五合

魚醢一斗五合

曲子三員 官廳

眞墨一丁 官廳

白筆一柄 工庫

祝席一立 工庫

祝壯紙一張 雇廳

油壯紙七張 雇廳

菁菹一斗五合 圓頭汗

豕二口 司倉

芹菹一斗五合 圓頭汗

陳設圖

鹿脯

栗黃

燭

爵

魚脯

刑鹽

簠稻

乾棗

方簠

神位

豕腥

香爐

爵

簋黍

圓簠

魚醢

菁菹

燭

鹿醢

芹菹

爵

祭物目錄

香一封

大同廳

幣帛五十二尺五寸

大同廳

安在護

文懿公

才學

道薦

邊相文

望菴先生

孝行

金教煥

慶州人  
齊肅公后

以孝道薦

河相年

晉州人  
兄弟

孝友

丁鎮兌

不憂軒  
先生后

孝行

宋鍾轍

訥菴先生

孝行

李鏞弼

益州人  
村先生后

才行

姜在哲

晉州人

孝行

朴周鎮

糾正公后

孝行

崔南休

晚六先生

孝行

河基錫

晉州人

孝行

林衷洙

羅州人

孝行

崔澤鉉

晚六先生

孝行

陳翼福

驪陽人

孝行

禹濟喆

丹陽人  
易東先生  
后七歲斷指

孝行道薦

進士徐鶴權

長城人  
先生后

才學

道薦事

壬亂徇節功臣黃公允器

庵村先生

褒忠事

三綱發文錄

承旨安公大規

順興人 文懿公 諱文凱 后

忠節蒙 恩事

處士金景欽

鳴川先生 后

才學道薦事

姜在孝

文良公 諱希孟 后

以孝道薦事

李秉德

一齋先生 后

才學道薦事

海州人吳斗業妻順興安氏

烈行

糾正公后孫朴成來妻大邱徐氏

烈行

梅軒先生后孫權哲妻康津金氏

烈行

順興人安在益妻全義李氏

烈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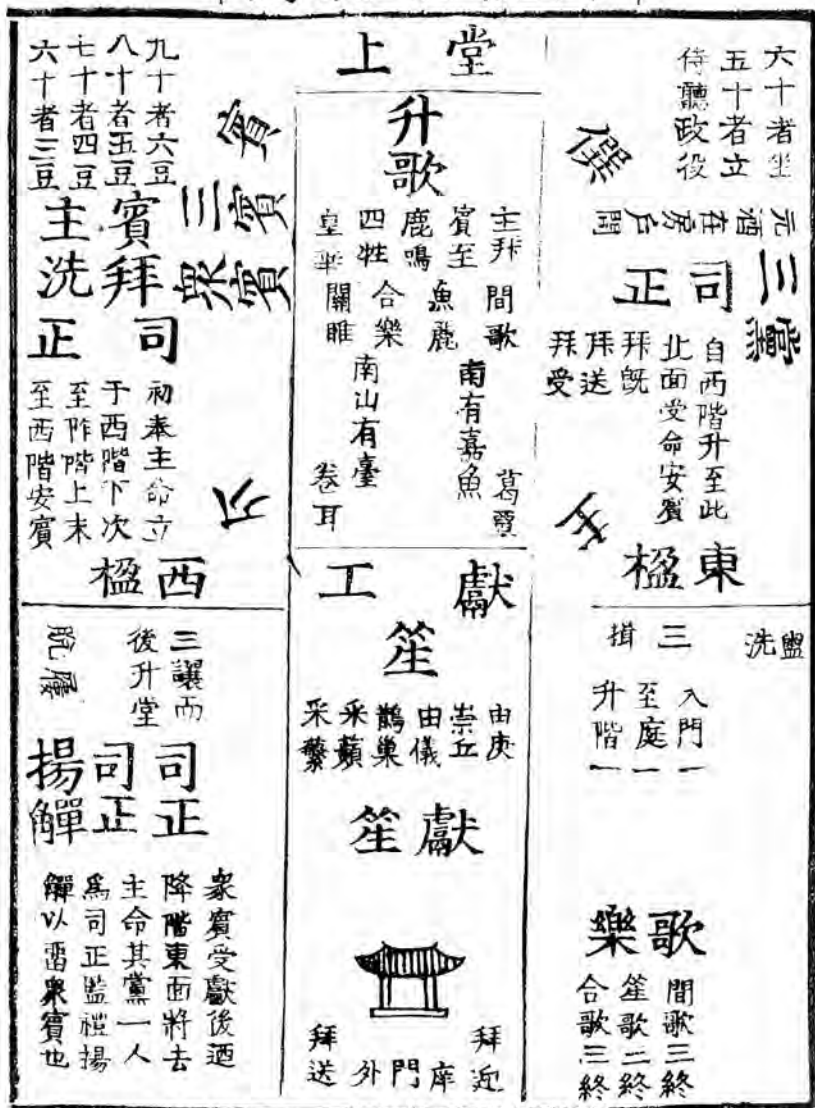
朴粹昌朴粹敏兄弟

咸陽人 收心齋 后

孝友



# 鄉飲酒禮圖



設講圖



堂東下以具鄉飲禮之羞

講習禮節目

一學任卽齋中之主也講長卽齋中之客也固當以禮相敬故一依鄉飲酒義主人坐於東南賓坐於西北之禮以爲班次

一長幼之序卽五教之一况令齒讓之席尤當明辨其序諸執事諸生各從齒次立坐無或錯亂失序  
一訓長一面之主管立於學任之次拜揖一依學任  
一四十以上來觀之員別設聽講一位以待之  
一不着道袍之人勿許升座而童蒙則勿拘此例



筭爵○無筭樂○賓出奏陔○主人出門再拜○明日賓鄉服以拜賜○主人如賓服以拜辱○主人釋服乃息○司正脯醢以告于先生君子可也

一置應赴飲人籍一赴飲人七十以上及官二品以上者以禮專請之其餘以列位請之七十以上免拜一行禮有期而有疾故不能赴者前期具狀免一鄉飲酒之設所以尊高年尚有德興禮讓敢有諠譁者許揚觶者以責之其或因以失禮者除其籍一司正以衆所推服者爲之相者以熟禮者爲之一酒肴酌量支辦務要豐儉得宜一前期釀酒修脯前日烹狗



章崇尚禮教今茲舉行鄉飲非專爲飲食而已凡我  
長幼各相勸勉忠於國孝於親內睦於閨門外比於  
鄉黨胥訓告胥教誨無或愆墮以忝所生在位者皆  
再拜○司正升自西階受命于主人○主人曰請坐  
于賓○賓辭以俎○主人請徹俎○司正升立序端  
○賓降席北面○主人降阼階上北面○介降席西  
階北面○黨僎降席東南面○賓取俎授司正○司  
正以降賓從之○主人取俎授弟子○弟子降自西  
階○主人降阼階○介取俎授弟子○弟子降○介  
從之○衆賓皆降○脫屣揖讓升坐○乃進羞○無

介答拜○主人揖復席○司正升相旅曰某子受酬  
○衆賓降席○司正退立于序端東面○衆賓自介  
右拜○司正答拜興○衆賓受爵拜飲卒○降坐奠  
觶于篚○司正降復位○使黨僎洗觶升實觶于西  
階上皆奠觶拜○執爵興○賓介答拜○黨僎坐祭  
飲興○坐奠觶拜○執爵興○賓介答拜○黨僎逆  
降洗觶升○實觶皆立于西階上○賓介皆拜○黨  
僎皆進薦西奠之○賓辭坐取觶以興○介薦南奠  
之○介坐受興退○黨僎皆拜送觶降○賓介奠于  
其所○司正出位北向立乃言曰仰惟國家率由舊

司正告于賓○賓禮辭許○司正告于主人○賓西階上答拜○司正立于楹間以相拜○主人及司正皆復席○司正實觶降自西階北面坐奠觶○退拱手少立坐取觶飲○興奠觶拜○執觶興○洗觶北面坐○奠觶于其所○退立于觶南○賓北面坐取俎西之觶東南面授主人○主人降席立于賓東○賓坐奠觶拜○執觶興○主人答拜○賓實觶東南面授主人○主人阼階上拜○賓少退○主人授觶○賓拜送于主人之西○賓揖復席○主人西酬介○介降席自東方立于主人之西○主人拜送爵○



○辯有脯醢○笙八堂下磬南北面立樂南陵白華  
華黍○主人獻于西墻上○一人拜于階受爵○主  
人拜送爵○階前坐祭立飲○升授主人爵○衆工  
受爵坐祭立飲○辯有脯醢○乃間歌魚麗笙由庚  
歌南有嘉魚笙崇丘歌南山有臺笙由儀○合樂周  
南關雎葛覃卷耳召南鵲巢采芣苢○工告于樂  
正曰正歌備○樂正告于賓乃降○主人降席自南  
方側降○主人使相爲司正○司正禮辭許○主人  
拜○司正答拜○主人升復席○司正洗觶升自西  
階阼階上北面受命于主人○主人曰請安于賓○

階上坐奠觶拜○執爵興○賓席末答拜○坐祭飲  
○卒觶興○坐奠觶興○一相拜執觶興○賓答拜  
○一相降洗爵升○實觶于西階上○賓拜○一相  
坐奠觶于薦西○賓辭坐受爵興○一相西階上拜  
送爵○賓坐奠觶于其所○一相降○設席于堂簾  
東上○樂正先升于西階東○工四人入升自西階  
北向坐○工二人東面坐鼓瑟○工二人歌鹿鳴四  
牡皇皇者華○卒歌主人獻工○工左瑟一人拜不  
興受爵○主人阼階上拜送爵○薦脯醢使人相祭  
○工人飲不拜○既爵授主人爵○衆工授酌祭歌

興○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奠爵  
于西楹南介右再拜崇酒○介答拜○主人復阼階  
揖降○介降立于賓南○主人西南面三拜三賓○  
三賓皆答一拜○主人揖升坐取爵于西楹下降洗  
升○實爵于西階上獻三賓○三賓之長升拜以次  
拜受酌○主人拜送○薦脯醢于其席○三賓坐祭  
立飲不拜○既爵授主人爵降復位○主人獻爵于  
衆賓○辯有脯醢○衆賓受爵坐祭立飲○主人以  
爵降奠于篚○揖讓升○賓厭介升○介厭衆賓升  
○衆賓序升卽席○主人之一相洗酌升○實醵西



人辭降○介對辭洗○介西階上立○主人實爵介  
之席前西南面獻介○介西階上北面拜○主人少  
退○介進北面受爵復位○主人介右北面拜送爵  
○介少退○主人立于西階東薦脯醢○介升席自  
北方設折俎祭脯醢○介自南方降席北面坐○卒  
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介右答拜○介  
降洗○主人復阼階降○介辭降○主人對○東階  
上立○介卒洗○主人盥○介揖讓升授主人爵于  
兩楹之間○介西階上立○主人實爵酢于西階上  
介右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卒爵

賓不辭洗立西序東面○卒洗揖讓升○賓西階上  
疑立○主人實觶酬賓阼階上北面○坐奠觶拜○  
執爵興○賓西階上答拜○坐祭卒觶興○奠觶拜  
○執觶興○主人阼階上答拜○主人降洗○賓降  
辭○主人卒洗揖讓升○賓西階上立○主人實觶  
賓之席前北面○賓西階上拜○主人少退○坐奠  
觶于薦西○賓辭坐取觶復位○主人阼階上拜送  
○賓北面坐奠觶于薦東復位○主人揖降○賓降  
立于階西東面○主人以介一揖一讓升○主人再  
拜○介答拜○主人坐取爵于東序端○降洗○主



拜洗○賓答拜興降盥○主人降○賓辭○主人對  
復位○賓實爵主人之席前東南面酢主人○主人  
阼階上拜○賓少退○主人進受爵復位○賓西階  
上拜送爵○薦脯醢○主人升席自北方乃設折俎  
○賓西階上疑立○主人坐左執爵祭脯醢奠爵于  
薦東興○右手取肺卻興左手齊之興加于俎○坐  
挽手遂祭酒○自席前適阼階上北面坐卒酌興○  
坐奠爵拜○執爵興○賓西階上答拜○主人坐奠  
酌于序端○阼階上北面再拜崇酒○賓西階上答  
拜○主人坐取觶于篚降洗○賓降○主人辭降○

拜送爵○賓少退○薦脯醢○賓升席自西方設折  
俎○主人阼階東疑立○賓坐左執爵祭脯醢奠爵  
于薦西與○右手取肺卻臠之興加于俎○坐挽手  
○遂祭酒興○坐席末啐酒降席○坐奠爵拜○告  
省○執爵興○主人阼階上答拜○賓西階上北面  
坐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阼階上答  
拜○賓降洗○主人降○賓坐奠爵興辭○主人對  
○賓坐取爵適洗南北面○主人阼階東南面辭洗  
○坐奠爵于篚興對○主人復阼階東西面○賓東  
北面盥手○坐取爵卒洗○賓一揖一讓升○主人

○主人升賓升○主人阼階上北面再拜○賓西階上北面答拜○主人坐取爵于篚降洗○賓降○主人坐奠爵于階前辭○賓對○主人坐取爵興適洗南面坐奠爵于篚下盥洗○賓進東北面辭洗○主人坐奠爵于篚興○賓復位當西序東面○主人坐取爵○一相西北面卒洗○主人一揖一讓升○賓拜洗○主人坐奠爵拜降盥○賓降○主人辭○賓對復位○主人當西序卒盥揖讓升○賓西階上疑立○主人坐取爵實賓之席前西北面獻賓○賓西階上拜○主人小退○賓受爵復位○主人阼階上



人退賓拜辱○介僕亦如之○乃設賓主介僕司正  
三賓三黨衆賓之席如其圖席皆不屬焉○尊兩壺  
于房戶間斯禁有玄酒在西○設篚于禁南東肆○  
加二勺于兩壺○設洗于阼階東南○賓以下依時  
刻集到○其日質明主人率賓以下先釋菜于先  
聖先師告曰某謹與諸生考協禮文推闡聖制周旋  
揖遜一如舊章卽事之初敢以舍菜之禮謹修虔告  
○退各就位○主人一相迎于門外再拜賓賓答拜  
○拜介僕介僕答拜○主人揖先入○賓厭介僕介  
僕厭衆賓入門北上○主人與賓三揖至于階三讓

○曹司進跪書案左抽柱以示當講生○講生執卷  
進詣書案前拜跪○講長拈一章以示○講生受讀  
○讀畢講長問義講生敬對講生質疑講長詳言○  
直日進跪書案前次書講生姓名及所講書名問答  
文義○講生拜退復位○諸生次次進講○諸執事  
依禮進講○讀畢修整講案圖式笏記○禮畢以此  
拜退○學任先除虛位次命齋直撤筵撤幕

### 鄉飲酒禮唱笏

擇吉辰行其禮前一日主人戒賓賓拜辱○主人答  
拜乃請賓○賓禮辭許○主人再拜○賓答拜○

長拜○講長答拜○諸執事諸生向講長拜○講長  
答揖○學任諸執事相向拜○諸執事諸生向學任  
拜○學任答拜○諸執事諸生相向揖○執禮先升  
中廳位立唱笏○講長升西壁下位○諸執事從升  
各就位○學任升東壁下位○諸生次升各就位○  
講長以下皆跪○典書收諸生講單合成一軸○直  
月進立執禮之左顧左右曰敬恭聽聽無譁○直月  
因進跪讀規位抗聲讀白鹿洞規○讀畢拜退復位  
○講長進詣虛位前拜跪讀一書○讀畢拜退復位  
○學任進詣虛位前拜跪讀一書○讀畢拜退復位



講習禮執事

都執禮 唱執禮 直月 直日 典柱 典簿

曹司 典書

笏記

學任命齋直鋪廵設幕○學任設虛位於堂北壁下南向○執禮立中庭位唱笏○講長學任諸執事諸生各具道袍黑巾八就瞻拜位○執禮指揮學任諸執事諸生一從圖式序立○執禮退復位○講長以下皆再拜○訖執禮進立唱笏○講長就西階位○學任就東階位○諸執事諸生各就位○學任向講



聖賢所以教人之法苟存於經有志之士固當熟讀  
深思而問辨之苟知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  
夫規矩禁防之具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其待學者爲己淺矣而其爲法未必  
古人之意也故今不復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  
以教人爲學之大端條列如右而揭之楣間諸君相  
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患慮云爲之際其  
所以戒謹恐懼者必有嚴於彼者矣其有不然而或  
出於禁防之外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得而  
略也諸君其念之哉

右窮理之要

言忠信行篤敬懲忿窒慾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

右接物之要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今之爲學者旣反是矣然

一自晨起至夜寢一日之間必有所事心不暫怠或讀書或靜坐存心或講論義理無非學業上喫緊有違於此卽非學者

一有時歸家切宜勿忘院中之習治心檢身應事接物須要一一務盡道理如或入齋修飭出齋放倒則是懷二心也不可容接

白鹿洞五規

並序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七戒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過惡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財利多小厭貧求富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一凡朋友務相和敬相規以失相責以善無得挾貴挾富挾多聞見以驕儕輩且不得譏侮以相戲謔  
一書籍不得出門酒色不得入門雜技不得行刑罰  
不得用

一昏後明燈讀書夜久乃寢

得以烟茶唾嚏戲事點汗牕壁亦不得着履升堂  
一常時恆整衣冠無得褻衣自便亦不得着華過近  
奢之服必以九容持身九思存心如對嚴師終始  
不懈

一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得披讀于院中史冊  
許入若欲做科業者必習於他處

一凡作文必皆本之義理無得雜以異端詭怪之說  
作字必端嚴楷正無得放意潦草

一凡言語必慎重非文字禮法則不言以夫子不語  
怪力亂神爲法且以范氏七戒存心寓目

拜

一每日晨起整疊寢具灑掃室中使齋直掃庭皆盥櫛衣冠

一平日皆以巾服詣廟庭不開中門只再拜出外庭分立東西相向行揖讓禮各就齋室

一凡讀書必整容危坐專心致志務窮義理無得相顧談話

一凡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於長者無得先自擇占長者出入時少者必起

一几案書冊筆硯等物頓置皆有常處無或散亂不



## 院規

一入齋之規無論長幼貴賤有志讀書爲學者皆可  
入院事

一旣入而如有不修威儀不謹言動甚至失身敗行  
玷辱儒風者齋任與諸生會議隨其輕重或揭罰  
或黜院若有前日悖戾之人願入則使之先自改  
過飭行熟視所爲決知其改過然後許入事

一每月朔望齋任率諸生具巾服詣廟開中門焚香  
再拜若齋任不在則齋中年少長者爲之雖非朔  
望諸生若自外新至或自院辭歸則必於廟庭再



院長縣監鄭履源 縉紳掌議縣監奇亮衍

縉紳講長縣監申岐朝 縉紳有司察訪崔成在

儒林講長邊佐容 掌議金鼎厚 色掌安永文

道內掌議黃達周 色掌

姜昌欽 直月梁在允 直日金永烈

講修齋掌議 色掌崔柄斗 鄭圭福

道內掌議李軒宇 色掌曹仁承 韓泰燁

別庫掌議 有司崔允五

進士丁泰鉉 三月日奉審 重修有司崔奎涉 金有煥

神門墻垣修葺

儒林講長

掌議金相翌 色掌金亨植

道內掌議孫履祥 色掌

李祥龍 直月高學述 直日金寬鉉

講修齋掌議邊吉容 色掌金炳淳劉鍾喆

道內掌議許 欽 色掌李秉元 金在文

別庫掌議 有司崔昌璞

崔在基崔元基以院後偷塚事稟報 營邑二十餘

塚卽爲督掘焉

文科金樞濟

四月日  
奉審

進士金璫 奉審

甲申二月仲丁日

壬午二月仲丁日

院長縣監李定植 摺紳掌議縣監韓箕錫

儒林講長金永洙 掌議崔翊坤 色掌宋炳權

徐鳳淳 道內掌議 色掌韓廷秀

李厚根 直月李穰弼 直日安夏錫

講修齋掌議朱弼煥 色掌崔南休 吳海千

道內掌議邊立基 色掌田宅鎮 趙龍雲

別庫掌議金稷欽 有司姜斗永

癸未二月仲丁日

院長縣監鄭履源 摺紳掌議縣監奇亮衍



辛巳八月日

院長縣監李定植

縉紳掌議縣監韓箕錫

縉紳有司察訪安翊良

儒林講長金永彥

掌議金永鯤

色掌宋麟王

道內掌議李承灝

色掌趙玳基

直月崔鵬九直日權鍾林

講修齋掌議宋程淳

色掌河龜弘

道內掌議

色掌林喆相

金永述

別庫掌議金奇煥

有司崔昌璞

副司果奇亮衍

四月奉審

進士郭璟鍾

四月奉審

庚辰二月仲丁

三日三日  
九月九日  
行鄉飲酒禮

院長縣監閔觀鎬

摺紳掌議郡守李雲溥

縉紳有司察訪安翊良 儒林講長李啓應

掌議李秉德 色掌金直述 色掌

道內掌議李穰弼 色掌尹日鉉

直月金樂欽 直日金亨植 講修齋掌議孔鳳洙

色掌吳寬淳 道內掌議白來洙

色掌 別庫有司崔日九

神門及墻垣脩葺 七月日

考巖書院復立事發文列邑道會全州 二月日

己卯二月仲丁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會諸生行講習禮

院長縣監閔觀鎬 縉紳掌議縣監金益健

縉紳講長察訪金禹鉉 儒林講長金永麟

掌議金樂欽 色掌安堯錫 田宅鎮

道內掌議金堯昇 色掌成載奎

直月宋永采 直日邊吉容 講修齋掌議金永烈

色掌朴在植 道內掌議李相旭

色掌林致煥 別庫有司崔鏡源

文科宋瑄王 八月日  
奉審 進士庾聖烈 九月日  
奉審

講修齋重修 十月日



別庫掌議金永殷

文科崔在澈

九月三日  
奉審

戊寅八月仲丁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會諸生行講習

院長縣監閔觀鎬

縉紳掌議縣令李喆在

縉紳講長察訪金禹鉉

儒林講長金用欽

掌議宋晚秀

色掌李秉文 呂弘燮

道內掌議黃宗默

色掌尹重弼

直月金宗琳

直日丁永瓘

講修齋掌議金永祖

色掌金在基

道內掌議柳煥昌

色掌韓永祚

別庫有司崔得瑞



直日禹在鎬

講修齋掌議邊吉容

色掌朴海龍

道內掌議景采容

色掌李海龜

別庫掌議金永弼

有司鄭漢龜

文科高必相

五月日奉審

丁丑二月仲丁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會諸生講習

院長縣監閔觀鎬

掌議金龍祖

色掌朴桂根

道內掌議黃在顯

色掌崔中權

金奉盆

儒林講長金永朝

直月宋程淳

直日黃基煥

講修齋掌議金廷述

色掌丁相鉉

張漢龍

道內掌議金斗欽

色掌

講修齋掌議金增赫

色掌安孟塾

道內掌議李文儀

色掌吳宰泳

別庫掌議金必欽

有司丁永璿

崔先生二十七世孫益鉉

自濟州放還時祇謁四月二十三日

二十八世孫漢運二十六世孫

俞同日奉審

丙子二月仲丁日

三月三日九月九日

會諸生行講習禮

院長縣監李敏泰

縉紳講長察訪金禹鉉

掌議金永準 色掌黃基煥

儒林講長進士邊遇基

道內掌議南濟

色掌李會粹

直月金永略

癸酉二月仲丁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會諸生講習

掌議宋瑛秀

色掌邊大容

講修齋掌議安在福

色掌

甲戌八月仲丁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會諸生講習

掌議金駮欽

色掌金永鯤

講修齋掌議權秉圭

色掌

乙亥正月日

三月三日  
九月九日 行鄉飲酒禮

緡紳掌議縣令李詰在

掌議金永洪

色掌禹在鎬

姜文永

道內掌議李秉敦

色掌金相浩

直月金永烈直日邊吉容



戊辰二月仲丁日

齋長金麟欽 掌議宋雲采 色掌金廷述

叅議丁載龍

三月七日  
奉審

辛未二月仲丁日

院長縣監金寅根 掌議金讓欽 色掌邊吉容

壬申八月仲丁

院長縣監趙中植與安學律金永朝重勅南學堂稷  
春三三秋九九講習

掌議金廷勲

色掌金永璐

別庫掌議金必欽 色掌丁永瓘

齋長李奎憲

掌議宋致斌

色掌權鍾喜

縣監趙縉鎬

己未七月十三日祇謁奉審

新恩金漢鼎

己未三月奉審

新恩張永鎮

庚申十二月奉審

五衛將丁禮鉉

辛酉二月仲丁日

齋長權思璜

掌議宋秉浩

色掌金永洛

生員鄭台鏞

五月二十八日奉審

五衛將丁敬鉉

壬戌二月仲丁日

掌議金大鉉

色掌宋永采

癸亥二月仲丁日

齋長金墉

掌議鄭昌賢

色掌金樂欽

進士金暨

丁卯三月二十四日奉審

進士李謙述

丁卯八月奉審

壬寅二月仲丁日

齋長金錫魯 掌議金鎮欽 色掌宋燁浩

甲寅八月仲丁日

齋長宋儒元 掌議朴奎東 色掌金廷勲

訥庵先生十一世孫宋亮采以院任節用蠲費

賢宇之地薦庫舍之牕戶及祭器燭竹一一改新

乙卯二月仲丁日

齋長李民憲 掌議金 壽 色掌宋程淳

縣監李侯承敬院後偷塚三十餘親審督掘焉

不憂軒先生十三代孫丁鎮兌重剏別庫 丁巳三月



齋長宋彥益 掌議金晉淳 色掌金祖鉉 宋致斌

桂苑筆耕開刊于完營

甲子十二月日

縣監沈能淑 齋長李俊漢 掌議金祖鉉

色掌金 齋 金奎勳

祭器改造墻垣修築

丙申二月日

齋長宋致德 掌議權思安 色掌高重鎮

講修齋翻瓦中門修葺

丁酉二月十九日

齋長金 坤 掌議趙貞球 色掌宋亮采

賢宇重脩

移安還安

祝文上同

戊戌八月二十六日

齋長宋彥直 掌議金 墉 色掌金錫五

色掌金履成 宋命哲

講脩齋入於灰燼 乙酉四月日

講修齋重砌立柱上樑 戊子三月三十日

縣監徐灝淳 齋長金峻哲 掌議丁文德

色掌鄭載赫 金匡述

賢宇重脩祝文上同 庚寅二月日

齋長金致璜 掌議宋致德 色掌宋敏植

文昌侯崔先生影幀改模縣監徐侯灝淳捐廩專當

奉安祝文上同 辛卯八月十二日

縣監沈侯能淑賢宇地薦專當改新 癸巳二月日

祭器與地薦改新

戊申八月日

齋長安處命 掌議金敏厚 色掌金 詰

弘門與中門重修

己酉六月日

齋長權 緯 掌議金之默 色掌宋致瓌

賢宇神門重修

癸丑十月日

齋長權儀德 掌議金致榮 色掌金慶厚

講修齋垣墻修葺

丙辰七月日

齋長權 繼 掌議金峻哲 色掌金 圭

賢宇改瓦

移安還安

祝文上同

己未八月日

縣監李昌熙 齋長權時詰 掌議金致厚



色掌金孝承 安守中

講修齋重修 庚子八月日

縣監洪樂顯 齋長金泰鍾 掌議金時榮

色掌金光履 金永祐

庫舍與墻垣重修 丙午五月日

縣監李齊淵 齋長楊伯楷 掌議金光五

色掌宋碩孝

賢宇改瓦祝文上同 丁卯六月一日

縣監朴贊秀 齋長金光運 掌議朴良植

色掌金胤祖 宋啓天

縣監任行元 齋長金渾 掌議金冑栢

色掌李再昌 殷道復

賢宇重修 移安 還安 祝文上同 乙亥二月日

縣監金時侃 齋長權相彥 掌議金 審

色掌李恆壽 金箕東

賢宇重修祝文上同 壬午九月日

縣監金履復 齋長趙爾欽 掌議閔百冑

色掌金 璵 金彥復

墻垣及神門重修 癸巳二月日

縣監趙載天 齋長金智興 掌議金光運

新恩劉暲奎

辛亥

生員閔致斗

乙卯

新恩宋麟浩

壬子

新恩崔光漢

丁巳

甲乙記事

賢宇重修

乙卯二月二日  
移安十日還安

祝文載上篇

縣監宋徵啓

齋長金德徵

掌議金成夏

色掌權相一

金希祖

講修齋重修

丁巳二月日

縣監許

逅

齋長鄭之雄

掌議金相采

色掌權相廷

安時器

庫舍與弘門重修

乙丑八月日



進士趙鳳熙 丁酉

新恩李龍雲 丁酉

縣監鄭琬容 己亥

申升求 丁酉

縣監趙雲始 庚子

李晉純 庚子

進士金相洪 壬寅

金敬澤 乙巳

進士李東龜

徐廷民

進士申在根 癸亥

金錫欽 丙午

及第李圭白 丙午

金基圭 戊申

生員宋持灝

李馨純 戊申

及第林文洙 庚戌

李龜善 己酉

新恩金學龍 辛亥

新恩金珽欽 己酉

縣監趙恆鎮

乙卯

持平金光遇

生員邊相璇

甲子

新恩丁翊祚

庚戌

參奉閔鳳燦

辛亥

新恩李敦德

生員李敦中

辛酉

生員李敦稱

辛酉

縣監李瞻

丁卯

新恩金致膺

甲戌

生員金炯厚

庚午

生員奇正鎮

辛卯

縣監徐灝淳

辛卯

生員丁載和

縣監沈能淑

壬辰

生員權執圭

甲午

縣監南鶴玄

生員李炳瓚

乙未

縣監趙秉憲

丙申

進士金彰業

乙未

翰林吳以翼

庚辰

縣監閔

昀 癸巳

縣監申 在

縣監宋之濂

縣監趙相愚

壬戌

進士丁士儉

丙寅

縣監李 堂

丙子

生員丁士傑

縣監金相玉

丁酉

縣監洪樂顯

庚子

及第金命衡

進士洪道明

新恩金道元

典籍金友正

都事金憲球

生員丁孝穆

壬寅

新恩金鷹道

進士黃胤錫

乙巳

新恩金萬衡

進士丁斗玉

丙寅

生員宋

傲

戊子

進士朴處仁

庚戌

縣監高用厚

郡守宋致中

壬子

巡察使李冲

壬子

縣監吳希吉

乙丑

縣監韓履謙

進士丁子淑

監察尹雲衢

縣監李厚源

亥

巡察使李溟

癸亥

察訪曹臣俊

癸亥

縣監任忠幹

生員金填

縣監申翊亮

甲戌

縣監權純慶

縣監柳德昌

壬午

縣監李星徵

持平金地南

及第金之聲



先進奉審案

進士鄭震

成化丙午

郡守宋演孫

成化丙午

判書宋世珩

正德癸酉

生員金希尹

弘治戊辰

生員金若虛

正德癸酉

生員金若晦

正德癸酉

生員丁三俊

正德癸酉

進士趙崇齡

正德癸酉

進士鄭汾

嘉靖庚子

進士金若玄

嘉靖乙酉

生員白元龜

己卯

生員宋曇

己卯

生員孫弘綸

丁酉

進士孫弘緒

丁酉

進士白三龜

丁酉

察訪金元

丁酉

進士丁子淨

戊子

牧使金福億

萬曆癸酉

叅校正監印之列觀感於僉章甫尊賢衛道而略揭  
顛末以俟後之君子尊院崇德云爾是年六月壬寅  
鳴川金先生八代孫永朝謹記

靈川申先生從遊

退溪李滉 河西金麟厚 晦齋李彥迪

一齋李恆 錦湖林亨秀 服齋奇遵

橘亭尹衢 閑亭金若晦 玉溪盧禎

聯翩七司馬來會一芳閣元亮爲良宰原明有好  
居沙汀同嶺月盤箸足溪魚勝事傳宜久須看翠

壁書

宋俛仰詩



生後孫程淳以院誌事往復于縉紳官申公岐朝申  
公謁廟而視院貌之凋殘慨然有慕賢之志極力周  
旋院誌印訖又神門傾覆者易以新之院墻滲漏者  
瓦以脩之嗚呼否而泰天地之常數晦而顯斯文之  
大幸此邦之士盍相與挹先賢淳固慤實之餘風服  
思傳尊德性道問學由博而約自下而高以揚先賢  
樂育之大德則於先賢啓迪之功斯無負矣安處士  
以晦軒先生之靈裔孝義德行鄉黨所敬教子孫有  
訓有則書三百餘冊藏于院中以爲興學之資此仁  
者之心豈啻與李公擇之藏山房者比也哉不佞亦

鳴川金先生歲之相後雖或千百揆之所同相傳精  
一合祀一堂初建之年佚而不傳自臺上移建于臺  
下在於成化十九年癸卯泰山祠屯田事在於萬  
曆丙辰 正廟壬辰院宇重修而影幀奉安也 純  
廟乙酉講堂有回祿之禍因以重修也越七年辛卯  
影幀改模也粵四年甲午桂苑筆耕開刊也 哲廟  
六年乙卯院址禁埋督掘也 當寧九年壬申芝山  
處士安公在護藏書也越七年己卯復戶保奴復舊  
也延額時祭文節儀院生關文及前後疏儒謁院守  
宰新恩事務句幹之士濟濟載其名焉 訥庵宋先

中生齋之楣而又勵繼今日而執事於茲院者云爾  
闕逢浣灘五月下泮通訓大夫行井邑縣監奇亮衍  
記

崇禎后五甲申夏武城書院院誌之編輯也觀察使  
金公聲根氏序其事憂斯學之失其傳而作也蓋道  
學之傳有自來而肅廟丙子賜額武城蓋取諸子  
游絃歌之意也子游聖門高弟而遺化千載洋溢于  
左海之武城崔先生聖廟從祀而流芳百世繼開  
于武城之六賢六賢乃靈川申先生不憂軒丁  
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



以布廣此固院事之不得不爲者而院儒宋程淳金永璐邊吉容黃基煥金亨植禹在鎬甫之斷然以爲已任旣掇拾矣又繪繡矣嗚呼二百年矣果有待於今日耶至若芝山處士安公在護以家藏經史數百卷輸諸院中俾作後生講討之資較之李公擇之貯之僧舍不啻光明正大若使安公並生長公之世則可使李君寂寂太甚惜哉或慮後之君子對是書而不知書之所自故特表而出之以告來世母使蟬蠹蝕盡古人之至意如何余旣文諸誌端又嘉諸儒眷眷之誠欲播諸當世之耳目爲構數行文使揭之院

仍舊一以懼賢侯之功朽以不文辭不獲遂爲之記

壬午仲春上澣 誠齋金先生十代孫稷欽謹記

院誌開刊記

事有不得不爲者而前輩之不遑後來之責除非彊幹  
通博之人則鮮有不安古而因循矣又若有主張幹  
旋於冥漠之中而必有待而有爲者亦由時使之然  
耳武城書院之久而無誌不過兼是三難焉已耳夫  
書院表裏學校非一人一家之私而士林之所公共事  
實規例必有一帙不易之書然後執事於院者前以  
承前後以授後庶免殘缺遺漏之歎而可以壽久可



宋程淳丁世基金永烈金廷述鄭漢龜儒林李秉德  
金龍祖金永準金永璐黃基煥邊吉容心齊議同屢  
呈營邑宋程淳金永烈兩瀆京司時領相李公最應  
特下慕賢之心復舊之題旣爲鄭重而復舊之節惟  
係於院長矣五六年間事未遂了猗歟欽哉否泰有  
數剝復無常韓山李侯定植以本縣之司成兼且院  
長慕其先賢觀此院貌保復依舊還復上以答 列  
聖朝尊賢之意下以伸諸士林齎鬱之冤大有功於  
師門永頌德於本院惟我 聖朝蒙 額之恩今復  
可覩惟吾章甫孰不忱感余以不佞一以服保復之



爲復新余之不佞以院本孫心自感服略揭顛末妄  
拙爲記云爾己卯閏三月日 訥菴宋先生十一代  
孫程淳謹記

復戶保奴還復記

蓋國之有庠序學校鄉之有書院祠宇衛聖慕賢之  
義而一體尊崇之地也本院卽七賢配享之院而  
肅廟賜額復戶三結保奴三十劃下院中以需春秋  
之享祀以備俎豆之禮儀何等尊崇之地而累百年  
清肅矣嗚呼時運不齊人道亦然戊辰各院存徹之  
際保復混入蠲削復舊之議有年未遑自戊寅本孫

載重修幾許次隨圯隨葺維舊維新嗚呼噫噫丙子  
大無之後朔望之焚香春秋之享祀謹愼奉行脩葺  
之方有忘未遑賢宇則瓦碎而滲漏席弊而漫漶講  
修廳則東齋西齋四無一壁難庇風雨何以藏修垣  
墻與庫舍神門萬無一全不獲不改新乃己以余之  
不敏將何如哉遍諭鄉員輪告道儒士林任事中旣  
有公爛之歸一縉紳任名下亦有貽力之不貳方略  
周旋鳩聚錢財可以葺而葺之可以新而新之賢宇  
之席則以葛代竹東西之齋則仍舊肯堂至於滲漏  
處瓦則瓦土則土一一修補懇懇訖功瞻仰院貌惟

斯道在在是奉非徒地守之尊慕而亦有方伯之修  
飭不但章甫之矜式而均是雲仍之永慕者有如是  
夫不佞亦以院本孫不能無感服於此而竊爲前緒  
之不朽後覽之有效忘拙構荒以備顛末如右云爾

乙亥陽月日

訥庵十二代孫宋鍾壽謹記

古有邑而曰武城卽子游之治也今有院而額武城  
因其跡之號也 肅廟丙子特蒙宣額何等清肅何  
等尊崇 文昌崔先生靈川申先生道德相孚 不  
憂軒丁先生訥菴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踵乎德享七賢配享之院也初建幾百



爲資修補之方而屬於誠齋公旁十代孫金廷信  
鳴川公七代孫金惺欽廷信惺欽誠力勤幹且誠齋  
公十代孫金必欽爲本齋扶別廳積累其功由來迄  
于今年風雨大戒屋瓦則旣滲而且裂賢宇門則旣  
蠹而旋破至於垣墻之頽圯弘門之顛越時則李侯  
敏泰以院長慨然有志於先賢之治而面戒書諭爲  
士林之興感經畫方略捐出徐相公資給條俾當一  
隅而不憂軒公十四代孫文鉉其爲先之誠尤切於  
凡儒慕賢之心極力鳩財屬匠董役院貌一新而改  
觀焉猗歟盛哉文學之元氣出乎天賦乎人而賢賢

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道德相孚治  
倣子游故先生妥靈之所必以武城宣額而邑亦因  
以爲號遺風尚傳尹茲賢侯往往多以昔先生之治  
爲治尚文教修學宮凡士之待興者向慕而誠護是  
故斯院雖舊與時維新蓋天道之扶斯文也信矣而  
易曰兌講滋益否則受泰此其理也粵若回祿後徐  
侯之重剏翻瓦時李侯之復新及其隨圯隨修者先  
公之述已備不必架壘而勦訖矣徐侯之胤相鼎庚  
午年旬宣湖省桐鄉古績先訪茲院絃歌之餘韻猶  
被興學之片石堪語乃建碑閣又捐廩俸以苞拮据



之初先訪是院祇拜訖院儒金廷勳以 誠齋金先生外裔誠護尤切以其事白太守慨然曰是誠在我遂鳩聚集事招匠董役未一月工告訖院貌於是乎復新而賢靈妥侑學徒藏修泰之儒咸頌其功歸之太守太守爲誰韓山李侯承敬也爲記其事以文屬持灝持灝乃 訥庵宋先生十世裔也義爲所不敢辭者遂爲之記甲寅陽月上幹宋持灝謹記

夫州之有書院國之有學館而禮儀文章之所由具也俎豆以薦先師講磨以倣後學昔 文昌崔先生靈川申先生暨鄉賢 不憂軒丁先生訥菴宋先生



院以武城名因邑號也昔 崔文昌先生宰是邑化  
尚絃歌治倣子游民俗丕變邑之號蓋以是而先生  
俎豆之所以武城宣額後 靈川申先生繼之文化  
復興且鄉之五賢有 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  
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俱以湖南之  
望道德相孚併食此院院之剏閱幾百載隨圯隨修  
而其所以修之者必待時宰之尊賢故修舉之事或  
不恆有焉賢宇講堂瓦裂而漏庫舍墻垣土滲而圯  
院儒謀所以新之而役鉅財窮顧无以經畫今我太  
守以二 先生之治爲治禮教丕振儒化蔚興下車

財先葺賢宇講堂庫舍墻垣齋服食鼎繼建神門修  
成餘外之有無煥然院貌略有萬一之助焉且庫舍  
之廊門修砌乃己故粵翌年與 不憂軒丁先生後  
孫志孝又設經始以 默齋鄭先生旁裔天奎擇付  
別庫有司則天奎與其族叔致學受璧兩人殫力辦  
財俾至告訖此皆羣儒之力不佞何與焉噫昔在甲  
子年吾先君已任院事神門墻垣修立一新今暨四  
十餘載不佞又當補葺事不偶然亦不無感舊之心  
茲揭顛末以待後之君子云

丁未七月日 誠齋金先生十代孫丙欽記

其事云爾甲午臘月上澣平陽朴海彥謹記

重修記

學舍之興廢蓋由於人事之得失而人事得則學舍興焉人事失則學舍廢焉本院自回祿之後講堂

賢宇重剏改觀爲多士尊慕之地矣纔經十年許神門傾圯賢宇講堂庫舍皆爲滲漏墻垣頽落齋服破裂食鼎破碎餘外之有無萬不形說而尊賢生徒幾無寓慕之所 訥庵宋先生後孫彥直慨然發歎詢謀不佞方營圖新不幸有天奪之速藐茲愚昧未知所以經紀博詢鄉儒協謀本孫展盡淺慮而鳩聚些



左揆淵泉洪公之家羅季開板之後無人重刊顧其私於一家之寶者良以此也盍將爲諸生介於營門謀所以重刊之聞者忻然而退於是侯往議于營門營門乃徐公有渠也協心同議招匠就刻數月功告訖冊旣成匣下本院其尊奉之責在吾士林誠意之如何而本院自刱建以後殆近二百年得是冊於絕無僅傳之餘而莊之爲寶貝播以爲金石則此先生中興之一大事業也眞所謂三侯併世千載一會而顯晦有數古今增慨抑有待於今日也耶院任敬承侯意之着意奉玩且懼賢侯之功朽不傳請余記

昌崔先生之出而篤道好古甚於中華然則吾東文  
獻實 先生陶鑄之蓋 先生新羅人也距今千餘  
年其文集散失無幾或出於箕雅及碑銘者皆非全  
秩惟獨桂苑筆耕中山覆簣集數十卷而已而亦無  
得而見之者矣沈侯能淑之知是邦也日涉古蹟破  
去崖岸以文酒爲政勝人醒時一月不期年而民服  
從其教化視事之暇祇謁 先生于本院彷徨於石  
龜觴臺之間而因訪院儒以 先生遺蹟諸生無以  
應之者侯曰本院乃 先生主享之所爲文集之第  
一寶莊而無尺紙可考誠甚慨然今桂苑一秩在於

年久渝傷徐侯不論所費之多少專當改模則院貌一新改觀猗歟盛哉我侯尊賢敬慕之意也略書顛末使後之守宰之尋斯院瞻是像者知徐侯之功之如此云噫我五代祖虛谷公初始移建而不佞又當重修之事事則不偶然故不避猥越而記之壬辰八月日有司 鳴川金先生六代孫玟謹記

桂苑筆耕重刊記

昔吾夫子藏壁書而斯文繼絕河間王得逸詩而風雅復興今夫桂苑筆耕之幾絕而復鳴於世者亦豈偶然而已哉噫我東人肇以旭夷知學者鮮自 文



壁漫漶而汙礎傾棟朽輒席破濕而陋講堂則爲回  
祿所禍儒生無齋居之所一鄉之嗟惜儻如何哉斯  
文有往復之運盛儀無終否之理何幸徐侯灝淳來  
莅茲縣視篆之暇瞻謁是院慨然興歎曰本院何等  
尊敬之地而若是殘弊不徒爲士林之恥亦豈無守  
宰之責乎乃與 訥菴宋先生後孫致德謀所以經  
始之百方周旋先立講堂粵明年親臨環視曰賢宇  
重修自是次第事然大役之餘院力凋瘵鳩聚之方  
先從吾始乃捐廩而設始招諭一鄉以略干儒錢克  
終閱四五月而功告訖焉且 文昌侯崔先生影幀

憂軒丁先生後孫文德 默齋鄭先生後孫載燁施  
爲方略而又幸徐侯灝淳崇賢禮士辦財董役訖五  
六月而功乃告成噫人與時值事與意成豈非興廢  
無常功業必待人而成者耶請記顛末揭于堂壁以  
示後余不敢以不文辭遂爲之記戊子六月口有司  
鳴川金先生六代孫玟謹記

賢宇重修記

院宇之興替蓋有守宰尊慕之如何本院自臺上移  
建于此者在於 成化十九年癸卯據今一百九十  
餘年其間守宰之閱歷凡幾許賢宇則瓦裂椽摧牕

絃歌之治也我五代祖虛谷公重勑是堂其后六十  
餘年族叔致榮繼爲重修則虛谷公名帖尚留上樑  
故先君子製上樑文以寓追慕之感而本草遺而不  
傳遺藁撰正時不得編次矣不幸乙酉四月有回祿  
之禍上樑文隨而成燼嗚呼惜哉先人手澤無復可  
考尊敬之地久廢將事之所徒爲好禮之士所共嗟  
惜如不佞當先於人經紀而資劣才魯莫售其計矣  
訥庵宋先生後孫致德慨然奮勵鳩聚如干之財於  
五賢本孫極力拮据裁損院中冗費逐年追補纔三  
年而經始方亟微斯人孰能如是賢勞乎乃屬 不



英妙言至今中夏聲華暢兒郎偉拋樑下道統延綿  
開大雅前哲後賢其揆同惟忠惟孝大倫也伏願上  
樑之後扁額載揭俊髦作興遺像肅清完對臥龍庵  
眞面四箴勤勉庶遵白鹿洞舊規

講堂重刊記

衛聖尊賢其義一也院宇之制仰體校宮粵自建院  
之初置堂于中門之外爲諸生講廟之所則是堂之  
爲院貌矜式豈不重且大乎本院卽崔文昌申靈川  
兩先生妥靈之所而鄉先生五賢配焉仍舊郡號稱  
泰山祠宇 肅廟丙子賜額武城書院蓋取諸子游

度惟此人心所同者有若神物其相之輯舊易新可  
聳遠近之眺聽升堂入室庶見陟降之神靈菁莪之  
化遐沾頌已騰於左海籩豆之禮斯秩教實闡於右  
文茲效驚賀之蕪詞用助虹樑之載舉兒郎偉拋樑  
東鳴川一帶古今同道源不息盈科進晝夜混混碧  
海通兒郎偉拋樑南伽倻山色碧於藍天教流水籠  
山意句語飄然造化探兒郎偉拋樑西七寶峯下月  
半低除是人間別有天尋春漁子路何迷兒郎偉拋  
樑北正正之門庭殖殖金石長隨日月懸肯教末學  
徒冥埴兒郎偉拋樑上列宿昭森銀漢像絲入錦還

可觀數曲之觴臺尚存美哉物外遐想萬柄芙蓉交  
映依然畫中傳神月延臺邊騰播詞華之嘯咏嵯峨  
峯下彷彿杖屨之逍遙人間之要路通津果是何處  
世外之青山綠水真箇名區夫何廢興之無常久矣  
繕治之未暇墻壁漫患不徒儒林之齋嗟庭廡蕪荒  
屢見行路之興歎幸值時府之新莅首議祠宇之重  
修蜀郡之儒化復明來何暮也魯邑之絃歌賁作經  
始營之於是遠近齊聲大小協力累土築石奠名基  
於規模背山臨流定方面於圭臬工倅之巧魯般之  
藝吏竭蹶而奔趨新甫之栢徂徠之松士悉心而營



涕多物色依然欄外在芙蓉不改舊時華 柳逾

一面青山獨完然千秋悵望兩神仙化行百里儒風  
振學自中州雅響傳翫鶴亭顏餘舊址流觴臺廢指  
前川後來墨客應無數更看何人繼古賢 李聖肇

院宇重修上樑文

述夫城雖武號文治蔚興地以人稱華額重煥義取  
大壯謀叶同人念茲縣建祠之方卽七賢妥靈之所  
文章輝奎壁之彩猗歟雅望享俎豆之尊展也邑侯  
兩先生鄉賢五君子精粹之學相承當世淵源絃誦  
之治惟餘此日音韻迺者多士之矜式抑亦勝地之

前後經過升載中水亭疎雨又秋風離離敗葉渾依  
舊不見花時萬朵紅

李敏敘

玄都舊客此中過十載歸來更賞花湖外名亭稱絕  
勝天中佳節屬清和紅葩露重幽香濕綠葉風輕爽  
氣多吾祖遺題偏起感分留物幾年華柳泰明  
春潭漾綠雨初過水面荷錢勝著花檻外魚跳晴日  
煖簷頭鶯語惠風和百年遺躅湖山迥三月佳辰景  
物多看取紗籠猶照眼明亭南國倍光華柳復明  
憶曾先考此經過三十年前侍看花壁上紗籠成世  
稿葉中佳釀養元和斑衣昔日歡情極墨綬今來感

敗葉離枝白露傳  
水亭殘日吊朱欄  
堪憐岸上青青竹  
獨帶清陰到歲寒

清陰金尚憲

倦客南遊日涼秋  
八月天無心向前路  
坐愛碧池蓮

畸菴鄭弘溟

暝色生秋雨寒香  
落晚荷千家大堤上  
人語柳邊多

林愼

秋池白露幾回傳  
泣閱紗籠獨倚欄  
七十八年多少感  
敗荷依舊雨聲寒

元亮孤雲共後先  
詩山從古著名賢  
秋蓮白露應依舊  
佳句何人繼石川

文谷金壽恆



十數詩朋氣槩同始覺前遊真勝事一時人在畫圖  
中金尚書應均贊曰撫古滌今是松是亭是賢是禊  
是畫是圖嗚呼十賢之前未有十賢十賢之後未有  
十賢十賢之後承其數幾何慕先如此裕后也久

披香亭懸板韻

此亭崔先生刱建

割雞當日播清芬枳棘棲鸞衆所云千載吟魂何處  
覓芙蓉萬柄萬孤雲

佔畢齋金宗直

元亮新埋土孤雲已上天空餘池水在白露滴秋蓮

石川林億齡

三邀請公終避不見畸庵鄭先生嘗與交遊有道義  
之樂白石柳先生鳳谷金先生爲莫逆之交二公嘗  
稱歎曰喜怒不形春風氣像非吾輩所及牛山安先  
生嘗曰吾少與公同學慣知其爲人眞實无妄純粹  
之學非當世人物誠大人君子每以師友禮待之漢  
湖金先生贊曰四世文獻蔚然爲湖南之選杜湖趙  
先生贊曰鳴川之學世濟其美大爲士林之所推鄉  
黨之所敬其遺什得之性情音調踈朗嘗令人可誦  
頤齋黃先生曰學博行備尤爲著焉遺風所聳莫不  
興起云先生題松亭禊會圖詩曰高亭八月賞秋風



有淵源百里小惠在公寧輪位纔三品年未再甲天  
於善良報豈有洽惟後有人克承厥家更千萬年慶  
亦云遐詩山之陽水川之谷永永茫茫不在斯

鳴川金先生事蹟補遺

先生生四世文獻家間亭諱若晦李退溪金河西從  
遊詩岳諱元文學行義克趾父美月峯諱大立李一  
齋門人壬辰倡義此其先生之父與祖曾祖也幼而  
穎悟長而志學冲澹精粹純一無雜經術之學至老  
彌篤行已處事孝悌爲本待人接物忠信爲祗追慕  
先賢獎進後生嘗赴舉入京城爾瞻素艷公名聲再

勝處也與河西金先生誠齋金先生心契交符唱酬  
諸篇頗不些雲仍幼微入於失中只有四五首詩蓋  
先生之生年月日時符合於邵堯夫卒年月日時亦  
合於邵堯夫此奇異處也

誠齋金先生行蹟補遺

俛仰宋公純撰先生行狀至末篇曰庚申夏福億纍  
然服喪以李處士恆之狀奔詣純泣謂曰孤之母爲  
公族以是孤之父嘗獲私於左右親且久考終始明  
詔後者非公不可敢來乞銘純以不文辭之不得銘  
曰清而直足以守己果而方可以濟事偉哉若人學

章論事於諫院則奚事於是錄哉 中宗以先生之  
久病不仕春秋 賜內藥爲醫之上封事興學校闢  
異端 中宗嘉之特 賜表裏一襲先生之令望卓  
冠士林訥齋朴先生常語先生之門人曰先生真心  
學也俛仰宋先生亦從遊問禮論道嘗歎曰顏閔之  
德行游夏之文學陶潛之靖節惟先生兼之矣 正  
廟朝頤齋黃先生贊之曰先生素以家塾勤誨爲後  
進師表又曰文章德行卓卓可紀矣

默齋鄭先生行蹟補遺

先生日講學於流觴臺流觴臺卽先生所居密邇一



特加三品散官 贈資憲大夫禮曹判書

訥庵宋先生行蹟補遺

先生資稟絕異性仁孝才明敏幼聰穎聞一知十凡  
所言行異於羣兒尤工於詩詞見物隨詠咸中聲律  
人謂之神童考礪原君嘗爲 王子師傅侍讀 中  
宗于潛邸以母老春秋歸寧侍讀頻廢 中宗知先  
生之行峻必命先生侍讀矣 中宗靖國 特賜原  
從功臣二等蓋記先生之前日侍讀功也自甲子士  
禍著禦眠楯二冊湖陰鄭先生跋曰雖出於遊戲而  
勸戒之意實寓乎其中使先生誅姦發潛於史局剗

世宗朝妖僧行乎爲住持恣行無忌上自宗戚下至  
閭巷弟子如恐不及一歲中剃髮爲僧者數萬人布  
衣丁公在太學乃率諸生上疏 王不從公與諸生  
約捲堂 王召見詰以空館公對曰 殿下崇佛諸  
生欲歸而爲僧耳又抗疏極諫 王震怒欲致之死  
時黃相翼成公喜牽 王之裾爭之曰 殿下若殺  
丁克仁史策何以書之乎 王悔悟竟竄北方尋赦  
還乃流妖僧于濟州公由是名震一世 成廟朝以  
年滿上疏致仕特贈佐理功臣之號 王命禮曹判  
書李承召供帳祖道都門外以送年老難於任事故



立于達衢之上以傳示無極願得先生榆揚之文敢  
來請余聞而歎曰有是哉元亮之爲政所謂導之以  
德齊之以禮也漢之公卿多出於良二千石君其入  
哉第恨老拙不文烏足以塞諸君之望雖然元亮魁  
癸酉進士於吾門生友也詩山距吾家蒼茫之間美  
政之及民者聞之稔矣如是喑無一語則不幾於廢  
道人之善乎况太史氏方秉大筆特書于簡策者非  
一再奚待余文姑敘與二子相道之言以遺其父老  
且規夫繼來之守者 左贊成蘇世讓記

不憂軒丁先生行蹟補遺

數間暇日則鳴琴玩鶴蕭然有出塵之想昔新羅季  
崔文昌孤雲曾在吾邑其遺風餘韻至今爽人牙頰  
吾侯之文藻襟期可與孤雲並論於千載之上而人  
之愛慕韻絕之深者則孤雲或未之先也侯名潛字  
元亮高靈勲相叔舟之曾孫三魁先生從護之胤子  
早承庭訓克紹家業文章書畫世稱三絕遠近來求  
者戶屨常滿每於聽事之暇一掃百紙略不凝滯譬  
猶包丁之解牛其於游刃之恢恢乎有餘地矣今者  
秣滿賜環行橐蕭然琴劍圖書不數駄邑之老幼攀  
轅截鐙旣不可留則伐石磨治謀所以刻諸善政而



子游氏之爲武城也以禮樂爲教而夫子喜之此乃  
古今牧民之良法而後世德教之澤不流率以刑法  
束縛而操切之故淳風美俗罕或見之吾但規規於  
法度之末而已乎於是慨然以興學變俗爲意令於  
坊曲各設局堂卽藏書冊豐其餼廩聚鄉人俊秀者  
擇師而教之以至恤孤寡崇節義勵廉恥躬淳篤之  
行而闡化導之方豪胥猾吏亦莫不縮頭革心而樂  
趨於善不期年闔境大治嘗扁退食之堂曰三事蓋  
取古人當官之法惟有清慎勤而已大書三字之義  
於壁上既缺其躬又勗後來之君子堂之東構草舍

守狐疑某告

靈川申先生碑文

余間居田里門雀可羅一日坐竹間小齋有二生布衣博帶頽然其貌懷小刺求見乃金上庠元白上庠三龜也二生之言曰吾等世居秦仁請言吾太守申侯之爲政焉吾邑當輪蹄走集之地人稀而事殷役繁而賦夥緩之則廚傳急之則怨咨與兩俱病焉而理鮮得宜侯於甲辰歲初分左符下車之日首開宿弊之爲民害者釐革立盡孜孜於撫摩斤斤於聽斷律已以嚴待人以恕民乃悅服歌頌始起侯曰未也

謀過而能改若願分茅列土開國承家免身首之橫  
分得功名之卓立無取信於面友可傳榮於耳孫此  
非兒女子所知實乃大丈夫之事早須相報無用見疑  
我命戴皇天信資白水必須言發響應不可恩多怨  
深或若狂走所牽猶將拒轍酣眠未寤固欲守株則  
乃熊批豹拉之師一麾撲滅烏合鷗張之衆四散分  
飛身爲齊斧之膏骨作戎車之粉妻兒被戮宗族見  
誅想當燃腹之時必恐噬臍不及爾須酌量進退分  
別臧否與其版而滅亾曷若順而榮貴但所望者必  
能致之勉尋壯士之規立期豹變無執愚夫之慮坐



焦爛我緝熙雄略糾合諸軍猛將雲飛勇士雨集高  
旌大旆圍將楚塞之風戰艦樓船塞斷吳江之浪陶  
太尉銳於破敵楊司空嚴可矜神旁眺八維橫行萬  
里旣謂廣帳烈火藝彼鴻毛何殊高舉泰山壓其鳥  
羽卽日金神御節水伯迎師商風助肅殺之威晨露  
滌昏煩之氣波濤旣息道路卽通當解纜於石頭孫  
權後殿佇落帆於峴首杜預前驅收復京都剋期旬  
朔但以好生惡殺上帝深仁屈法申恩大朝令典討  
官賊者不懷私忿諭迷途者固在直言飛吾折簡之  
詞解爾倒懸之急汝其無成膠柱早學見幾善自爲

寄爾方鎮爾猶自懷鳩毒不斂梟聲動則齧人行惟  
吠主乃至身負玄化兵纏紫微公侯則奔竄危途警  
蹕則巡遊遠地不能早歸德義但養頑兇斯則聖上  
於汝有赦罪之恩汝則於國有幸恩之罪必當死公  
無日何不畏懼于天况周鼎非發問之端漢宮豈偷  
安之所不知爾意終欲奚爲汝不聽乎道德經云飄  
風不終朝驟雨不終日天地尚不能久而况於人乎  
又不聽乎春秋傳曰天之假助不善非祚之也厚其  
凶惡而降之罰今汝藏奸匿暴惡積禍盈危以自安  
迷以不復所謂鸞巢幕上漫恣騫飛魚戲鼎中卽看



賔無良無賴之徒不義不忠之輩爾曹所作何代而  
無遠則有劉曜王敦覬覦晉室近則有祿山朱泚吠  
噪皇家彼皆或手握強兵或身居重任叱咤則雷奔  
電走喧呼則霧塞烟橫然猶暫逞奸圖終殲醜類日  
輪闕輾豈縱妖氛天綱高懸必除兇族况汝出自閭  
閻之末起於隴畝之間以焚劫爲良謀以殺傷爲急  
務有大愆可以擢髮無小善可以贖身不惟天下之  
人皆思顯戮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縱饒假氣遊  
魂早合亡身奪魄凡爲人事莫若自知吾不妄言汝  
須審聽比者我國家德深含垢恩重棄瑕授爾節旄

武城書院院誌下

文昌侯崔先生檄黃巢書

廣明二年七月八日諸道都統檢校太尉某告黃巢  
夫守正修常曰道臨危制變曰權智者成之於順時  
愚者敗之於逆理然則雖百年係命生死難期而萬  
事主心是非可辨今我以王師則有征無戰軍政則  
先惠後誅將期剋復上京固且敷陳大信敬承嘉論  
用戢奸謀且汝素是遐氓驟爲勅敵偶因乘勢輒敢  
亂常遂乃包藏禍心竊弄神器侵凌城闕穢黷宮闈  
旣當罪極滔天必見敗沒塗地噫唐虞已降苗扈不

講習禮執事

笏記

鄉飲酒禮唱笏

講習禮圖

鄉飲酒禮圖

三綱發文

陳設圖

祭物目錄

祭器目錄

畚案

院生錄

院誌有司錄

武城書院院誌下目錄



武城書院院誌目錄

院誌下

崔先生檄黃巢書

申先生碑文

五賢行蹟

披香亭懸板文

院宇重修上樑文

講堂重砌記

賢宇重修記

桂苑筆耕開刊記

重修記

復戶保奴還復記

院誌開刊記

靈川申先生從遊

先進奉審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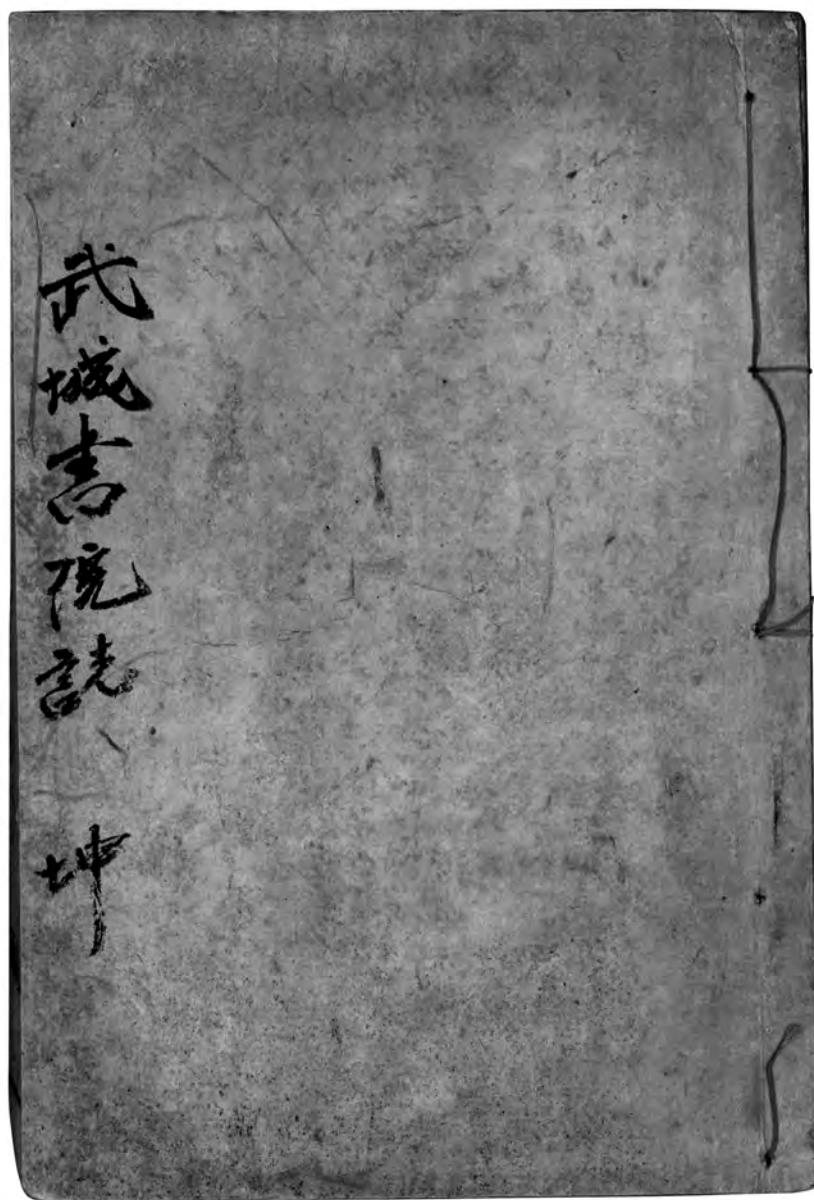
甲乙記事

院規

白鹿洞五規











본 저서에 게재된 내용이 (재)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저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무성서원원지』하(1884)

초판인쇄 | 2021년 12월 17일

초판발행 | 2021년 12월 17일

옮긴이 | 박정만·전희진·권이선

교정감수자 | 김현영(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발행인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 화 | Tel. 063-280-7212 (Fax, 063-286-9206)

홈페이지 | <http://jbstudies.re.kr>

제 작 | 퓨전디자인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53

전 화 | Tel, 063-244-4433 (Fax, 063-244-2428)

등 록 | 제2008-000004호

이메일 | [fu4433@naver.com](mailto:fu4433@naver.com)

비매품

ISBN 978-89-6612-350-6 94090

978-89-6612-348-3 (세트)





비매품  
94090



9 788966 123506

ISBN 978-89-6612-350-6

ISBN 978-89-6612-348-3 (세트)